

2009 광주광역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차별 경험과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발달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 YMCA

2009 광주광역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차별 경험과 학교생활적응 및 언어발달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

책임 연구원: 옥경희(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연구원: 박미정(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2009. 8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 YMCA

2009 광주광역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차별 경험과
학교생활적응 및 언어발달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

2009. 8. 17

책임 연구원 : 옥경희(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연구원 : 박미정(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본 보고서는 2008년 12월부터 ~ 2009년 7월 기간 동안 국가인권위원
(광주인권사무소)와 광주YMCA에서 자체 설문조사 한 내용을 토대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물
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YMCA의 입장과 다소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서론 /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9
2. 연구내용 및 방법 / 10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제한점 / 11

II. 선행연구 고찰 / 12

1. 다문화가정 자녀의 현황 / 12
2. 다문화가정 자녀관련 선행연구 / 15

III. 다문화가정 자녀 실태조사 결과 / 24

1. 개인 및 가족정보 / 24
2. 차별경험 / 29
3. 타문화 수용정도 및 국민 정체성 / 34
4. 학교생활 / 37
5. 언어발달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 43

IV. 연구결과 요약 및 제언 / 56

1. 연구결과 요약 / 56
2. 제언 / 60

.참고문헌 / 63

부록 / 65

- 자녀용 설문지 / 66

표와 그림 목차

<표 1> 다문화가정 자녀 조사자료 / 10
<표 2>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 12
<표 3> 우리나라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급별 변화 추이 / 13
<표 4> 우리나라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 / 13
<표 5> 국제결혼가정 자녀 시·도별 학교급별 현황 / 14
<표 6> 광주광역시 국제결혼가정 자녀 학교급별 재학 현황 / 15
<표 7> 초·중·고 국제결혼가정 자녀 부모출신국별 현황 / 16
<표 8> 아동의 언어사용 능력 / 21
<표 9> 유아와 초등학생의 언어능력 정도 / 22
<표 10> 조사 대상자의 학년과 성별 빈도 / 24
<그림 1> 응답 아동의 성별 분포도 / 24
<그림 2> 응답 아동의 학년별 분포도 / 24
<표 11> 응답아동의 출생국가 빈도와 백분율 / 25
<그림 3> 응답아동의 출생국가 분포도 / 25
<그림 4> 외국 출생국의 분포도 / 25
<표 12, 그림 5> 응답 아동의 가족원 수 / 26
<표 13> 응답아동 부모의 연령대에 따른 빈도 / 26
<그림 6> 아버지의 연령대 분포율 / 26
<그림 7> 어머니의 연령대 분포율 / 26
<표 14, 그림 8> 응답자 아동 어머니의 본국 분포 / 27
<표 15> 아동 부모님의 직업군 빈도 / 27
<그림 9> 아동 부의 직업별 분포율 / 28
<그림 10> 아동 모의 직업별 분포율 / 28
<표 16, 그림 11> 어머니 기타 직업 / 28
<표 17, 그림 12> 장래직업 / 29
<표 18, 그림 13> 우리사회에서의 차별경험 / 29
<표 19, 그림 14> 차별받은 대상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 / 30
<표 20> 차별경험 원인에 따른 경험 빈도 / 30
<그림 15> 차별경험 원인에 따른 경험 분포도 / 31
<표 21, 그림 16> 차별에 대한 상담 유무 / 31
<표 22, 그림 17> 차별경험을 도와준 상담자 / 32
<표 23, 그림 18> 상담 시 가장 도움 된 사람 / 32

<표 24> 학생들의 폭력 경험에 대한 빈도 /	33
<그림 19> 학생들의 폭력 경험에 대한 분포도 /	33
<표 25> 타문화 수용정도에 대한 빈도 /	35
<그림 20> 타문화 수용정도에 대한 백분율 /	35
<표 26>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중요도 빈도 /	37
<그림 21>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중요도 분포율 /	37
<표 27, 그림 22> 학교생활을 좋아하는 정도 /	38
<표 28, 그림 23>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 /	38
<표 29, 그림 24> 아동들이 응답한 학교성적 /	39
<표 30>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 빈도와 백분율 /	39
<그림 25>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분포도 /	40
<그림 26>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분포도 /	40
<표 31, 그림 27>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	40
<표 32> 학교생활에서 겪었던 어려운 일들: 빈도(백분율) /	41
<그림 28> 학교생활에서 겪었던 어려운 일들: 빈도(백분율) /	41
<표 33, 그림 29> 학교생활에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들 /	41
<표 34, 그림 30> 어머니의 숙제 도와주는 빈도 /	42
<표 35, 그림 31> 어머니의 학교 행사 참석 정도 /	42
<표 36, 그림 32> 어머니께서 선생님과 자녀에 대한 연락 /	43
<표 37> 한국어 실력 정도 /	44
<그림 33> 한국어 실력 분포도 /	44
<표 38, 그림 34> 또래와 비교한 아동의 한국어 능력 /	45
<표 39> 어머니 나라말 실력 정도 /	46
<그림 35> 어머니 나라말 실력 분포도 /	46
<표 40, 그림 36> 어머니 나라말 학습 필요성 /	46
<표 41, 그림 37> 어머니와 대화 시 사용 언어 /	47
<표 42>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 빈도 /	48
<그림 38>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 분포도 /	48
<표 43, 그림 39> 어머니와의 대화 정도 /	48
<표 44, 그림 40> 어머니와 대화 시 불편한 정도 /	49
<표 45, 그림 41> 불편이유 /	49
<표 46, 그림 42> 소신대로 얘기하기 /	50
<표 47, 그림 43> 귀담아 들어주심 /	50
<표 48, 그림 44> 원하는 바를 부탁하는 것이 겁이 남 /	51
<표 49, 그림 45> 감정을 잘 아심 /	51
<표 50, 그림 46> 어머니와의 대화 만족 /	52
<표 51, 그림 47>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고 어려움 /	52

- <표 52, 그림 48> 말을 안 하는 것이 마음 편함 / 53
- <표 53, 그림 49> 어머니가 솔직하게 답해 줌 / 53
- <표 54, 그림 50> 의논할 수 없는 비밀이 있음 / 54
- <표 55, 그림 51> 의견을 이해해주심 / 54
- <표 56, 그림 52> 잔소리로 귀찮음 / 55
- <표 57, 그림 53> 진심을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음 / 5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은 이주여성의 적응문제에서 자녀들의 적응문제로 그 관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 2008년 초등학교 재학생 중 다문화가정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0.45%로 17,00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들 중 85%가 초등학교에 집중되어 있으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연령별 비율에서는 6세 미만이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관한 연구는 2000년에 들어서면서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초기에는 이주노동자 자녀로 그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2005년 이후에 들어서 결혼이주여성 자녀에게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는 중이다. 신문기사나 방송 등을 포함한 대중매체들은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이 적응이나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도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발달이나 적응을 다룬 연구들 또한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자녀들과 비교하여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지만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다룬 연구들이 서로 다른 연구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는 것은 자녀의 발달단계나 부모의 특성과 같은 연구대상 그리고 연구내용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의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다른 나라에서 이주한 어머니들이 당면하는 언어를 포함한 문화와 사회적 적응에서의 어려움이 자녀의 발달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염려를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염려는 대부분 부정적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지지되고 강화되며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주로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들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연령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저학년의 어린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녀발달 단계에서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자녀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들 중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결혼이주여성 어머니가 경험하는 자녀양육 어려움이다. 물론 자녀양육어려움에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겪는 차별이나 편견도 포함한다. 면접조사를 통한 결과는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의 형편을 확실하고 깊이 있게 전달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현황을 파악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언어발달에 대해서도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나 혹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통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고학년 학생

들에게 적용하는데 한계를 지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가정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이들의 인권침해와 차별경험, 학교생활에서의 적응과 언어발달 및 모자간의 의사소통정도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이다. 이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는 모두 221명으로 보고되었으나 학교의 참여거부나 본인의 참여거부로 인하여 설문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214명이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와 응답이 부실한 10명의 응답을 제외하여 총 204명의 자료만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포함되었다.

<표 1> 다문화가정 자녀 조사자료

(단위:명)

구분	초	중	고	계
대상자	183	29	12	221
응답자	175	23	6	214
수거율	95.6	79.3	50	96.83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문헌연구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현황과 관련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선 관련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현황을 분석하였고, 다문화가정 자녀들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2) 설문조사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인권침해와 학교생활적응 및 소통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과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과 차별경험, 다문화수용성 정도와 민·족 정체성, 학교생활적응과 언어발달 그리고 어머니와의 소통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부록에 수록된 설문지를 참조).

(3) 연구절차

2009년 2월에 연구를 시작하여 2009년 5월 설문지를 완성한 후, 연구조사가 실시되

었다. 광주교육청의 협조로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해당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현황을 파악한 후 자녀 설문지와 어머니 출신국에 따라 번안된 설문지를 가지고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통계패키지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평균이나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제한점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

첫째,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학생들의 차별경험, 학교적응 실태와 언어발달, 어머니와의 소통 정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의 학교생활과 언어발달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넷째, 결혼이주여성 자녀들과 어머니들의 관계향상을 위한 가족생활프로그램이나 가족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다섯째, 향후 실시될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정 자녀 연구를 위한 기본실태와 자료를 제공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전수조사를 전제로 하였지만 중, 고등학생의 참여율이 낮아 중, 고등학교 학생 전체에 대한 일반화에 있어서는 한계를 지닌다.

둘째, 자료수집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를 통해 이루어져 학생들의 응답이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자료의 결과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1990년대 초반부터 시행된 산업연수제도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거 입국과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결혼이주여성의 유입은 우리 사회의 성격을 단일민족 혹은 단일문화에서 다민족 혹은 다문화사회로 변화시킨다. 부족한 노동인력과 배우자를 외국으로부터 보충하는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외국 유학생의 수도 늘어나면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러한 추세는 당연히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이어지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수와 차지하는 비율 역시 높아지는 현상과 맞물린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은 이주노동자에 이어 결혼이주여성으로 이어지면서 최근 그 관심이 다문화가정 자녀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2005년 이후부터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수집되고 보고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자료들을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료는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근로자를 분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아래 <표 2>에서 보여주는 수치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우리사회가 갖는 관심의 변화를 볼 수 있다. 2003, 4년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 자녀만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2005년에 들어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도 다문화가정의 관심대상으로 포함하였다는 사실이다. 현재까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초등학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5%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그 비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2>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단위: 명, %)

년도	초등학교 전체 아동의 수	국제결혼가정	이주 노동자
2003	4,175,626		570(0.01)
2004	4,116,195		615(0.01)
2005	4,022,801	5,332(0.13)	995(0.02)
2006	3,925,043	6,795(0.17)	1,115(0.03)
2007	3,830,000	11,444(0.29)	755(0.02)
2008	3,672,207	15,804(0.43)	981(0.02)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2008 유초중등 교육통계자료 std.kedi.re.kr
2008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자료 www.moe.go.kr

다문화가정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은 <표 3>의 자료를

통해서 가능하다. <표 3>에서는 국제결혼 자녀의 변화율을 학교급별로 보여주고 있다. 2006년은 2005년과 비교하여 1,877명이 증가하여 130.6%로 늘어났으나, 2007년에는 전년도인 2006년보다 5,447명이 늘어나 168.1%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2008년에는 전년도보다 그 비율이 139.6%로 줄어들었으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2003년 이후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3> 우리나라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급별 변화 추이 (단위: 명, %)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5	5,332		583		206		6,121	
2006	6,795	127.4	924	158.5	279	135.4	7,998	130.6
2007	11,444	168.4	1,588	171.9	413	148.0	13,445	168.1
2008	15,804	138.1	2,213	138.9	761	184.0	18,778	139.6

출처 : 2008년도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계획(교과부 '08.6월) www.moe.go.kr

또 다른 자료인 <표 4>를 통해서도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에서는 2008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 자녀의 연령별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는 전체 자녀의 4.3% 그리고 중학교 재학 중 자녀는 6.3%로 10.6%가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임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결혼이주여성 자녀가 32.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많은 자녀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만 6세 미만이 전체 결혼이주여성 자녀의 57.1%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곧 공교육의 대상으로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표 4> 우리나라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

구분	만6세미만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계
학생 수	33,140명	18,691명	3,672명	2,504명	58,007명
비율	57.1%	32.2%	6.3%	4.3%	100%

출처 : ('08. 5, 행안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현황은 <표 5>에 제시되었는데 전국 현황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2008년 6월 기준으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국제결혼가정 학생 수는 모두 439명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머니가 이주여성인 경우는 415명으로 국제결혼가정의 9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의 전국 학교급별 구성비는 초등학생 85.4%, 중학생 11.1%, 고등학생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초등학생이 90.1%, 중학생이 6.0%, 고등학생이 3.9%로 전국과 비교하여 초등학생의 비율은 조금 높고 중학생의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5> 국제결혼가정 자녀 시·도별 학교급별 현황

구분 시도	국제결혼가정 학생 수				모가 외국인인 학생 수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서울	1,813	319	127	2,259	1,446	220	80	1,746
부산	634	92	44	770	542	70	29	641
대구	403	38	15	456	369	27	5	401
인천	560	67	35	662	560	67	35	662
광주	394	28	17	439	374	25	16	415
대전	249	61	17	327	209	57	13	279
울산	220	30	14	264	204	25	13	242
경기	3,091	576	211	3,878	2,656	477	163	3,296
강원	883	95	27	1,005	849	83	24	956
충북	877	88	29	994	839	73	23	935
충남	1,235	185	56	1,476	1,162	166	52	1,380
전북	1,235	131	18	1,384	1,160	112	18	1,290
전남	1,675	136	58	1,869	1,644	136	57	1,837
경북	1,150	110	32	1,292	1,114	102	22	1,238
경남	1,239	237	54	1,530	1,212	232	46	1,490
제주	146	20	7	173	112	13	4	129
계	15,804	2,213	761	18,778	14,452	1,885	600	16,937
비율(%)	84.2	11.7	4.0	100.0	85.3	11.1	3.6	100.0

출처 : 2008년도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계획(교과부 '08.6월)

광주광역시 국제 결혼가정 자녀의 재학생의 최근 4년간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표 6>의 자료를 살펴보면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물론 전국의 변화율에서도 (<표 2> 참조) 비슷한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광주광역시에서의 2007년의 증가율은 평균치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광주광역시의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증감율은 136.3%로 집계되어 전국의 증감율 139.6%과 비교하여 조금 낮은 추세를 보이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표 6> 광주광역시 국제결혼가정 자녀 학교급별 재학 현황 (단위: 명, %)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5	117		8		2		127	
2006	118	100.9	8	100.0	7	350.0	133	104.7
2007	279	236.4	32	400.0	11	157.1	322	242.1
2008	394	141.2	28	87.5	17	154.5	439	136.3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현황을 부모의 출신국별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제결혼가정 부모의 출신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나라는 전체의 44.2%로 나타난 일본이고, 그 다음이 24.5%인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이다. 필리핀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0%로 3위인데, 4위인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율은 4.6%로 3위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도 1순위부터 4순위를 차지하는 출신국은 전국 경향과 같았다. 다만 그 비율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의 비율이 48.3%로 조금 높고, 중국의 비율은 22.3%로 조금 낮으며, 필리핀이나 베트남도 19.4%와 5.5%로 전국 비율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제결혼가정 중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비율보다 조금 더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2. 다문화가정 자녀관련 선행연구

다문화가정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2000년 이후 꾸준히 다양한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초점을 맞춘 초기 연구들은 주로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그 대상이었으나 결혼이주여성 자녀들로 그 관심이 급격히 옮겨가는 중이다.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사회적응이나 자녀교육 관련 실태조사(김갑성, 2006; 금명자 외, 2006; 정일선, 2006; 조영달, 2006), 언어발달(정기선 외, 2007; 정은희, 2004), 학교적응(다정현영, 2007; 박은애, 2007; 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조혜영 외, 2007; 안은미, 2007; 정운정, 2007), 심리사회적 적응(김경란, 2007; 이영주, 2007), 가족관계(강석광, 2007; 금명자 외, 2006; 설동훈 외, 2005; 이남주, 2006;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2007), 자녀양육 및 교육(권오희, 2006; 김경신, 2009; 김영주, 2006; 설동훈 외, 2005; 심인선 외, 2008; 이남주, 2006; 이순형 외, 2006; 정기선 외, 2007; 정일선, 2006; 홍영숙, 2007;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표 7> 초·중·고 국제결혼가정 자녀 부모출신국별 현황

시·도	부 모 출 신 국 별													계
	일본	중국 (조선족)	미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러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기타	
서울	1031	501	59	230	73	34	35	71	28	45	18	29	105	2,259
부산	266	207	14	110	33	7	43	0	20	15	8	12	35	770
대구	184	108	11	65	22	11	4	0	1	9	0	11	30	456
인천	223	198	6	115	31	8	7	18	9	8	5	7	27	662
광주	212	98	1	85	24	6	1	4	0	0	0	0	8	439
대전	162	49	18	35	20	4	10	3	4	0	4	2	16	327
울산	109	48	1	46	39	2	0	1	0	1	3	3	11	264
경기	1825	763	50	566	146	78	56	83	32	69	49	26	135	3,878
강원	466	261	7	183	32	21	10	3	0	1	4	4	13	1,005
충북	418	291	6	157	44	18	4	17	1	3	3	10	22	994
충남	628	465	11	214	76	19	7	5	1	17	8	8	17	1,476
전북	563	403	1	331	33	16	5	4	6	3	5	2	12	1,384
전남	827	405	2	428	121	37	3	7	6	2	5	2	24	1,869
경북	499	422	15	186	95	25	6	0	15	7	2	1	19	1,292
경남	796	345	10	234	67	24	11	-	2	6	8	6	21	1,530
제주	84	30	4	24	8	1	2	0	1	2	2	2	13	173
합계	8,293	4,594	216	3,009	864	311	204	216	126	188	124	125	508	18,778
비율 (%)	44.2	24.5	1.1	16.0	4.6	1.7	1.0	1.1	0.7	1.0	0.7	0.7	2.7	100.0

출처 : 2008년도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계획(교과부 '08.6월)

2007), 교사(박은애, 2007)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연구주제가 다문화가정 자녀이긴 하지만 연구대상은 부모(강석광, 2007;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6; 권오희, 2006; 김갑성, 2006; 김경란, 2007; 김경신, 2009; 다정현영, 2007; 박은애, 2007; 설동훈 외, 2005; 설동훈·

이혜경·조성남, 2006; 심인선 외, 2008; 이남주, 2006; 이순형 외, 2006; 안은미, 2007; 오성배, 2005; 정일선, 2006; 조선경, 2007;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2007)와 자녀(금명자 외, 2006; 이영주, 2007; 조혜영 외, 2007; 정윤정, 2007; 정은희, 2004; 홍영숙, 2007)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발달이나 적응을 다룬 연구들은 그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이나 거주 지역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인지 아니면 결혼이주남성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연구방법이나 연구도구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다룬 선행연구결과들에 대해서 영역을 나누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차별경험과 수용정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차별경험에 대해서는 신문 기사를 포함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자주 언급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들의 차별경험을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10세에서 18세)을 대상으로 사회적 차별을 조사한 결과(금명자 외, 2006)는 차별경험이 그리 심하지 않다고 보고한다.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수군거린다, 친구들로부터 외모에 대해 놀림을 받은 적이 있다, 학교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혼혈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아르바이트 등) 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다, 가족이나 친척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혼혈을 이유로 놀림을 당한 적이 있다와 같은 다양한 문항에서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문항에 따라 50%에서 88.6%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편이라는 응답은 10%에서 2.9%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 폭행이나 성폭력 혹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극히 소수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대상자가 7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백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전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여성 467명을 대상으로 자녀가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응답한 어머니는 전체의 17.6%를 차지하는 82명이었고, 그 이유로는 엄마가 외국인이라서(34.1%),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20.7%), 특별한

1) 연구결과를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수치만을 이용하여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차별경험 문항	응답유형(단위: %)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수군거린다.		10.0	50.0
혼혈인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85.1
학교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2.9		72.9
친구들로부터 외모에 대해 놀림을 받은 적이 있다.		2.9	65.7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다.	2.9	5.7	72.9
가족/친척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혼혈을 이유로 놀림을 당한 적이 있다.		2.9	88.6
주위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1.4	74.3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97.1

이유 없이(15.9%), 외모가 달라서 (4.9%) 등을 지적하였다(설동훈 외, 2005). 이와 유사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가 조금 다르게 보고되기도 한다. 역시 전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761명을 대상으로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어머니는 34명인 5.3%를 차지하고 있었다(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34명의 어머니들이 복수응답으로 지적한 따돌림의 이유는 ‘특별한 이유 없이’가 35.3%로 가장 높았으며,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26.5%, ‘다른 아이와 외모가 달라서’ 20.6%, ‘부모가 외국인이라’ 20.6%, ‘아이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14.7%의 순이었다. 중국 동포보다는 기타 외국인 그리고 도시보다는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들의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더 많이 당하였다고 보고한다(설동훈 외, 2005).

광주광역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김경신, 2009) 심층면접 결과에 의하면 이주여성은 한국인들의 차별의식 때문에 자녀들이 힘들다고 호소하면서, 학교에서 자녀들의 인종차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497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자녀가 사회적 따돌림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차별의식을 지적한 이주여성 어머니는 단지 1.6%에 불과하였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은 자녀의 개인적 성격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성적인 성격의 부모들이 편견의 어려움을 더 지적(홍영숙, 2007)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 편견을 당한다는 비율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해석보다는 편견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자녀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할 일이라고 하겠다.

친구들의 편견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험요인으로 지적된다(이영주, 2007). 특히 친구들이 피부가 검다고 놀리거나, 엄마가 외국인이라고 놀리고, 발음이 이상하다고 놀리고, 글씨 쓰는 법이 서툴다고 놀린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친구들이 어머니가 외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거나 친구들이 놀릴까봐 불안하다는 응답들 역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느끼는 사회적 편견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사회적 수용이나 국민적 정체성을 다룬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또래의 인정이나 수용 정도를 살펴본 정윤정(2007)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일반아동이나 영재아동보다 의견 일치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또래간의 의견 불일치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된 문항의 내용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나와 다정하게 이야기한다’, ‘내게 일을 시키지 않는다’, ‘나의 의견을 존중해준다’, ‘나를 놀린 적이 없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차별이나 편견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조사한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편견이나 수용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접촉 경험에 있는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한 결과 일반학생들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해 인종주의적 편견이나 배제를 드러내지는 않으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하거나 서로 어

울려 지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응답하였다(조혜영 외, 2007). 물론 소수이기는 하지만 부정적 태도나 거부감을 드러내는 학생들도 있었으나 타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그들과 상호작용하고 싶어 하는 긍정적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생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비교적 다양한 연구결과가 제시되는 영역이다. 학교생활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성적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결과들은 비교적 긍정적 결과를 보고한다.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은 60% 이상이 본인의 성적을 보통이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조금 잘한다'고 평가한 학생은 16.0%, '아주 잘 한다' 3.2% 그리고 43.9%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정윤정, 2007). 경남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을 조사한 결과 교사들은 다문화가정 자녀 중 77%가 보통 이상 즉 상위 60% 이상에 속한다고 평가하였는데, 도시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보다 농촌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더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박은애, 2007). 성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교사들의 응답은 도시와 농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도시 학교의 교사들은 가정에서 학습에 도움을 줄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농촌 학교의 교사들은 한국어의 이해 능력 부족이라고 응답에 차이를 보였다(박은애, 2007).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수업에 적응하는 정도는 한국에서의 체류기간, 한국어 수준, 가정의 지원 정도,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한다(조혜영 외, 2007). 한국에서 지낸지 얼마 안 되는 학생들이나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학교에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그러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한국어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비교적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들의 11.5%는 자녀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하였고, 59.8%가 자녀의 학교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학교생활 중 교우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모두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지는 않는데 비교적 또래들과 잘 어울려 지낸다고 보고한다(금명자 외, 2006; 박은애, 2007; 조혜영 외, 2007; 홍영숙, 2007). 그러나 또래와의 관계가 초등학교 저학년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에게서 교사나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보다 더 낮은 점수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정윤정, 2007).

저학년의 경우에는 언어와 외모의 차이에서 오는 교우 관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나 고학년의 경우 또래들이 의식적으로 다문화 배경 친구들에 대해 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조혜영 외, 2007), 아시아권 이주민 자녀들은 외모에서 별 차이가 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우관계를 살펴 본 대부분의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 나타나지 않아 다문화가족 자녀임을 드러내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조혜영 외, 2007; 홍영숙, 2007). 교사들의 37.2%가 한국 친구들이 다문화가정 자녀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외모에서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구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은애, 2007).

교사와의 관계도 비교적 원만하여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정윤정, 2007; 홍영숙, 2007). 결혼이민자 어머니들의 98%가 자녀의 교사가 자녀에게 관심을 보통 이상으로 갖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77%가 교사가 본인의 가정형편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박은애, 2007). 자녀의 학교교사에 대해서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결혼이주여성 전체 응답자의 6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결혼이주여성이 자녀들의 학업에 대한 참여율을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숙제를 도와주는 정도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는 정도에 대해서 55%의 어머니들이 '거의 매일' 숙제를 도와준다고 응답하였고 '거의 도와주지 않는다'고 응답한 어머니도 21%를 차지하였다(설동훈 외, 2005). 심인선(2008)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숙제를 '거의 매일' 도와준다는 부모가 48.3%, '거의 도와주지 않는다'가 17.2%로 나타났다. 자녀숙제를 도와주는 정도는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는데 필리핀 출신 어머니들의 70%가 거의 매일 숙제를 봐준다고 하였고 그 다음이 일본인 어머니로 56%였다. 중국 조선족은 48.5% 그리고 중국 한족의 어머니들이 46.7%로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제일 낮았다(설동훈 외, 2005). 숙제를 도와주는데 어려운 이유는 한국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제일 높았고 교과내용이 어렵다는 응답도 있었으나 중국 조선족 어머니들의 33.7%는 어려운 점이 없다고 응답하였다(설동훈 외, 2005; 심인선, 2008).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은 엄마가 공부를 가르쳐주지 못하거나 숙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준비물을 챙겨주지 못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한다(이영주, 2007).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의 학교교육 지원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한국어의 어려움과 배경 지식이 부족함을 꼽는다(조혜영 외, 2007). 취학자녀의 학업지도를 부모가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결혼이민자는 '교과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서'(37.1%), '생업에 바빠서'(30.3%), '한국어 수준이 낮아서'(18.0%)라고 응답한 결과(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또한 이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고민이 있을 경우 59.9%는 아무에게도 고민을 상담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상담을 하는 대상자로는 어머니(64%), 아버지(16%), 형제자매(6.7%) 그리고 담임선생님과 친구들(13.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정윤정, 2007).

3) 언어발달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다룬 연구들은 자녀들의 적응이나 학업에서의 문제원인으로 무엇보다도 이들의 느린 혹은 뒤떨어진 언어발달을 자주 지적한다(권오희, 2006; 김용현, 2007; 이영주, 2007; 정윤정, 2007; 정은희, 2004; 홍영숙, 2007).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발달을 다룬 정은희(200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독해와 어휘력, 쓰기, 작문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도 나이가 많을수록 언어발달에서의 지체율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5세의 경우 이해언어능력에서는 대상의 13%가 1년 이상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현언어 능력에서도 63%가 지체현상을 보여 이해에는 문제가 없어도 언어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은희(2004)의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연령이 높은 자녀들의 발달을 살펴보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 능력의 현황에 대해서는 오성배(2005)의 연구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담임교사들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수업시간, 조회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을 갖춘 질문에 대해 대답하거나, 일기와 쓰기와 관련된 행동에서는 차이를 보인다는 응답이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다른 과목에 비하여 국어 과목이 매우 취약한데 암기한 단어를 받아쓰는 일에는 문제가 적어도 암기한 단어의 글자들이 새롭게 조합되는 경우에는 읽거나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단어와 문장 이해력이 높아지긴 하지만 다른 아동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인다고 한다. 특히 일기쓰기와 독후감 작성에 취약하였고, 문장 이해력이 떨어지고, 맞춤법을 특이하게 틀리는 현상을 보인다고 한다.

경상북도 결혼이주여성 가족 자녀들의 실태조사 결과(정일선, 2006)는 유아와 초등학교생들의 언어발달 자료를 제시하면서 언어발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8>에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국어 능력이 좋아지고 있다. 어린 유아인 경우에는 한국어의 사용이 서툰 경우가 28.4%를 차지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은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한다는 비율이 92.0%를 보이고 있어서, 사용이 서툰 비율은 8% 정도로 떨어진다.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를 둘 다 능숙하게 사용한다고 답한 비율도 유아에서 초등학교생의 경우 거의 4배로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이러한 추세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보고되지 않는다.

<표 8> 아동의 언어사용 능력

단위: 명(%)

언어사용 능력 구분	발달연령		
	유아 (N=74)	초등 (N=249)	전체 (N=323)
한국어, 어머니의 모국어 둘 다 능숙하게 사용	2(2.7)	25(10.1)	27(8.4)
한국어만 능숙하게 사용	51(68.9)	204(81.9)	255(78.9)
한국어는 서툴지만 어머니의 모국어를 능숙하게 사용	3(4.1)	10(4.0)	13(4.0)
한국어, 어머니의 모국어 모두 서툴게 사용	18(24.3)	10(4.0)	28(8.7)

출처: 정일선(2006) 85쪽 <표 III-65>

유아와 초등학교생의 언어능력을 읽기, 쓰기 그리고 말하기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를 <표 9>에 요약하였다. <표 9>에서도 유아들보다는 초등학교생들이 세 영역 모두에서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생들이 유아들보다 상위권에 드는 비율은 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하위권을 차지하는 비율은 쓰기를 제외하고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역별로는 말하기를 제일 잘하고, 그 다음이 읽기, 쓰기의 순으로 잘한다고 담임교사들은 평가하였다. 아동들 스스로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게 한 결과, 말하기와 듣기에 대해서는 3.34와 3.31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읽기는 3.06 그리고 쓰기는 2.77로 쓰기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고한다(정윤정, 2007).

<표 9> 유아와 초등학생의 언어능력 정도

단위 :명(%)

언어능력 정도	능력영역					
	읽기		쓰기		말하기	
	유아	초등	유아	초등	유아	초등
상	10(14.5)	95(38.2)	7(10.1)	69(27.7)	20(27.4)	115(46.2)
중	33(47.8)	134(53.8)	30(43.5)	128(51.4)	31(42.5)	126(50.6)
하	26(37.7)	20(8.0)	32(46.4)	52(20.9)	22(30.1)	8(3.2)

출처: 정일선(2006) 91쪽 <표 III-74>와 <표 III-75>를 재구성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의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대화정도와 대화에서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불편함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자녀와 대화하는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결혼이민자들은 자녀와 거의 매일(44.3%), 일주일에 두세 차례(8.6%), 거의 하지 않음(7.7%), 일주일에 한 차례(3.1%), 한 달에 한 두 차례(3.1%)라고 응답하였다(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설동훈 외(2005)의 연구에서는 자녀와 대화하는 정도에 대해서 국제결혼여성들의 64.3%가 거의 매일 자녀와 대화한다고 응답하였으나 16.2%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정기선(2007)의 연구결과는 위의 두 연구결과보다 자녀와의 대화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거의 매일’이 62.0%, ‘일주일에 두세 차례’ (15.5%), ‘일주일에 한두 차례’(9.2%), ‘한달에 한두 차례’(6.4%), ‘거의 하지 않는다’(7.0%)의 순이었다.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라 대화빈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이나 필리핀 출신 어머니들이 중국출신 어머니들보다 자녀와 대화를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한족출신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49%가 자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설동훈 외, 2005).

자녀와의 대화에서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94.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부모의 나라말이 14.1% 그리고 영어 4.7%로 나타났다(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정기선(2007)의 연구에서는 한국어만이 48.5%, 한국어와 본국어가 38.5%, 본국어만이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몽골이나 베트남에서 온 엄마들에게서 본국어만 사용한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보다 11.4%와 9.4%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본국어를 사용한다는 비율이 줄어들고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한다. 자녀와 대화할 때 결혼이민자들이 본국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가 조사한 결과, 전혀 사용하지 않음(37.7%), 가끔 사용(30.0%), 거의 사용하지 않음(21.0%), 자주 사용(6.8%), 항상 사용(4.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어머니의 모국어에 따라 자녀의 태

도는 다르다고 보고하는데 필리핀 어머니를 가진 자녀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영어강사로 재직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우월감을 갖는다고도 한다(홍영숙, 2007).

광주광역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 결과에서 언어문제 때문에 자녀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어렵고, 자녀들에게 언어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김경신, 2009). 광주광역시 이주여성 실태조사 결과(김경신, 2009)에 의하면 어머니들이 자녀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한 어머니들이 전체 응답자의 29.8%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영주(2007)의 연구에서는 심층면접 결과 결혼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경험하며, 자녀들은 엄마가 말을 알아듣지 못해 답답해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의 관계는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금명자 외(2006)의 연구에서 혼혈청소년 자녀들은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 85%가 관계를 '좋은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15%는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5점 만점에 4.12점으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심인선, 2008), 결혼이주여성 어머니의 약 70%가 해당 자녀와 친밀감을 느낀다고 하였다(정기선, 2007). 그러나 자녀들이 보고하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III. 다문화가정 자녀 인권실태 조사 결과

1. 개인 및 가족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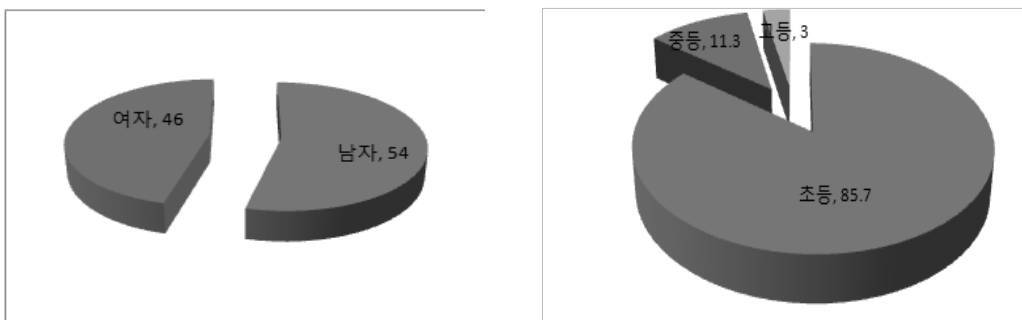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개인 정보는 이들의 성별과 학년 그리고 출생국가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았고 그 결과가 <표 10>에 요약되어 제시되었다. 대상아동들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이 중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203명 중 17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중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1.3%, 고등학생의 비율은 3.0%에 지나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남학생이 109명으로 전체의 54%, 여학생이 94명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5명(8%)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표 10> 조사 대상자의 학년과 성별 분포 (단위: 명, %)

학년		성별		합계
		남	녀	
초등학교	초4	31(28.4)	29(30.9)	60(29.5)
	초5	26(23.9)	30(31.8)	56(27.6)
	초6	37(33.9)	21(22.3)	58(28.6)
	부분 합계	94(86.3)	80(85.3)	174(85.7)
중학교	중1	5(4.6)	2(2.1)	7(3.4)
	중2	2(1.8)	3(3.1)	5(2.5)
	중3	6(5.5)	5(5.3)	11(5.4)
	부분 합계	13(11.9)	10(10.5)	23(11.3)
고등학교	고1	1(.9)	2(2.1)	3(1.5)
	고2	1(.9)	0(.0)	1(.5)
	고3	0(.0)	2(2.1)	2(1.0)
	부분 합계	2(1.8)	4(4.2)	6(3.0)
전체		109(100.0)	94(100.0)	203

<그림 1> 응답 아동의 성별 분포도 <그림 2> 응답 아동의 학년별 분포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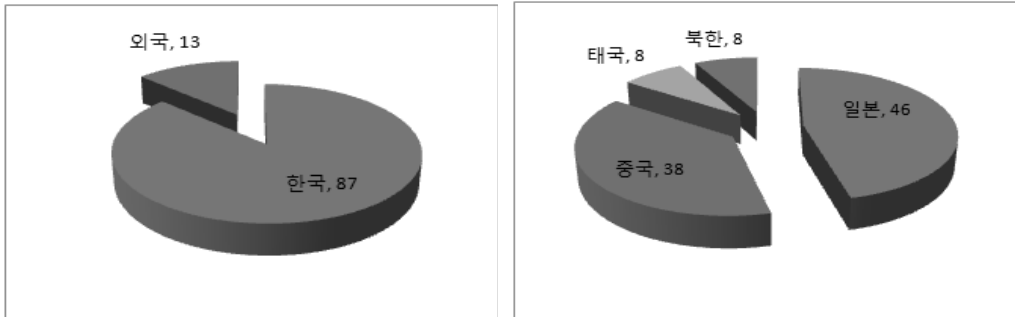


학생들이 태어난 곳을 국적별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이 전체의 87%인 167명이었고, 나머지 13%인 26명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응답한 26명의 출생국을 살펴본 결과, 일본 12명, 중국 10명, 태국과 북한이 각 2명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국가는 한국, 일본, 태국이었고, 북한은 동수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중국만 여학생이 8명인 반면 남학생은 단지 2명으로 나타났다.

<표 11> 응답아동의 출생국가 빈도와 백분율

국가		아동성		합
		남	녀	
한국		89(88.2)	77(84.6)	166(86.5)
외국	일본	7(6.9)	5(5.5)	12(6.3)
	중국	2(2.0)	8(8.8)	10(5.2)
	태국	2(2.0)	0(0)	2(1.0)
	북한	1(0.9)	1(1.1)	2(1.0)
	부분합계	12(11.8)	14(15.4)	26(13.5)
합계		101(100)	91(100)	19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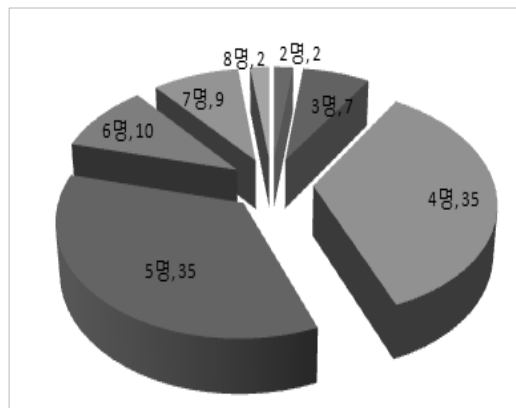
<그림 3> 응답아동의 출생국가 분포도 <그림 4> 외국 출생국의 분포도 (단위:%)



응답자 아동의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원수, 부모의 연령과 직업, 어머니의 출신국 등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우선 아동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수는 2명에서 8명까지로 나타났으며, 평균 가족원수는 4.76명, 표준편차는 1.16명이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족원 수는 4명과 5명이 동수인 7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0%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가족원 수는 6명으로 20명(10%)이 이에 해당하였고, 7명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18명(9%)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가족원수로는 3명이 15명(7%), 2명이 4명(2%) 그리고 8명이 3명(2%)으로 나타났다.

<표 12, 그림 5> 응답 아동의 가족원 수 (단위: 명, %)

가족원 수	빈도	백분율(%)
2	4	2
3	15	7
4	72	35
5	72	35
6	20	10
7	18	9
8	3	2
합계	204	100



(평균: 4.76, 표준편차: 1.16)

응답 아동 부모의 연령이 <표 13>에 요약되어 제시되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37세에서 61세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며 평균 연령은 47.05세 (표준편차, 4.07)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23세에서 54세까지로 나타났고, 평균 연령은 41.96세 (표준편차, 5.31)로 집계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룬 연령집단은 40대였으나,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연령대가 아버지의 경우는 50대였으나 어머니의 경우는 30대로 나타나 부모의 연령차이가 꽤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3> 응답아동 부모의 연령대에 따른 빈도(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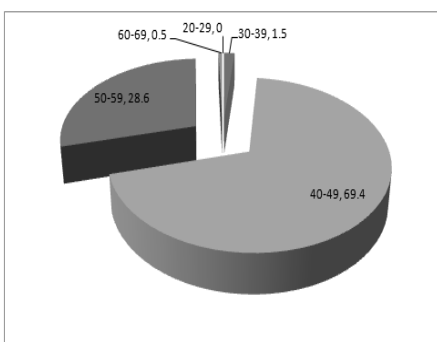
(단위: 세)

연령대	아버지	어머니
20-29	0(.0)	3(1.5)
30-39	3(1.5)	50(26)
40-49	133(69.4)	133(68)
50-59	55(28.6)	9(4.5)
60-69	1(.5)	0(0)
합계	192(100)	19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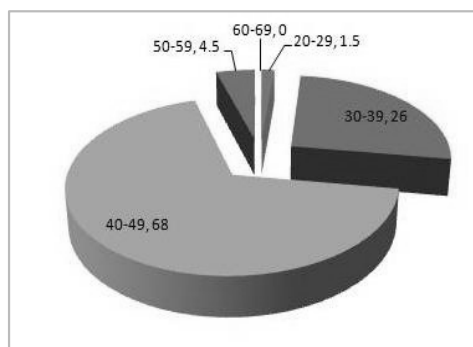
평균연령: 47.05 (4.07)

41.96 (5.31)

<그림 6> 아버지의 연령대(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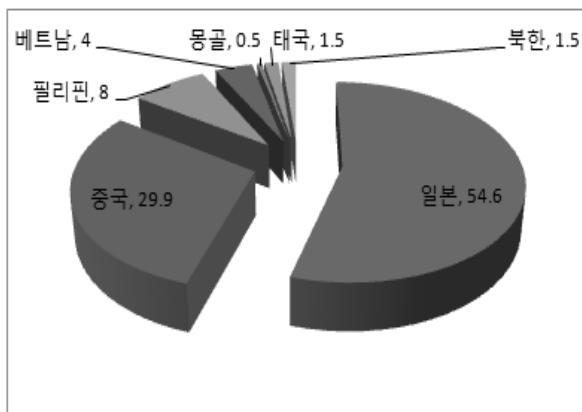
<그림 7> 어머니의 연령대 (단위: %)



다문화가정 아동 어머니의 본국을 살펴본 결과,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 태국, 북한을 포함한 7개 국가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어머니의 본국이 일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10명으로 절반 이상인 54.6%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중국 60명으로 29.9%를 차지하여 전체의 84.5%를 구성하고 있다. 나머지 15.5%는 필리핀 8.0%, 베트남 4.0%, 태국과 북한 각각 1.5% 그리고 몽골 0.5%로 구성되었다.

<표 14, 그림 8> 응답자 아동 어머니의 본국 (단위, %)

나라 이름	빈도	백분율(%)
일본	110	54.6
중국	60	29.9
필리핀	16	8.0
베트남	8	4.0
몽골	1	0.5
태국	3	1.5
북한	3	1.5
합계	20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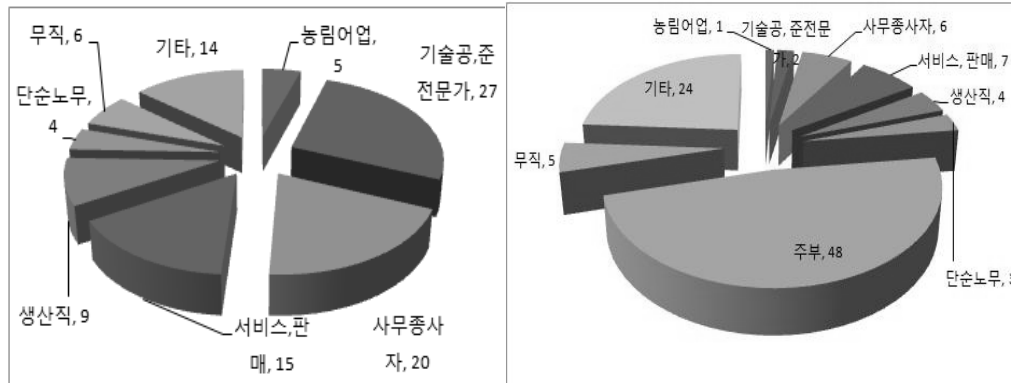
응답 아동 부모의 직업을 살펴본 결과가 <표 15>에 제시되었다. 우선 아버지의 직업을 먼저 살펴보면,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인 직업군은 기술공이나 준전문가로 전체 응답의 27%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사무종사자로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나 판매직이 15%였으며 생산직이 9%, 농림어업이 5%, 단순노무가 4%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직이라는 응답도 6%로 나타나고 있다.

<표 15> 아동 부모님의 직업군

(단위: 명, %)

직업	아버지	어머니
농림어업	9(5)	1(1)
기술공, 준전문가	50(27)	3(2)
사무종사자	37(20)	11(6)
서비스, 판매	29(15)	13(7)
생산직	17(9)	10(4)
단순노무	8(4)	6(3)
주부	-	93(48)
무직	12(6)	10(5)
기타	26(14)	48(24)
합계	188(100)	195(100)

<그림 9> 아동 부의 직업별 분포율 (단위:%) <그림 10> 아동 모의 직업별 분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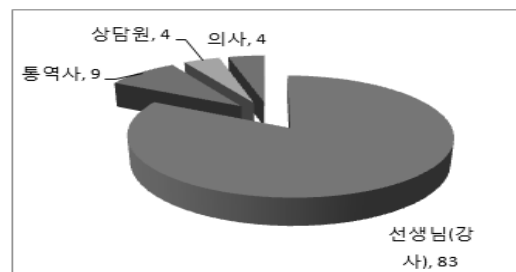


어머니의 직업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주부로 거의 절반 정도인 48%를 차지하는 것을 <표 15>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어머니의 직업은 아버지의 직업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업군의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에 속한다는 응답의 비율도 24%를 차지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직업을 항목 외에서 찾을 수 없어 ‘기타’라고 응답한 학생들 48명 중 23명이 보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직업에 대해서 응답하였고 그 결과가 <표 16>에 제시되었다. 기타에 속하는 어머니의 직업은 강사가 19명으로 제일 높은 비율(83%)을 차지하고 있었고, 통역사 2명, 상담원과 의사가 각 1명이었다.

<표 16, 그림 11> 어머니 기타 직업

직업	빈도	백분율(%)
선생님(강사)	19	83
통역사	2	9
상담원	1	4
의사	1	4
합계	23	100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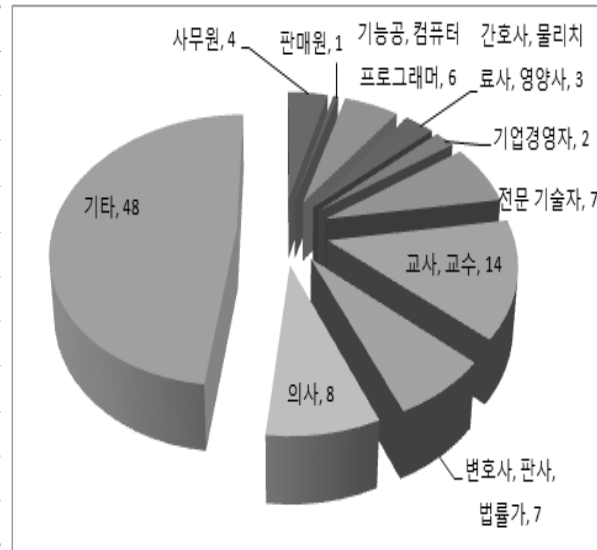


아동들에게 어른이 되어서 갖고자 하는 장래 직업에 대해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아동들의 절반 정도인 48%가 항목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기를 원하였다. ‘기타’를 제외한 직업에서 제일 높은 비율로 나타난 아동들이 원하는 장래의 직업은 교사나 교수로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의사로 8%를 차지하는 것을 결과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그 외 사무원부터 전문기술자나 변호사까지 아동들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표 17, 그림 12> 장래직업

직업	빈도	백분율(%)
사무원	8	4
판매원	1	1
컴퓨터 관련	11	6
간호사 외	6	3
기업경영자	4	2
전문 기술자	14	7
교사, 교수	27	14
변호사, 법률가	14	7
의사	16	8
기타	94	48
합계	195	100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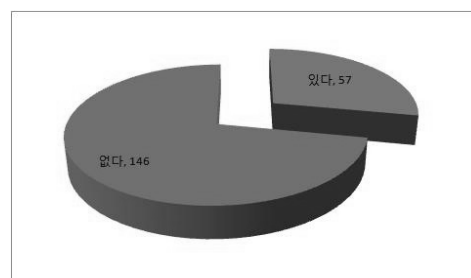
2. 차별경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지역사회에서나 학교에서 경험한 차별 정도와 차별에 대한 상담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당한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를 물어보았을 때, 전체 응답자의 28%만이 '있다'라고 대답하였고, 나머지 72%의 학생들은 '없다'고 대답하였다.

<표 18, 그림 13> 우리사회에서의 차별경험

응답내용	빈도	백분율(%)
있다	57	28
없다	146	72
합계	203	100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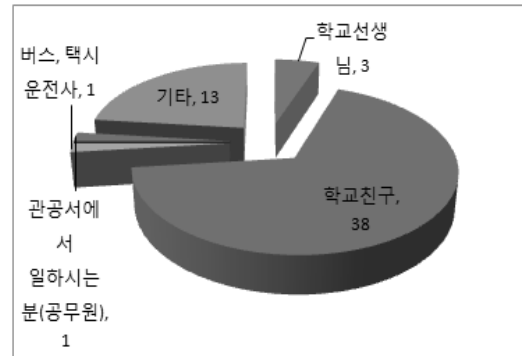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 57명만을 대상으로 차별대상을 조사하였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대상은 '학교친구'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38명인 68%가 이에 해당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선생님'으로 전체 학생 중 3명인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기사'와 '공무원'을 지적한 학생이 각 1명(2%)이고 나머지는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19, 그림 14> 차별받은 대상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

(단위:%)

응답내용	빈도	백분율(%)
학교선생님	3	5
학교친구	38	68
운전사	1	2
공무원	1	2
기타	13	23
합계	56	100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할 만한 원인에 대해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와 그 정도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본 조사에서 포함한 차별원인으로는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외모가 달라서,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리고 공부를 못해서였다. 피해경험의 결과와 유사하게 각 차별원인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경험을 당한 적이 없다는 학생들이 있다는 학생들보다 더 많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문항별로 그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차별을 많이 경험한 이유로는 엄마가 외국인이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36명(18%)이 이에 해당하였다. ‘정말 그렇다’는 학생이 7명(3%), ‘그렇다’는 학생이 29명(15%)를 차지하고 있었다. 166명인 82%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외모가 달라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는 학생들은 모두 20명(10%)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매우 그렇다’ 7명(3%), ‘그렇다’ 13명(7%) 이었다. ‘없다’는 학생들은 182명(90%)이었다.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그리고 공부를 못해서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문항의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그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차별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12명(6%),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6명(5%), 공부를 못해서 14명(7%)로 거의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25명(1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엄마가 외국인이라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36명(18%) 다음으로 ‘그렇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문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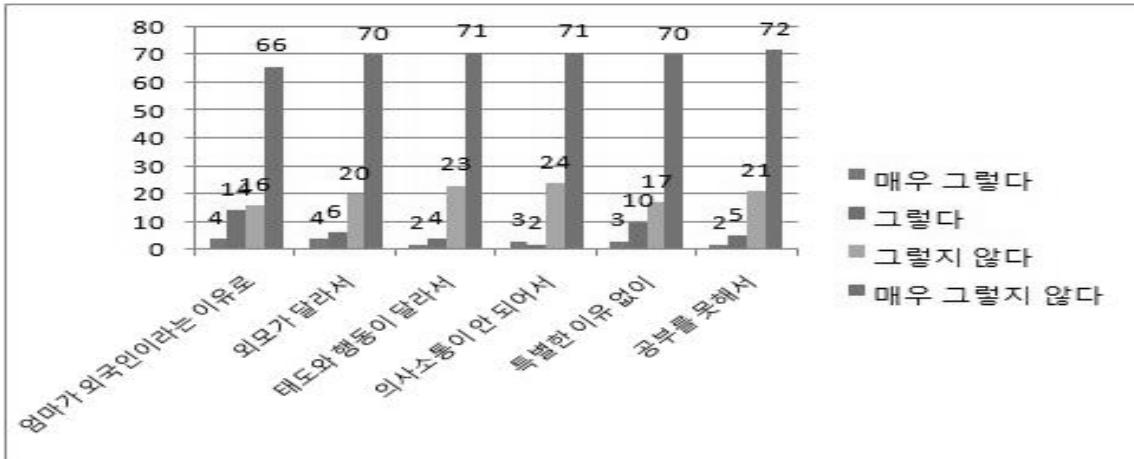
<표 20> 차별경험 원인에 따른 경험 빈도(백분율)

차별 경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133(66)	33(16)	29(15)	7(3)	202(100)
외모가 달라서	142(70)	40(20)	13(7)	7(3)	202(100)
태도, 행동이 달라서	144(71)	45(23)	8(4)	5(2)	202(100)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142(71)	49(24)	4(2)	6(3)	201(100)
특별한 이유 없이	141(70)	35(17)	19(10)	6(3)	201(100)
공부를 못해서	145(72)	42(21)	10(5)	4(2)	201(100)

<그림 15>차별경험 원인에 따른 경험 분포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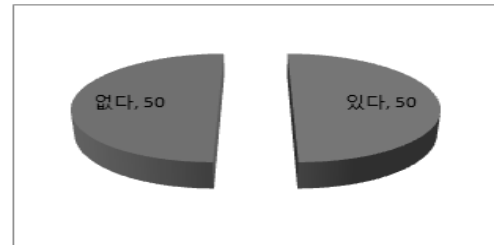


차별을 경험했을 때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과 상담한 적이 있는가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97명(49.7%)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절반 98명(50.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21, 그림 16> 차별에 대한 상담 유무

(단위: %)

응답내용	빈도	백분율(%)
있다	97	50
없다	98	50
합계	19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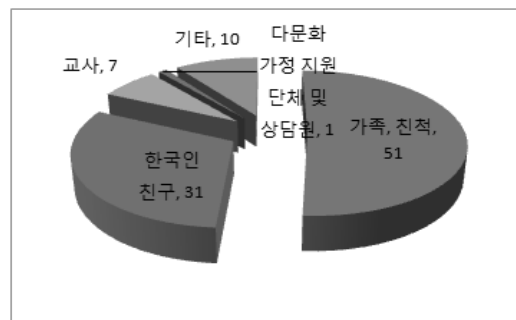


차별을 경험했을 때 상담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9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한 대상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학생들이 차별을 당했을 때, 가족이나 친척에게 어려움을 털어놓았다는 비율이 51%(50명)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친구로 31%(30명)를 차지하였다. 교사와 상담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7명(7%)였고, 다문화가정 지원 단체 및 상담원이 1명(1%)이었다. 나머지 9명(10%)은 항목에 들어있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22, 그림 17> 차별경험을 도와준 상담자

응답내용	빈도	백분율(%)
가족, 친척	50	51
친구	30	31
교사	7	7
상담원	1	1
기타	9	10
합계	97	100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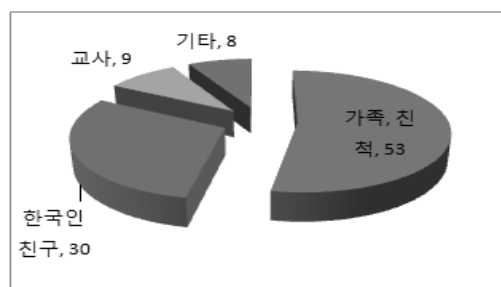


상담을 받았던 사람들 중 가장 문제해결에 도움을 많이 제공한 사람을 물었을 때, 역시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51명(53%)으로 제일 많았으며, 29명(30%)이 친구라고 대답하였다.

<표 23, 그림 18> 상담 시 가장 도움 된 사람

응답내용	빈도	백분율(%)
가족, 친척	51	53
친구	29	30
교사	9	9
기타	8	8
합계	97	100

(단위:%)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당한 폭력의 종류와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결과가 아래 <표 24>에 요약되어 제시되었다. 폭력의 종류로는 욕설이나 협박과 모욕,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 신체적 폭행 그리고 성추행 및 폭력에 대해 구체적 실태를 조사하였다. 학생들은 위와 같은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기 보다는 없다고 더 많이 대답하였으며, 경험을 했다고 하였지만 그 정도는 주로 가끔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보다 자세한 폭력내용과 정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욕설이나 협박, 모욕 등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6명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자주 있다'는 4명(2%), '매우 자주 있다'는 2명(1%)이었고 나머지 30명(15%)이 '가끔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의 82%는 피해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은 전체 학생의 17명(8%)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이 중에서 '가끔 있다'가 13명(6%), '자주 있다'가 3명(2%) 그리고 '매우 자주 있다'는 학생은 1명(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85명으로 전체의 92%가 이에 해당하였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욕설이나 헐박, 모욕 등을 당한 적이 있다는 문항 다음으로 피해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 179명인 전체 응답자의 88.5%가 따돌림을 당한 적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23명(12.5%)의 학생들이 폭력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이 중에서 '가끔' 당한 적이 있다 18명(9%), '자주' 당한다 3명(1.5%) 그리고 '매우 자주' 당한다 2명(1%)으로 나타났다. '없다'는 학생은 179명으로 전체의 88.5%를 차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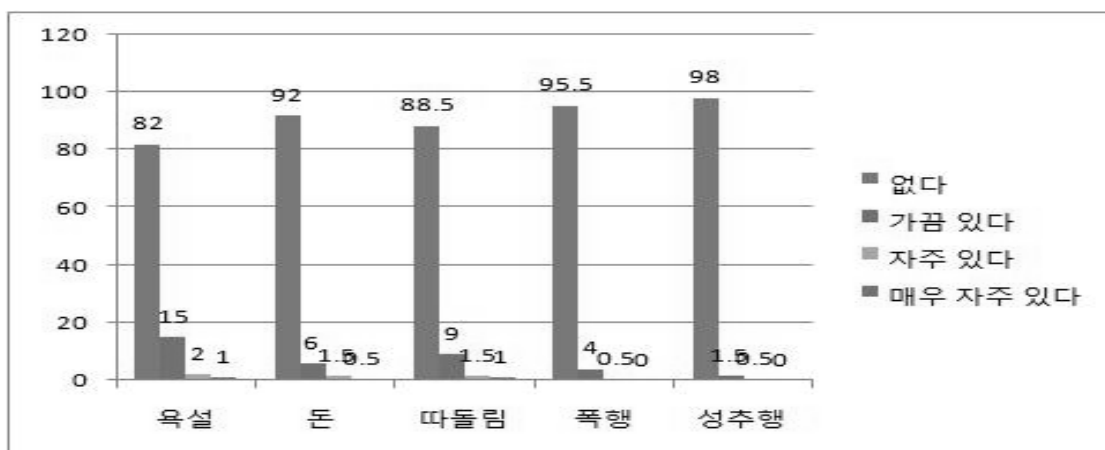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한 학생은 모두 9명으로 전체 학생의 4.5%에 해당하였다. '매우 자주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없었지만 '가끔' 당한다는 학생이 8명(4%) 그리고 '자주' 당한다는 학생이 1명(0.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을 당한 적이 '없다'는 학생은 192명으로 95.5%에 해당하였다.

성추행 및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학생은 모두 4명(2.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 3명(1.5%)는 '가끔 있다' 그리고 나머지 1명(0.5%)은 '자주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경험이 '없다'라고 대답한 학생은 198명으로 98%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24> 학생들의 폭력 경험에 대한 빈도(백분율)

피해내용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매우 자주 있다	N (%)
욕설	167(82)	30(15)	4(2)	2(1)	203(100)
돈	185(92)	13(6)	3(1.5)	1(0.5)	202(100)
따돌림	179(88.5)	18(9)	3(1.5)	2(1)	202(100)
폭행	192(95.5)	8(4)	1(0.5)	0(0)	201(100)
성추행	198(98)	3(1.5)	1(0.5)	0(0)	202(100)

<그림 19> 학생들의 폭력 경험에 대한 분포도 (단위:%)



3. 타문화 수용정도 및 국민 정체성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갖고 있는 타문화에 대한 수용정도와 국민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타문화에 대한 수용정도는 민족의 우열보다는 차이에 대한 의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그렇다고 응답할 경우 타문화에 대한 수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타문화에 대한 수용정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학생들의 타문화 수용정도를 각 문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세계 민족을 우열정도를 나눌 수 없다는 문항에 대해서 학생들의 절반인 99명(50%)은 ‘그렇다’ 그리고 나머지 98명(50%)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다른 문항들과 비교하여 민족의 우열 정도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이 제일 많은 41명(21%)으로 나타나 타문화수용 정도가 가장 낮은 문항임을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여러 민족의 우열을 정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57명(29%)이었다.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들의 문화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 181명(89%)의 학생들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매우 그렇다’에 84명(41%) 그리고 ‘그렇다’에 97명(48%)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2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1%를 차지하고 있었다. 타 문화에 대한 존중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다른 문항들과 비교하여 제일 높은 수용정도를 보여주었다.

못사는 나라의 문화가 잘사는 나라의 문화보다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화의 동등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학생들은 ‘그렇다’에 162명(80%), ‘그렇지 않다’에 28명(20%)으로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는 응답을 한 162명은 ‘매우 그렇다’에 51명(25%)과 ‘그렇다’에 111명(55%)으로 구분될 수 있다.

타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존중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학생들 137명(69%)은 존중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28명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하였으며,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09명으로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버릴 점보다 취할 점이 많다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61명(31%)이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활방식에는 우리사회에 적합한 것도 많이 있다라는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172명으로 응답자의 85%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조사결과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29명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에 20명(10%), ‘전혀 그렇지 않다’에 9명(5%)이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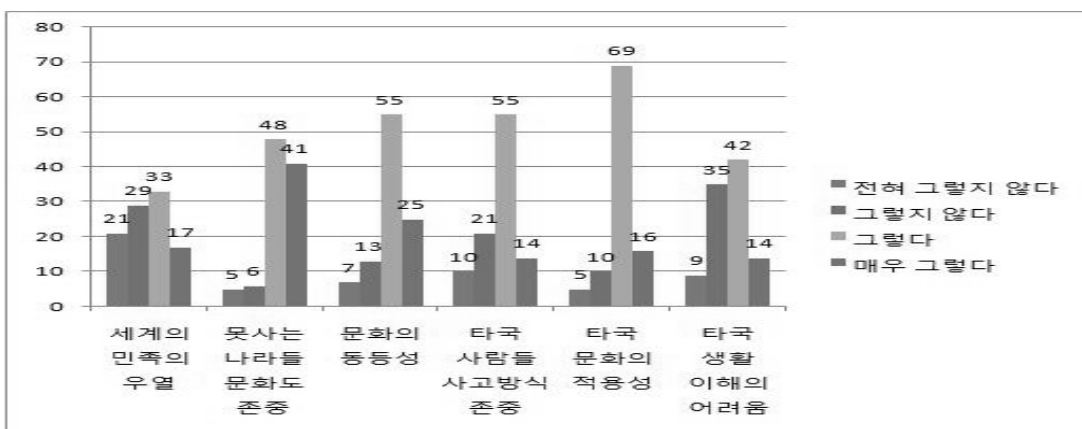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편이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의 56%인 112명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44%인 88명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민족의 우열을 가릴 수 있다는 문항 다음으로 학생들의 수용

도가 낮은 문항인 것을 <표 25>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29명(14%)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서 그 인원이 적게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학생들이 70명(35%)으로 타 문항에 비해서 더 많았다.

<표 25> 타문화 수용정도에 대한 빈도(백분율)

타문화 수용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세계의 민족의 우열	41(21)	57(29)	66(33)	33(17)	197(100)
못사는 나라들 문화도 존중	10(5)	12(6)	97(48)	84(41)	203(100)
문화의 동등성	13(7)	25(13)	111(55)	51(25)	200(100)
타국 사람들 사고방식 존중	19(10)	42(21)	109(55)	28(14)	198(100)
타국 문화의 적용성	9(5)	20(10)	139(69)	33(16)	201(100)
타국 생활 이해의 어려움	18(9)	70(35)	83(42)	29(14)	200(100)

<그림 20> 타문화 수용정도에 대한 백분율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갖고 있는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국민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과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었고,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보다 자세하게 문항별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정체성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이 정체성에 대한 기준으로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18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96%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9명(4%)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 1명(0.5%), ‘중요하지 않다’에 7명(3%)가 응답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이 정체성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서 학생들 195명(98%)가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였고, 이 중에서 113명(57%)은 ‘정말 중

요하다' 그리고 82명(41%)은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2%에 불과한 4명이었다.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164명(85%)의 응답자가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25명(15%)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서는 제일 중요도가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으로 나타났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 5명(3%), '중요하지 않다'에 22명(12%)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제사, 전통의상, 전통의례 및 음식 등을 포함하여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93%에 해당하는 184명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3명(7%)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89명(45%)으로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응답한 79명(41%)에 이어 다음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기준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표 26>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학생들의 98%인 195명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의 정체성에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정말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25명(63%)으로 '정말 중요하다'가 높게 나타난 다른 문항인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111명(56%), 혹은 한국 국적을 갖는 것 110명(55%)보다 더 높았다.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이 정체성으로서의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18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2명(6%)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대답하였는데, 이 중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 1명(0.5%), '중요하지 않다'에 11명(5.5%)이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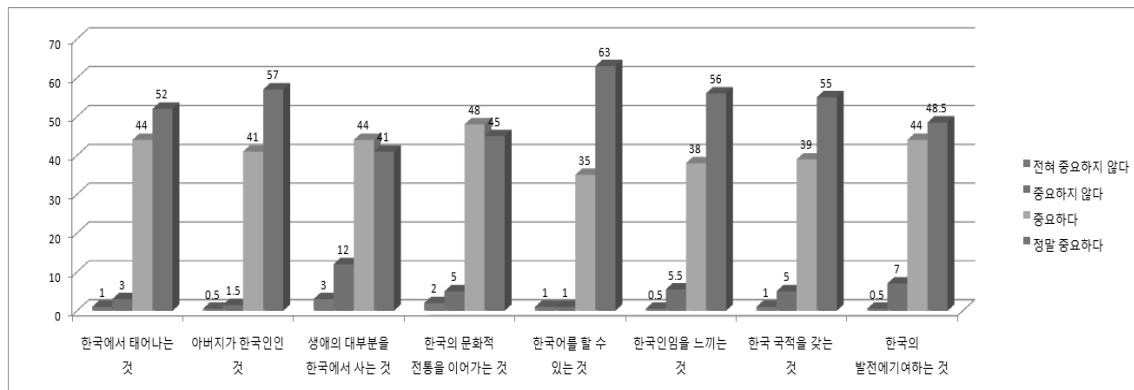
한국 국적을 갖는 것이 정체성 형성에 중요하다는 응답은 188명(94%)이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였고, 11명(6%)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한국 국적을 갖는 것과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에 대한 정체성 형성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 학생들은 매우 비슷한 응답 경향을 보였다.

한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정체성 형성의 기준을 평가한 학생들의 응답은 '중요하다'에 181명(92.5%),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에 14명(7.5%)으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중요도 빈도(백분율)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N(%)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2(1)	7(3)	87(44)	102(52)	198(100)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	1(0.5)	3(1.5)	82(41)	113(57)	199(100)
생애의 대부분 한국 거주	5(3)	22(12)	85(44)	79(41)	191(100)
한국의 문화적 전통 계승	3(2)	10(5)	95(48)	89(45)	197(100)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1(1)	2(1)	70(35)	125(63)	198(100)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1(0.5)	11(5.5)	76(38)	111(56)	199(100)
한국 국적을 갖는 것	1(1)	10(5)	78(39)	110(55)	199(100)
한국 발전에 기여하는 것	1(0.5)	13(7)	86(44)	95(48.5)	195(100)

<그림 21>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중요도 분포율



4. 학교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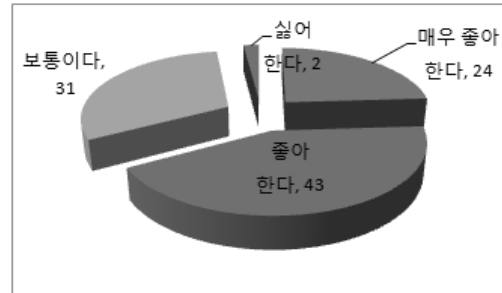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은 적응과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학교생활 적응은 성적,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와 학교생활의 적응과 좋아하는 정도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학교생활에 대한 어려움은 도난이나 교우들과의 갈등을 겪은 경험과 어려움을 겪는 영역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또한 이주여성 어머니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정도를 어머니의 숙제 도움 정도, 학교행사 참석 그리고 학교선생님과의 연락 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서 우선 학교생활을 좋아하는 정도에 대해 물어보았고 그 결과가 아래 <표 27>에 제시되었다. 학생들 49명(24%)은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89명(43%)이 '좋아한다'고 응답하여 학교생활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린 학생들은 전체 응답자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을 '싫어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만을 차지하고 있었다.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63명으로 응답자의 31%에 해당하는 비율이었다.

<표 27, 그림 22> 학교생활을 좋아하는 정도

응답내용	빈도	백분율(%)
매우 좋아 한다	49	24
좋아 한다	89	43
보통이다	63	31
싫어 한다	4	2
합계	205	1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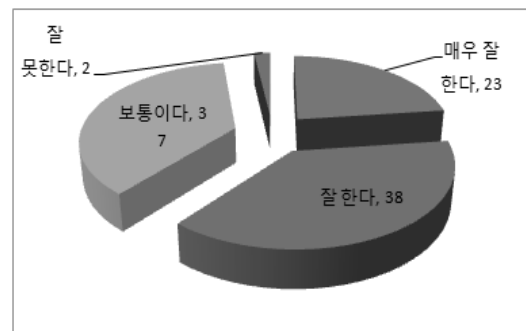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질문하였을 때, 126명(61%)의 아동들이 '잘 한다'고 응답하였다. 본인의 학교생활을 '매우 잘 한다'고 평가한 학생은 48명(23%), '잘 한다'라고 한 학생은 78명(38%)이었다. 학교생활 적응을 '잘 못한다'라고 응답한 아동은 3명으로 전체의 2%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적응을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7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7%에 해당하였다.

<표 28, 그림 23> 학교생활 적응

응답내용	빈도	백분율(%)
매우 잘 한다	48	23
잘 한다	78	38
보통이다	77	37
잘 못한다	3	2
합계	206	1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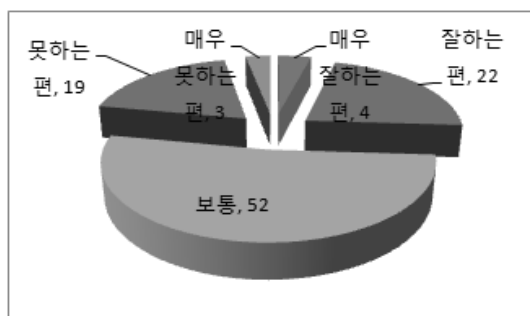


학교성적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절반 이상인 52%에 해당하는 아동들 107명이 본인의 성적을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53명(26%)이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 중에서 '매우 잘하는 편'에는 8명(4%)이 차지하고 있었다. 46(22%)명이 '못하는 편'이라고 대답하였다. '매우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를 차지하였고,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40명(19%)이었다.

<표 29, 그림 24> 아동들이 응답한 학교성적

(단위:%)

응답내용	빈도	백분율(%)
매우 잘하는 편	8	4
잘하는 편	45	22
보통	107	52
못하는 편	40	19
매우 못하는 편	6	3
합계	20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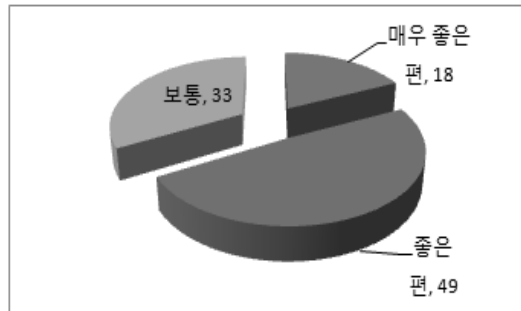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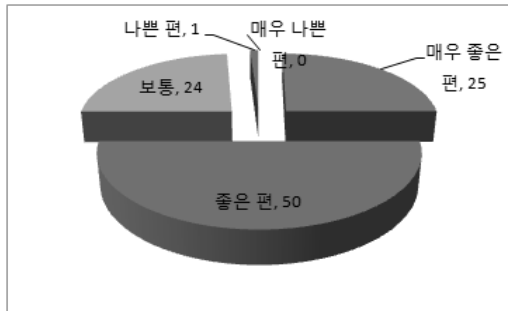
학교 친구들과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다. 조사 결과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보다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교사들과의 관계를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아동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학생들의 153명(74.5%)이 '좋은 편'이라는 긍정적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매우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51명(24.5%), '좋은 편'이라는 응답에는 102명(50%)이 해당하였다. '나쁜 편'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은 '나쁜 편'에 2명(1%)과 '매우 나쁜 편'에 1명(0.5%)이었다.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학생들은 '좋은 편'에 101명(49%), '보통' 67명(33%), 그리고 '매우 좋은 편' 37명(1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사들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학생은 한명도 없었으며 응답자 3분의 2에 해당하는 138명(67%)가 좋은 편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표 30>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 빈도와 백분율

응답내용	친구관계		교사관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좋은 편	51	24.5	37	18
좋은 편	102	50	101	49
보통	50	24	67	33
나쁜 편	2	1	0	0
매우 나쁜 편	1	0.5	0	0
합계	206	100	205	100

<그림 25>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분포도 (단위:%) <그림 26>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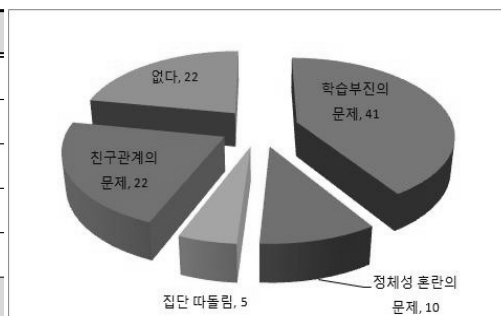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학습부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학생들이 72명(41%)으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8명(5%)으로 가장 적었다. 학습부진 다음으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은 친구관계에 37명(22%), 정체성 혼란 문제 17명(10%)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없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도 22%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31, 그림 27>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단위:%)

응답내용	빈도	백분율(%)
학습부진 문제	72	41
정체성 혼란 문제	17	10
집단 따돌림	8	5
친구관계 문제	37	22
없다	38	22
합계	172	100



학교생활을 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소지품을 도난당하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혹은 폭력을 사용해서 싸운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조사 결과, 학생들은 이에 해당하는 일들을 대부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에서 소지품을 도난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모두 55명(27%)이었고, 이 중에서 '3번 이상'이 5명(2%), '1~2번'이 50명(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147명(73%)이었고, 소지품 도난이 다른 피해경험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경험한 사건이었다.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나를 위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15%를 차지하는 31명이었고, 이 중에서 '3번 이상'은 7명(3%), '1~2번'이 24명(12%)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른 학생들로부터 위협당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171명을 전체 학생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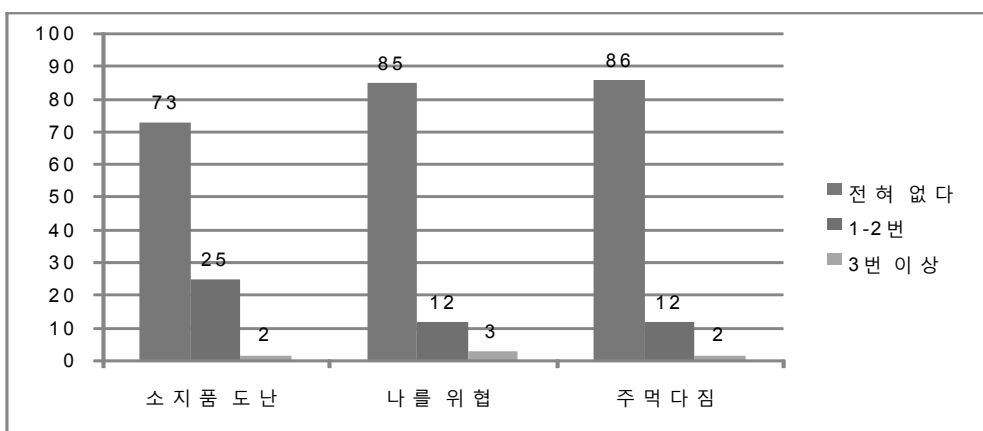
학교에서 다른 학생과 주먹다짐을 했는가를 물어보았을 때, 173명(86%)은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24명(12%)가 '1~2번'이 있었다고 그리고 5명(2%)이 '3번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32> 학교생활에서 겪었던 어려운 일들: 빈도(백분율)

학교에서 있었던 일	전혀 없다	1~2번	3번 이상	N (%)
소지품을 훔쳐갔다	147(73)	50(25)	5(2)	202(100)
나를 위협했다	171(85)	24(12)	7(3)	202(100)
주먹다짐을 했다	173(86)	24(12)	5(2)	202(100)

<그림 28> 학교생활에서 겪었던 어려운 일들: 빈도(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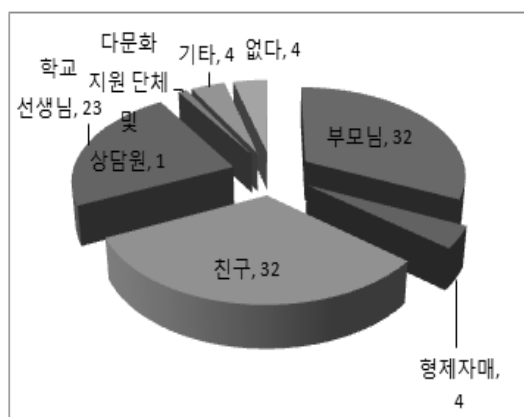


학교생활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가 <표 33>에 제시되어 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지적한 대상은 부모와 친구가 각 66명(32%)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선생님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46명(23%), 형제자매 9명(4%), 그리고 다문화 지원 단체 상담원 1명(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기타'라고 응답하거나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각 8명(4%)이었다.

<표 33, 그림 29> 학교생활에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들

(단위:%)

도움 제공자	빈도	백분율(%)
부모님	66	32
형제자매	9	4
친구	66	32
학교 선생님	46	23
상담원	1	1
기타	8	4
없다	8	4
합계	20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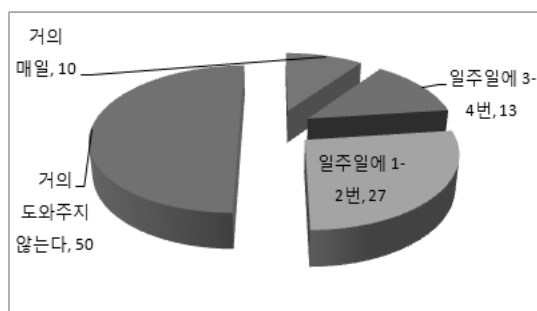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이주여성 어머니들의 학교 참여 정도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주여성 어머니들의 학교 참여 정도는 어머니가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거나, 학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선생님과 연락정도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숙제를 어느 정도 도와주는지 질문하였을 때, '거의 도와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인 50%(103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준다고 응답한 자녀들 역시 50%(103명)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자녀가 21명(10%), '일주일에 3~4번'이라는 자녀가 27명(13%), '일주일에 1~2번'이라는 자녀는 55명(27)으로 나타났다.

<표 34, 그림 30> 어머니의 숙제 도와주는 빈도

(단위:%)

응답내용	빈도	백분율(%)
거의 매일	21	10
일주일에 3-4번	27	13
일주일에 1-2번	55	27
거의 없다	103	50
합계	20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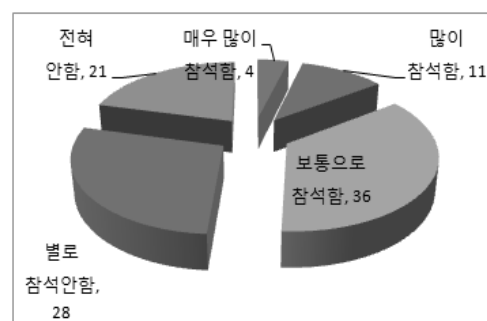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 정도를 살펴본 결과, 자녀들은 어머니들이 참석하기 보다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매우 많이 참석한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8명(4%)이었으나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는 학생은 42명(21%)를 차지하였다. 가장 높은 비율은 '보통으로 참석한다'는 응답이었고, 자녀들의 74명(36%)가 이에 해당하였다.

<표 35, 그림 31> 어머니의 학교 행사 참석 정도

(단위:%)

응답내용	빈도	백분율(%)
매우 많이 참석함	8	4
많이 참석함	23	11
보통으로 참석함	74	36
별로 참석안함	58	28
전혀 안함	42	21
합계	20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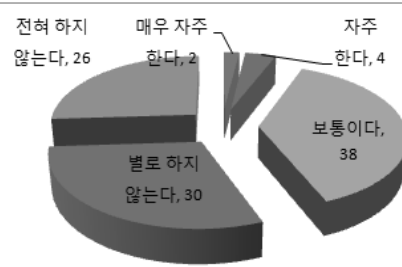
어머니와 선생님과 본인의 일로 서로 연락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자녀들은 어머니들이 선생님들과는 별로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선생님과 어머니의 연락 정도는 학교행사 참여보다 더 그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서 '전혀 하지

않는다'에 49명(26%)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여 '매우 자주 한다'는 단지 4명(2%)에 불과하였고, '보통이다'에 가장 많은 학생인 72명(38%)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별로 하지 않는다'와 '전혀 하지 않는다'의 비율을 합치면 전체의 56%(106명)를 차지하는 비율로 '매우 자주 한다'와 '자주 한다'를 합친 6%(12명)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표 36, 그림 32> 어머니께서 선생님과 자녀에 대한 연락

(단위:%)

응답내용	빈도	백분율(%)
매우 자주 한다	4	2
자주 한다	8	4
보통이다	72	38
별로 하지 않는다	57	30
전혀 하지 않는다	49	26
합계	190	100



5. 언어발달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1) 자녀의 언어발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발달에 학교생활적응 다음으로 가장 많은 관심이 주어지는 발달영역은 언어영역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발달과 관련하여 한국어와 어머니 나라의 언어 실력정도를 말하기, 듣기,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리고 또래와 비교한 한국어 능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학생들에게 본인의 한국어 실력을 각 영역별로 '매우 잘 한다'에서 '매우 못 한다'까지 평가하라고 요구하였고 그 조사 결과가 <표 37>에 요약되어 있다. 학생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영역은 듣기 영역으로 104명(52%)의 학생들이 스스로 '매우 잘한다'고 평가하였다. 잘한다는 응답도 59명(29.5%)으로 나타나 잘한다는 학생들의 비율은 전체의 8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듣기 다음으로 학생들이 잘한다고 평가한 영역은 말하기이다. 본인의 말하기 실력을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57명(78.5%)이었는데 '매우 잘 한다'에 95명(47.5%), '잘 한다'에 62명(31%)이 속해 있었다. '매우 못 한다'고 평가한 학생은 하나도 없었으며 '못 한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단지 3명(1.5%)이었다. 나머지 40명(20%)은 본인의 말하기 실력을 '보통이다'라고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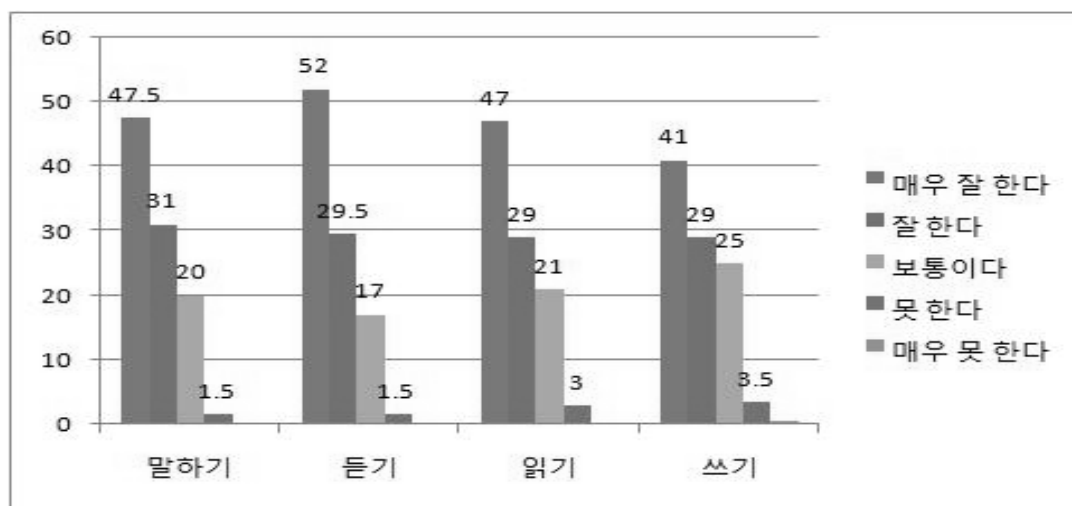
읽기에 대한 실력은 말하기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표 37>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읽기를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 수가 말하기보다 조금 적었고 못한다거나 보통이라고 평가한 학생이 조금 많았다.

학생들은 말하기, 듣기, 읽기보다 쓰기를 제일 어려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본인의 쓰기 실력을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8명(4%)으로 '못 한다'에 7명(3.5%), '매우 못 한다'에 1명(0.5%)이 속해 있었다.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42명(70%)으로 '매우 잘 한다'에 83명(41%), '잘 한다'에 59명(29%)이 포함되어 있었다. '매우 잘 한다'는 비율이 적어진 반면 '보통이다'를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영역보다 더 높았다.

<표 37> 한국어 실력 정도(백분율)

언어실력	매우 잘 한다	잘 한다	보통이다	못 한다	매우 못 한다	N (%)
말하기	95(47.5)	62(31)	40(20)	3(1.5)	0(0)	200(100)
듣기	104(52)	59(29.5)	35(17)	3(1.5)	0(0)	201(100)
읽기	94(47)	59(29)	43(21)	5(3)	0(0)	201(100)
쓰기	83(41)	59(29)	51(25)	7(3.5)	1(0.5)	201(100)

<그림 33> 한국어 실력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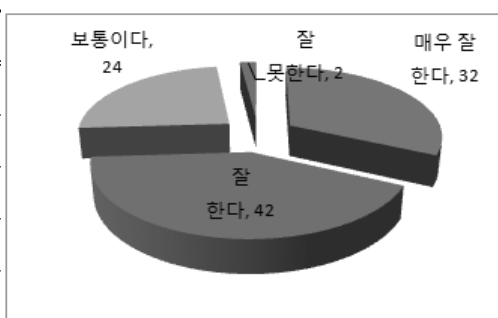


본인의 한국어 실력을 또래와 비교하였을 때,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152명(74%)이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잘 못 한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4명(2%) 뿐이었고, 나머지 48명(24%)이 '보통이다'라고 평가하였다.

<표 38, 그림 34> 또래와 비교한 아동의 한국어 능력

(단위:%)

응답내용	빈도	백분율(%)
매우 잘 한다	66	32
잘 한다	86	42
보통이다	48	24
잘 못한다	4	2
합계	204	100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어머니 나라의 언어실력에 대해서도 질문하였고, 그 결과가 <표 39>에 제시되어 있다. 자녀들은 어머니 나라 언어 실력을 한국어 실력보다 더 못한다고 평가하였는데, <표 39>와 <표 41>의 결과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다.

자녀들은 어머니 나라 언어 영역 중에서도 듣기를 가장 잘한다고 평가하였다. 96명(47%)의 학생들이 어머니 나라 말을 잘 듣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는데 ‘매우 잘 한다’에 47명(23%)이, ‘잘 한다’에 49명(24%)이 포함되어 있었고 말하기, 읽기, 쓰기와 비교하여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제일 높았고, 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제일 낮았다.

어머니 나라 말에서도 듣기에 이어 말하기가 그 다음 잘하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7명(28%)으로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 85명(44%)보다는 적었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59명(30%)이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어머니 나라 말을 읽는 능력은 잘하는 편에 속하는 학생이 76명(38%)이고,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75명(37%)으로 나타나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하는 편과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매우 잘 한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38명(19%)으로 ‘매우 못 한다’라고 응답한 학생 31명(15%)보다는 더 적어서 질적으로는 조금 차이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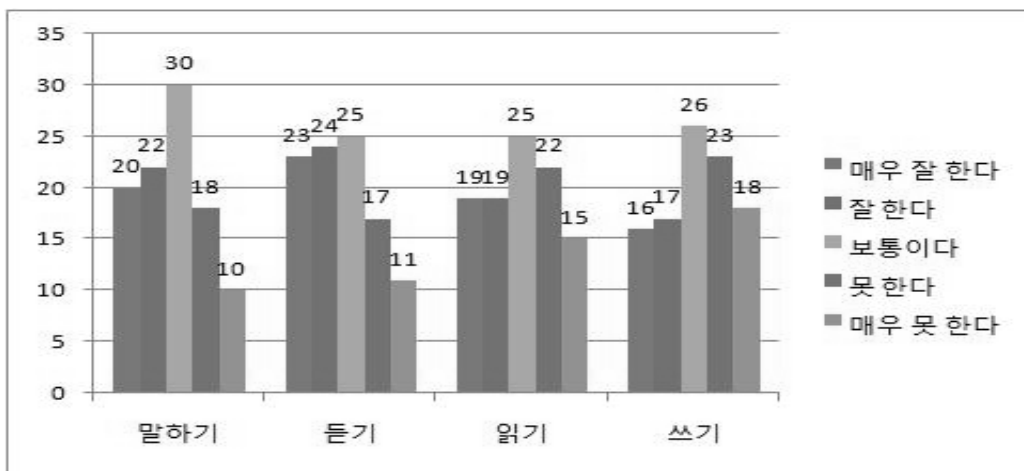
어머니 나라 말을 쓰는 능력은 듣기, 말하기, 읽기보다 자녀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다른 영역의 경우에는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보다 더 높거나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쓰기에서는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 67명(33%)이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 82명(41%)보다 적었다.

<표 39> 어머니 나라말 실력 정도(백분율)

언어실력	매우 잘 한다	잘 한다	보통이다	못 한다	매우 못 한다	N (%)
말하기	41(20)	44(22)	59(30)	36(18)	21(10)	201(100)
듣기	47(23)	49(24)	50(25)	33(17)	22(11)	201(100)
읽기	38(19)	38(19)	50(25)	44(22)	31(15)	201(100)
쓰기	32(16)	35(17)	52(26)	46(23)	36(18)	201(100)

<그림 35> 어머니 나라말 실력 분포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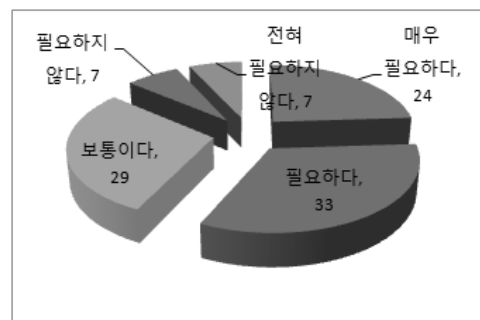


어머니 나라의 말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응답은 절반 이상인 115명(57%)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중에서도 48명(24%)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고, 67명(33%)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30명(14%)으로 이 중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와 ‘필요하지 않다’가 각 15명(7%)으로 나타났다.

<표 40, 그림 36> 어머니 나라말 학습 필요성

응답내용	빈도	백분율(%)
매우 필요하다	48	24
필요하다	67	33
보통이다	58	29
필요하지 않다	15	7
전혀 필요하지 않다	15	7
합계	203	100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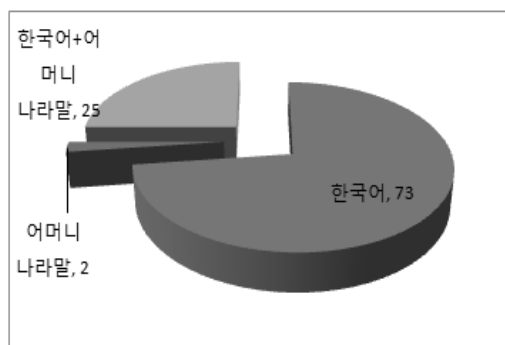


이주여성 어머니와 얘기할 때 자녀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인 149명(73%)이 한국어를 이용하여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와 어머니 나라말을 함께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50명(25%)이었고, 어머니 나라말을 사용한다고 대답한 학생은 단지 3명으로 전체의 2%만 차지하고 있었다.

<표 41, 그림 37> 어머니와 대화 시 사용 언어

(단위:%)

응답내용	빈도	백분율(%)
한국어	149	73
어머니 나라말	3	2
한국어+ 어머니 나라말	50	25
합계	203	100



(2)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다문화가정 자녀가 생각하고 있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의사소통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의사소통 만족도와 대화 정도 그리고 의사소통의 질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자녀들이 어머니와의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만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145명(71%)이었고 불만족하다는 응답자는 17명(8%)였다. 나머지 학생들 43명(21%)은 '보통'이라고 평가하였다. 다른 문항과 비교하여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낮은 것을 <표 42>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만족도에 대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 147명(73%)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자녀는 11명(5%)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자녀는 4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2%를 차지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학생들 154명(7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다른 문항에서 나타난 만족도보다 높았다.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3명(6%)이었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38명(19%)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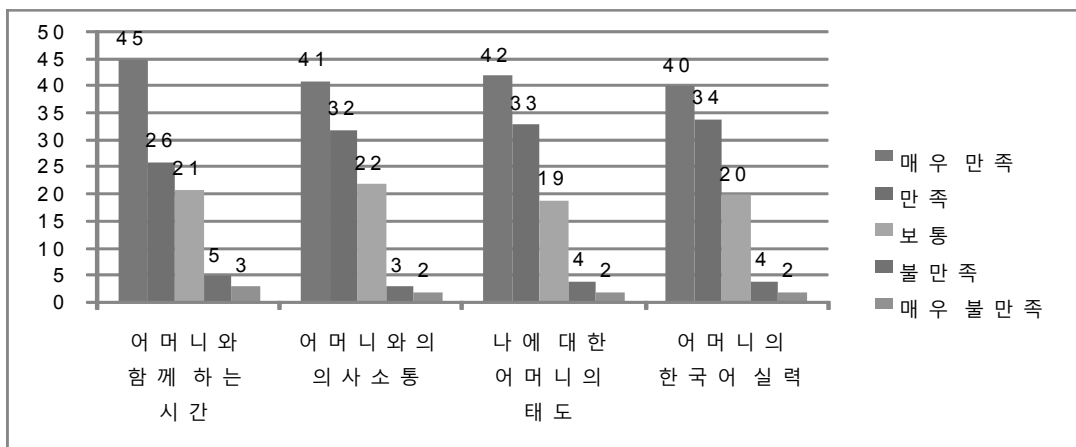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에 대해서 자녀들의 4분의 3정도인 151명(74%)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자녀는 40명(20%),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자녀는 14명(6%)으로 나타났다.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들 중에서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82명(40%)으로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만족도가 조금 낮았고, '만족'한다는 학생의 수는 69명(34%)으로 다른 영역보다 조금 높았다.

<표 42>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 빈도(백분율)

문항내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N(%)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	91(45)	54(26)	43(21)	10(5)	7(3)	205(100)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83(41)	64(32)	45(22)	7(3)	4(2)	203(100)
나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87(42)	67(33)	38(19)	8(4)	5(2)	205(100)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	82(40)	69(34)	40(20)	9(4)	5(2)	205(100)

<그림 38>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 분포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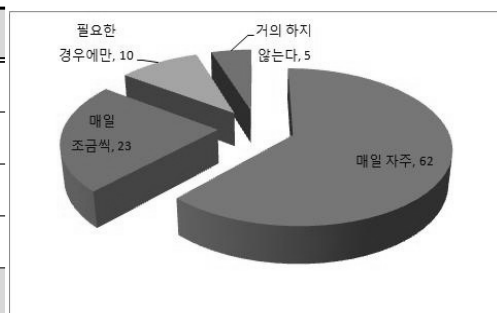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정도는 어머니와 얼마나 자주 얘기하는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학생들은 어머니와 의사소통을 비교적 많이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매일 자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12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1%를 차지하였다. ‘매일 조금씩’이라는 응답자는 48명(23%), ‘필요한 경우에만’에 21명(10%), ‘거의 하지 않는다’는 10명(5%)의 순으로 대화빈도가 나타났다.

<표 43, 그림 39> 어머니와의 대화 정도

(단위: %)

응답내용	빈도	백분율(%)
매일 자주	126	62
매일 조금씩	48	23
필요한 경우에만	21	10
거의 하지 않는다	10	5
합계	20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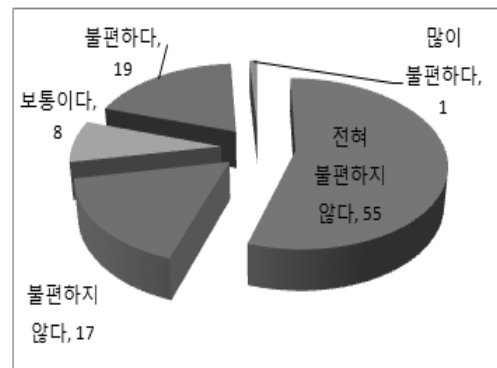
어머니와 대화할 때 불편한 정도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그 응답은 <표 44>에 제시

된 바와 같다. 대다수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전체 응답자의 55%에 해당하는 113명의 학생들이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전혀 불편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였고, 34명(17%)의 학생들도 '불편하지 않다'고 대답하여 전체에서 72%의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43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많이 불편하다'에 3명(1%) 그리고 '불편하다'에 40명(19%)이 포함되어 있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자녀들은 16명(8%)으로 나타났다.

<표 44, 그림 40> 어머니와 대화 시 불편한 정도

(단위:%)

응답내용	빈도	백분율(%)
전혀 불편하지 않다	113	55
불편하지 않다	34	17
보통이다	16	8
불편하다	40	19
많이 불편하다	3	1
합계	20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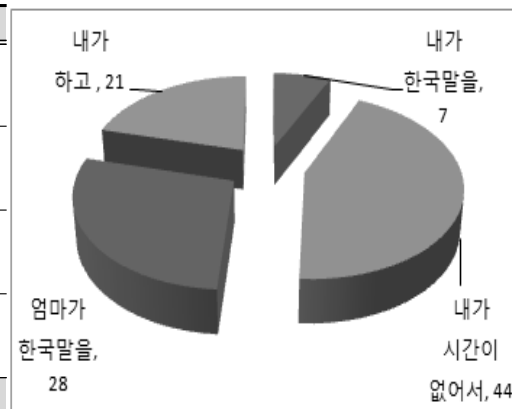


어머니와의 대화가 불편하다고 응답한 학생들 43명을 대상으로 불편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율을 차지하는 이유로는 학생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으로 19명(44%)이 이에 해당하였다. '엄마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가 12명(28%),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가 9명(21%), 그리고 '내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가 3명(7%)으로 나타났다.

<표 45, 그림 41> 불편이유

(단위:%)

응답내용	빈도	백분율(%)
내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	3	7
내가 시간이 없어서	19	44
엄마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	12	28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9	21
합계	4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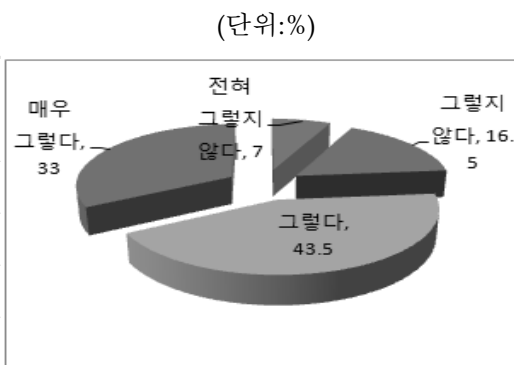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결혼 이주여성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아래 12문항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질문내용에 따라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라는 응답이 긍정적인일 수도 있으나 부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자녀들은 어머니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었으며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히 각 문항별로 학생들의 응답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자녀들에게 어머니와 자신의 소신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 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그런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53명(76.5%)이었다. 이 중에서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66명(33%)이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87명(43.5%)이었다.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나머지 47명(23.5%)은 ‘전혀 그렇지 않다’ 14명(7%) 그리고 ‘그렇지 않다’ 33명(16.5%)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 46, 그림 42> 소신대로 얘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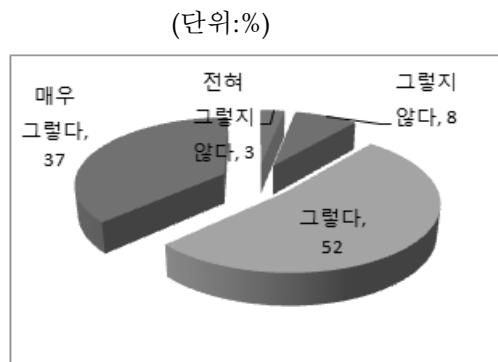
응답내용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4	7
그렇지 않다	33	16.5
그렇다	87	43.5
매우 그렇다	66	33
합계	200	100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신다고 응답한 자녀들은 모두 179명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자녀들은 23명(11%)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6명(3%), ‘그렇지 않다’에 17명(8%)이 포함되었다. 어머니가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신다는 문항은 긍정적인 반응이 매우 높게 나타난 문항 중 하나이다.

<표 47, 그림 43> 귀담아 들어주심

응답내용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6	3
그렇지 않다	17	8
그렇다	104	52
매우 그렇다	75	37
합계	20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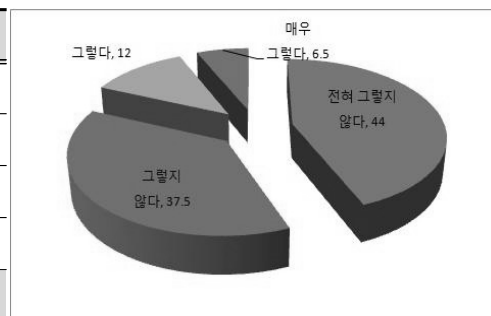


자녀들이 원하는 말을 어머니께 부탁드리면 겁이 난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82.5%를 차지하는 165명이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이 90명(45%),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75명(37)이었다. 원하는 바를 어머니께 부탁드리는 것이 겁이 난다고 응답한 자녀들은 35명(18%)으로 '그렇다'에 24명(12%), '매우 그렇다'에 11명(6%)이 포함되어 있었다.

<표 48, 그림 44> 원하는 바를 부탁하는 것이 겁이 남

(단위:%)

응답내용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90	45
그렇지 않다	75	37
그렇다	24	12
매우 그렇다	11	6
합계	2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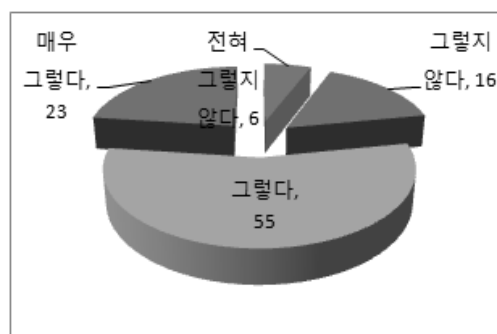


어머니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감정이 어떤지 잘 아신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자녀들 158명(78%)이 그런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다'에 47명(23%), '그렇다'에 111명(55%)이 그런 편이라고 응답한 자녀들이었다.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자녀는 44명(22%)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1명(6%), '그렇지 않다'에 33명(16%)으로 나뉘어 있다.

<표 49, 그림 45> 감정을 잘 아심

(단위:%)

응답내용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1	6
그렇지 않다	33	16
그렇다	111	55
매우 그렇다	47	23
합계	20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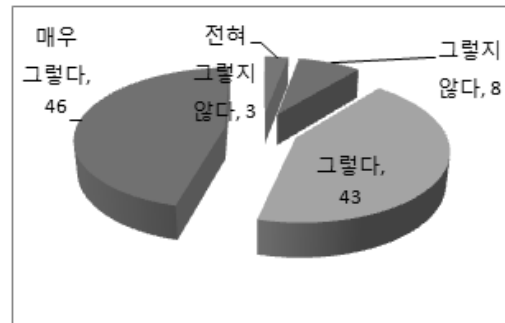


'어머니와의 대화에 만족스럽다'라는 자녀들은 매우 높은 만족률을 보였는데 181명(89%)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자녀들이 93명(46%)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88명(43%)보다 더 많았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명(11%)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7명(3%), '그렇지 않다'에 15명(8%)을 포함하고 있었다.

<표 50, 그림 46> 어머니와의 대화 만족

응답내용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7	3
그렇지 않다	15	8
그렇다	88	43
매우 그렇다	93	46
합계	203	100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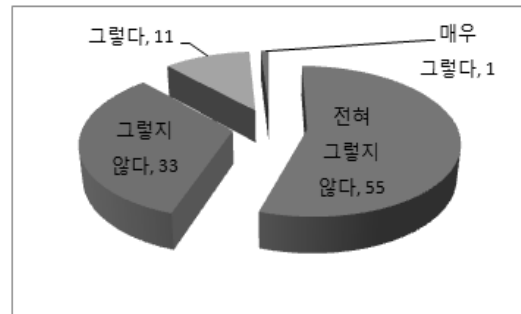


어머니께 말씀드리려면 조심스럽고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를 차지하는 180명이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자녀들은 112명(55)으로 절반 이상이 어머니와의 대화를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어머니와의 대화가 어렵고 조심스럽다고 응답한 자녀들은 24명(12%)으로 ‘매우 그렇다’에는 2명(1%)만이 포함되었고, 나머지 22명(11%)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그림 47>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고 어려움

응답내용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12	55
그렇지 않다	68	33
그렇다	22	11
매우 그렇다	2	1
합계	204	100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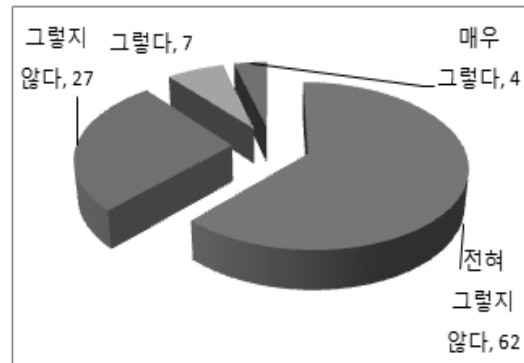


어머니와 대화를 나눌 때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라는 부정적 문항에 그런 편이라고 응답한 자녀는 2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80명인 89%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어머니와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라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25명(62%)으로 다른 문항들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문항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2, 그림 48> 말을 안 하는 것이 마음 편함

응답내용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25	62
그렇지 않다	55	27
그렇다	14	7
매우 그렇다	8	4
합계	202	100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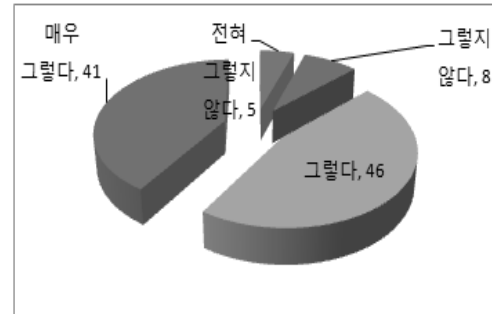


자녀의 질문에 어머니가 솔직하게 답해 준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177명(87%)으로 이 중에서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83명(41%),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94(46%)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솔직하게 답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자녀는 27명(13%)이었으며, 이 중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는 11명(5%), '그렇지 않다'에는 16명(8%)인 것을 분석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표 53, 그림 49> 어머니가 솔직하게 답해 줌

응답내용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1	5
그렇지 않다	16	8
그렇다	94	46
매우 그렇다	83	41
합계	20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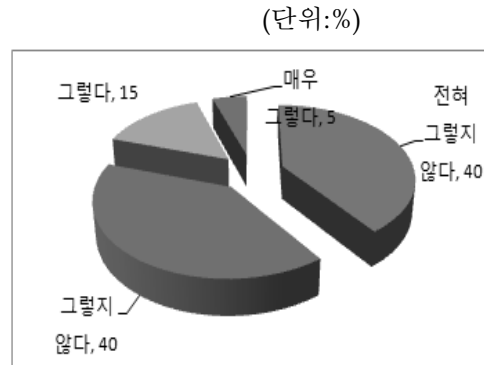
(단위:%)



'어머니와 의논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라는 문항에 그런 편이라고 응답한 자녀들은 42명(20%)이었다.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에는 11명(5%) 그리고 '그렇다'라는 응답에는 31명(15%)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의논할 수 없는 비밀이 없는 편이라고 응답한 자녀들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두 160명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자녀들은 각 80명(40%)으로 같게 나타났다.

<표 54, 그림 50> 의논할 수 없는 비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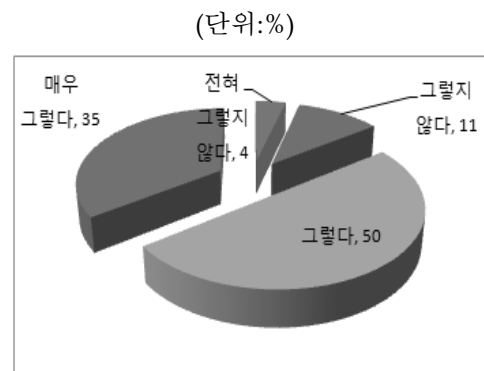
응답내용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80	40
그렇지 않다	80	40
그렇다	31	15
매우 그렇다	11	5
합계	202	100



어머니가 자녀의 의견을 이해해 주려고 애쓰는가에 대해서 조사하였을 때, 85%에 해당하는 171명의 자녀들은 그런 편이라고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절반을 차지하는 101명(50%)의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70명(35%)은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어머니들이 의견을 이해해주시려고 애쓰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인 응답을 한 자녀들도 32명(15%)이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9명(4%), '그렇지 않다' 23명(11%)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표 55, 그림 51> 의견을 이해해주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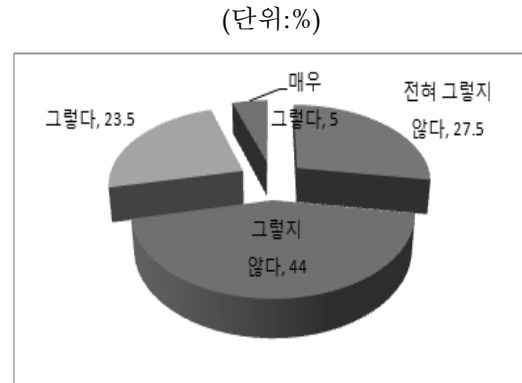
응답내용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9	4
그렇지 않다	23	11
그렇다	101	50
매우 그렇다	70	35
합계	203	100



나는 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귀찮다라는 문항에 그런 편이라고 응답한 자녀는 모두 57명(28.5%)로 다른 문항과 비교하여 부정적 문항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자녀는 10명(5%) 그리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자녀는 47명(23.5%)이었다. 그러나 잔소리 때문에 귀찮지 않다는 응답을 자녀들은 143명(71.5%)으로 '그렇지 않다'에 88명(44%), '전혀 그렇지 않다'에 55명(27.5%)의 학생들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그림 52> 잔소리로 귀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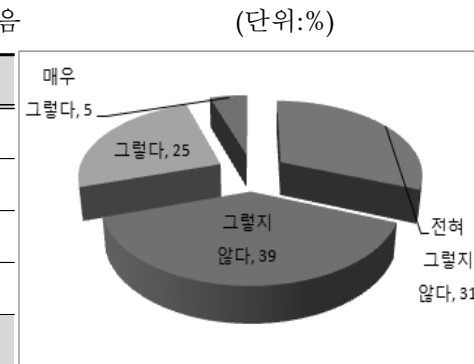
응답내용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55	27.5
그렇지 않다	88	44
그렇다	47	23.5
매우 그렇다	10	5
합계	200	100



무슨 일에 대한 진심을 어머니께 그대로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문항에 그런 편이라는 응답을 한 학생들은 61명(30%)으로 그 어떤 문항보다 제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문항으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라는 매우 부정적 반응을 한 자녀들은 11명(5%)이었고, 나머지 50명(25%)이 '그렇다'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진심을 그대로 어머니께 말씀 드릴 수 있다고 대답한 자녀들은 142명(70%)이었다. 이 중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수는 63명(31%)이었고,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자녀는 79명(39%)로 나타났다.

<표 57, 그림 53> 진심을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음

응답내용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63	31
그렇지 않다	79	39
그렇다	50	25
매우 그렇다	11	5
합계	203	100



IV. 결과요약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자녀 중에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에 재학 중인 초, 중, 고등학생 203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차별경험과 타문화수용 정도 및 국민정체성, 학교생활 및 언어발달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본 실태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대상의 특성을 학교급별 그리고 성별 비율로 살펴보았을 때, 초등학교 학생들이 203명 중 17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5.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학생은 11.3%, 고등학생은 3.0%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비율은 남학생이 109명으로 전체의 54%, 여학생이 94명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5명(8%)이 더 많게 분포되어 있는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비율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학교급별 비율과 비교적 유사한 특성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 어머니의 출신국으로 살펴본 본 연구대상의 특성은 일본과 중국이 전체의 84.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 일본인 어머니를 둔 자녀들이 110명으로 절반 이상인 54.6%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머지 15.5%는 필리핀 8.0%, 베트남 4.0%, 태국과 북한 각각 1.5% 그리고 몽골 0.5%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 중에서도 특정 국가의 자녀들이 갖는 특성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의 가족의 특성은 부모의 연령차가 많이 있고, 아버지의 직업은 대체로 준전문직이며 어머니의 취업률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함께 살고 있는 평균 가족원수는 4.76명이었다. 보다 구체적인 가족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의 연령차를 평균연령으로 살펴볼 때, 아버지는 47.05세이고 어머니는 41.96세로 적어도 5살 정도의 연령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연령 차이는 2000년 결혼이주여성 가정에서 나타나는 연령차인 6.9세(통계청, 2008)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매우 적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한국부부의 연령차가 2.7세와 비교한다면 꽤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별 분포에서도 아버지의 연령은 37세에서 61세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나 어머니의 연령은 23세에서 54세까지로 나타나 부모의 연령차가 어느 정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의 직업에서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인 직업군은 기술공이나 준전문가로 전체 응답의 27%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사무종사자로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나 판매직이 15%였으며 생산직이 9%, 농림어업이 5%, 단순노무가 4%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직이라는 응답도 6%로 나타나고 있다. 어머니의 직업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주부로 거의 절반 정도인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직이라는 응답

도 5%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직업군에서는 서비스와 판매직이 7%로 가장 높았고, '기타'에 속한다는 응답의 비율도 24%를 차지하고 있었다. 기타에 속하는 어머니의 직업은 강사가 19명으로 제일 높은 비율(83%)을 차지하고 있었고, 통역사 2명, 상담원과 의사가 각 1명이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지역사회에서나 학교에서 경험한 차별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우리 사회에서 차별당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전체 응답자의 28%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72%는 차별경험이 없었다.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들이 지적한 차별한 대상은 '학교친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학교 선생님'으로 나타났으나 그 수는 별로 많지 않았다.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이 차별을 당한다는 이유로 많이 지적되는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외모가 달라서,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리고 공부를 못해서 등의 원인들로 인하여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를 조사하였을 때, 본 연구결과에서 응답자들은 별로 차별을 당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위의 차별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이유는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으로 응답자 36명(18%)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특별한 이유없이 차별을 당했다는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이유들로 인한 차별경험은 10%(외모가 달라서)에서 5%(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사이로 나타났다. 차별을 경험했을 때 상담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97명으로 응답자의 49.7%를 차지하였고, 상담을 한 대상으로는 가족이나 친척 51%(50명), 친구 31%(30명), 교사 7명(7%), 다문화가정 지원단체 및 상담원이 1명(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욕설이나 헐박과 모욕,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 신체적 폭행 그리고 성추행 및 성폭력과 같은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은 경험했다고 하기 보다는 하지 않았더라는 대답을 더 많이 하였고, 경험의 빈도는 주로 가끔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이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폭력으로는 욕설, 헐박, 모욕과 같은 언어적 폭력(18%) 그리고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11.5%)이 높게 나타났다.

타문화에 대한 수용정도는 민족의 우열보다는 차이에 대한 의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그렇다고 응답할 경우 타문화에 대한 수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타문화에 대한 수용정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민족의 우열정도를 나눌 수 없다'는 문항이 타문화수용 정도가 가장 낮은 문항으로 나타났는데, '그렇지 않다' 57명(29%), '전혀 그렇지 않다' 41명(21%)으로 나타나 세계 민족의 우열정도를 가릴 수 있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았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편이다'라는 질문이 그 다음으로 수용도가 낮은 문항이었는데 학생들의 44%인 88명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일 높은 수용정도를 보여준 문항은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들의 문화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 181명(89%)의 학생들은 그런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갖고 있는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국민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과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사 결과, 국뽕율이 98%로 제일 높 것과 한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85%)이 가장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자녀의 학교생활을 성적,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와 학교생활의 적응과 좋아하는 정도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자녀들은 본인들의 학교생활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대답하였고, 부정적 대답은 매우 낮은 편으로 학교생활을 싫어한다(2%),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못한다(2%), 학교 성적을 못하는 편(22%), 친구와의 관계가 나쁜 편(2%), 교사와의 관계가 나쁜 편(0%)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학습부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학생들이 72명(41%)으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8명(5%)으로 가장 적었다. 학습부진 다음으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은 친구관계에 37명(22%), 정체성 혼란 문제 17명(10%)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없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도 22%를 차지하고 있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소지품을 도난당하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혹은 폭력을 사용해서 싸운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조사 결과, 학생들은 이에 해당하는 일들을 대부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경험한 비율은 소지품을 도난당한 경험이 있다 55명(27%),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나를 위협한 경험이 있다 31명(15%), 학교에서 다른 학생과 주먹다짐을 한 적이 있다가 29명(14%)이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지정한 대상은 부모와 친구가 각 66명(32%)을 차지하였고, 학교선생님 46명(23%), 형제자매 9명(4%), 그리고 다문화 지원 단체 상담원 1명(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기타'라고 응답하거나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각 8명(4%)이었다. 이주여성 어머니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정도를 어머니의 숙제 도움 정도, 학교행사 참석 그리고 학교선생님과의 연락 등으로 살펴보았다.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업에 그다지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동들의 부정적 응답은 어머니들이 숙제를 거의 도와주지 않는다 103명(50%), 학교행사에 참석 하지 않는다 100명(49%), 선생님과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 106명(56%)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발달과 관련하여 한국어와 어머니 나라의 언어 실력정도를 말하기, 듣기,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리고 또래와 비교한 한국어 능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학생들이 평가한 본인의 한국어 능력에서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영역은 듣기 영역으로 104명(52%)의 학생들이 스스로 '매우 잘한다'고 평가하였다. 잘한다는 응답도 59명(29.5%)으로 나타나 잘한다는 학생들의 비율은 전체의 8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말하기, 듣기, 읽기보다 쓰기를 제일 어려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본인의 쓰기 실력을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8명(4%)으로 '못 한다'에 7명(3.5%), '매우 못 한다'에 1명(0.5%)이 속

해 있었다.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42명(70%)으로 ‘매우 잘 한다’에 83명(41%), ‘잘 한다’에 59명(29%)이 포함되어 있었다. 본인의 한국어 실력을 또래와 비교하였을 때,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152명(74%)이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자녀들은 어머니 나라 언어 실력을 한국어 실력보다 더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자녀들은 어머니 나라 언어 영역 중에서도 듣기를 가장 잘한다고 평가하였는데 96명(47%)의 학생들이 어머니 나라 말을 잘 듣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어머니 나라 말에서도 쓰는 능력이 듣기, 말하기, 읽기와 비교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다른 영역의 경우에는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보다 더 높거나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쓰기에서는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 67명(33%)이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 82명(41%)보다 적었다.

어머니 나라의 말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응답은 절반 이상인 115명(57%)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주여성 어머니와 얘기할 때 자녀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인 149명(73%)이 한국어를 이용하여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와 어머니 나라말을 함께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50명(25%)이었고, 어머니 나라말을 사용한다고 대답한 학생은 단지 3명으로 전체의 2%만 차지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생각하고 있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의사소통 만족도와 대화 정도 그리고 의사소통의 질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의사소통이나 관계에 대한 다음 문항들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응답한 자녀의 수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와의 함께 하는 시간 145명(71%),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147명(73%),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학생들 154명(75%),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 151명(74%)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머니와 의사소통을 비교적 많이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매일 자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12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1%를 차지하였다. ‘매일 조금씩’이라는 응답자는 48명(23%), ‘필요한 경우에만’에 21명(10%), ‘거의 하지 않는다’는 10명(5%)의 순이었다. 대다수(72%)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어머니와의 대화가 불편하다고 응답한 학생들 43명은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9명(44%), ‘엄마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가 12명(28%),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가 9명(21%), 그리고 ‘내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가 3명(7%) 이라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일부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기도 하지만 또한 일부는 그렇지 않았다. 우선 차별경험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결혼이주여성 청소년 자녀들은 차별경험이 다른 연구결과들(김경신, 2009; 금명자 외, 2006; 설동훈 외, 2005) 보다는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응답자가 어머니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녀의 연령이 사회의 인식에 민감한 청소년들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경험한 비율은 선행연구 결과

(금명자 외, 2006) 보다는 조금 낮았으나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했다는 비율은 더 높았다. 물론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했다는 응답자가 매우 소수이기는 하더라도 이는 매우 심각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타문화에 대한 수용도는 비교적 높았으나 문항에 따라서 차이를 많이 보여 학생들의 타문화수용성은 불안정한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버지와 한국어의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기준을 살펴보기 않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은 선행 연구들과 유사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와의 관계나 교우관계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들은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언어발달이나 의사소통을 통한 어머니와의 관계도 비교적 좋은 편으로 선행연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단순한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만을 보고하고 있는 수준이기에 추후 분석을 통하여 자녀의 특성이나 가족특성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변인들의 차이와 변인들 간의 관계와 더불어 어머니와의 자료를 함께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는 노력이 과제로 남는다고 하겠다.

2.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비교적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응과정에 대한 자료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적어도 10년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어려움을 잘 견디고 건강하게 성장하였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한 작업이 병행되어야만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차별대상자로서 학교친구나 선생님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다문화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부족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결과에서도 교사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다루는 방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주 관심의 대상은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사회구성원 전반에 대한 그리고 교사나 또래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적응프로그램 등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은 이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강화되고 차별된다.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다문화사회를 준비하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가 제공되고 교육의 기회가 많아져야 할 것이다.

셋째, 타문화에 대한 수용정도에서 ‘세계민족의 우월정도를 가릴 수 있다’가 가장 높고, ‘엄마가 외국인 이어서 차별 당한 경험이 많다’는 것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조차도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은 국민적 정체성에서 아버지의 국적에 대해 그 중요성을 인정하며 어머니의 국적에 대한 중요성은 다소 그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결국 우리나라의 사회적 편견에 대한 태도가 이미 자녀들에게도 학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편견이나 차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할수록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혼란을 경험하거나 혹은 배타적인 태도를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도 인권교육이나 평등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넷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자녀들을 교육하는 기관에서는 언어발달 수준에 적절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읽기와 쓰기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줄 수 있는 통합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어발달을 도울 수 있는 전문교사의 양성이 요구된다. 교사연수를 통해서 교사들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특성을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이웃하고 있는 일본의 시즈오카현 하마미쓰시에서는 외국인 아동학생이 많이 재적하고 있는 초·중학교에 전임 교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초등학교에 ‘언어교실’을 개설하여 방과 후 일본어 교육과 동시에 이주민의 모국어를 위한 수업도 운영 중이다. 또한 외국인 자녀들을 위해 시민 자원봉사자가 행하는 일본어 교실 지원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해서는 일본어 교육학회와 연계하여 연수회를 개최하며, 외국인 학교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섯째, 다문화가정 자녀의 주양육자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결혼이주여성 어머니의 우리사회 적응 정도는 자녀양육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특히 언어이해와 문화적응 정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민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고되는데 부모의 언어능력과 부모의 거주기간이 자녀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과 사회적응을 위해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한국어교육의 지원과 동시에 결혼이주여성 모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사용 수 있는 이중 언어 학습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은 주로 한국어 습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모국어사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오히려 금기시되는 가정도 많은 형편이다. 어머니들은 자신의 모국을 자녀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는 노력은 매우 미비하다. 자녀에게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모국 역시 자녀에게 소중한 나라라고 인식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외국으로 인식하게 할 것인지

지로 갈등을 겪는다고 한다. 다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린다면 세계화 시대에 좋은 동력이 될 뿐 아니라 자녀의 언어발달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석광(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경북여성정책개발원(2006). 다문화사회 아시아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삶 : 한국, 대만, 베트남, 일본에서의 경험. 대구: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권오희(2006). 국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문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갑성(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란(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신(2009). 광주광역시 2008년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 김이선·김민정·한건수(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한국여성개발원.
- 김영주(2006). 충남 국제결혼가족 실태 및 지원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김용현(2007).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 배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금명자·이영선·김수리·손재환·이현숙(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연구: 사회적응 실태조사 및 고정관념 조사. 서울:국가청소년위원회.
- 다정현영(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아시아 여성과 한국남성의 이중문화가정자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애(2007).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실태조사 연구. 경상남도 다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설동훈·김윤희·김현미·윤홍식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이혜경·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연구. 서울:여성가족부.
- 심인선(2008).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경남발전연구원장.
- 안은미(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이남주(2006). 국제결혼가족의 자녀양육. 결혼이민자가족: 다양성과 공존을 위하여. 2006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84-95.
- 이순형 외(2006).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방안. 농림부.
- 이영주(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인봉숙(2001). 한일 국제결혼가정 2세의 한국생활 적응 실태조사 연구: 천안시 거주 통일교인 가정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기선 외(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정윤정(2007). 결혼이민자 가정의 특성과 아동들의 학교적응: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 정일선(2006). 국제결혼 가족 및 아동 실태조사. 대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정현영(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아시아 여성과 한국남성의 이중문화가정자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경(2007). 특수목적 한국어 교육 연구: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및 그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실태조사 연구.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
- 조혜영·이창호·권순희·서덕희·이은하(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2007). 2007년 충북 가족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 홍영숙(2007). 다문화가정이 봉착하는 자녀교육 문제와 시사점.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록>

다문화 가정 자녀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는 여러분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는 광주 YMCA와 공동으로 광주·전남·북 지역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의 인권관련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비밀이 완전하게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저희 연구에 할애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09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광주 YMCA

□ 본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062-710-9710~6)

광주 YMCA (062-232-6141~4)

A. 학교생활

1. 학교생활을 어느 정도 좋아하나요?

- ① 매우 좋아 한다 ② 좋아 한다 ③ 보통이다 ④ 싫어한다 ⑤ 매우 싫어한다

2. 학교에 잘 적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한다 ② 잘 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못한다 ⑤ 매우 잘 못한다

3. 학교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잘하는 편 ② 잘하는 편 ③ 보통 ④ 못하는 편 ⑤ 매우 못하는 편

4.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좋은 편 ② 좋은 편 ③ 보통 ④ 나쁜 편 ⑤ 매우 나쁜 편

5.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는 어떠하나요?

- ① 매우 좋은 편 ② 좋은 편 ③ 보통 ④ 나쁜 편 ⑤ 매우 나쁜 편

6. 또래에 비해 한국어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잘 한다 ② 잘 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못한다 ⑤ 전혀 못 한다

7. 학교생활 중 도움이 필요한 경우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으십니까? 하나만 고르시오.

- ① 부모님 ② 형제자매 ③ 친구 ④ 학교 선생님
⑤ 학원 선생님 또는 과외 선생님 ⑥ 다문화 지원 단체 및 상담원
⑦ 기타 ⑧ 없다

8.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입니까?

번호	내용	전혀 없다	1~2번	3번 이상
1	학교에서 누군가가 내 소지품을 훔쳐갔다			
2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나를 위협했다			
3	학교에서 다른 학생과 주먹다짐을 했다			

9.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학습부진의 문제 ② 정체성 혼란의 문제
③ 집단 따돌림 ④ 친구관계의 문제 ⑤ 없음

B. 어머니와의 관계

1. 어머니와 관련된 다음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번호	활동내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					
2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3	나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4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					

2. 엄마의 본국어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3. 어머니와 얘기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 ① 한국어 ② 본국어 ③ 한국어+본국어 ④ 제3국어 ⑤ 한국어+제3국어

4. 어머니와 얼마나 자주 얘기를 하십니까?

- ① 매일 자주 ② 매일 조금씩 ③ 필요한 경우에만 ④ 거의 하지 않는다

5. 어머니와 대화할 때 불편하십니까?

- ① 전혀 불편하지 않다 ② 불편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불편하다 ⑤ 많이 불편하다

(☞ ④ ⑤번에 답하신 분에 한하여)

5-1. 어머니와 대화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 ② 내가 시간이 없어서
③ 엄마가 한국말을 잘못해서 ④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6. 어머니가 숙제를 얼마나 도와주십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3-4번 ③ 일주일에 1-2번 ④ 거의 도와주지 않는다

7. 어머니께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에 얼마나 참석하셨습니까?

- ① 매우 많이 참석함 ② 많이 참석함 ③ 보통으로 참석함
④ 별로 참석안함 ⑤ 전혀 참석안함

8. 어머니께서 선생님과 자녀에 대해 서로 연락을 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자주 한다. ② 자주 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하지 않는다. ⑤ 전혀 하지 않는다.

9. 다음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란에 표시해주세요.

번 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소신을 어머니와 거리낌 없이 이야기 할 수 있다.				
2	어머니는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신다.				
3	내가 원하는 바를 어머니께 부탁드리기가 겁이 난다.				
4	어머니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감정이 어떤지 잘 아신다.				
5	나는 어머니와의 대화에 만족스럽다.				
6	어머니께 말씀드리려면 조심스럽고 어렵 다.				
7	어머니와 대화를 나눌 때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				
8	내 질문에 어머니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신 다.				
9	나에게는 어머니와 의논할 수 없는 비밀이 많다.				
10	어머니는 내 의견을 이해해 주시려고 애쓰 신다.				
11	나는 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귀찮다.				
12	무슨 일에 대한 내 진심을 어머니께 그대 로 말씀드릴 수 없다.				

* 다음 문항들은 본인이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A. 차별 경험

1. 우리사회에서 차별당한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1-1로 가세요) ② 없다

☞ 1-1. 당신을 차별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선생님 ② 학교 친구 ③ 이웃 주민 ④ 상점주인
 ⑤ 버스 택시 운전자 ⑥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공무원)
 ⑦ 목사 신부님 등 성직자 ⑧ 다문화 지원 단체 및 상담원 ⑨기타

2.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번 호	내용	전혀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매우 자주 있다
1	욕설·협박·모욕				
2	돈 · 물건 빼앗김				
3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				
4	신체적 폭행				
5	성추행 및 폭력				

3. 다음은 학교나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맞은 곳에 표시해주세요.

번 호	내용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1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2	외모가 달라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3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4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5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6	공부를 못해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4. 차별을 경험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상담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4-1로 가세요) ② 없다

☞ 4-1. 차별을 받았을 때 상담한 사람은 누구 입니까?

- ① 가족, 친척 ② 친구 ③ 교사 ④ 다문화 가정 지원 단체 및 상담원
⑤ 성직자 ⑥ 신고전화(경찰, 검찰) ⑦ 기타

☞ 4-2. 여러 상담자 중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 사람은 누구 입니까? 한 사람만 고르세요.

- ① 가족, 친척 ② 친구 ③ 교사 ④ 다문화 가정 지원 단체 및 상담원
⑤ 성직자 ⑥ 신고전화(경찰, 검찰) ⑦ 기타

B. 타문화 수용정도 및 국민 정체성

1.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란에 표시해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세계의 민족(인종)을 우수하거나 열등한 민족으로 나눌 수는 없다.				
2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들의 문화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3	못사는 나라의 문화가 잘사는 나라의 문화보다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4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버릴 점보다 취할 점이 많다.				
5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는 우리사회에 적합한 것도 많이 있다.				
6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편이다.				

2. 다음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란에 표시해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2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				
3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4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는 것 (명절, 제사, 전통의례 및 음식 등)				
5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6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7	한국 국적을 갖는 것				
8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 에 기여하는 것				

C. 개인정보 및 미래에 대한 계획

1. 여러분 본인에 대해서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 남자 여자

연령 : _____ 세 (생년·월: _____ 년 _____ 월)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한국 외국(구체적인 나라이름 : _____)

2.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을 포함한 가족원 수 : _____ 명

-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주세요.

부모님의 직업 : 아버지 _____ 어머니 _____

< 보 기 >

① 농림어업 ② 기술공·전문가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판매
⑤ 생산직 ⑥ 단순노무 ⑦ 주부 ⑧ 무직 ⑨ 기타 _____

부모님의 국적 : 아버지 _____ 어머니 _____

어머니의 본국 : _____

부모님의 나이 : 아버지 _____ 세 어머니 _____ 세

3. 나의 한국어와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다음 영역에서 얼마나 잘 하는지 가장 알맞은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내 용		매우 잘 한다	잘 한다	보통이다	못 한다	매우 못 한다
나의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어머니 나라의 언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 ① 공장 노동자 ② 사무원 ③ 판매원 ④ 기능공, 컴퓨터 프로그래머
 ⑤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⑥ 기업경영자 ⑦ 전문 기술자
 ⑧ 교사, 교수 ⑨ 변호사, 판사, 법률가 ⑩ 의사 ⑪ 기타

여러분들의 인권상황을 다차원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학생의 어머니 의견도 듣고자 합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이번 연구조사에 임하여 주신다면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겠습니다. 그 여부에 대해 표시해주세요.

가능 _____ 불가능 _____

☞ 가능한 경우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_____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 광주광역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차별 및 인권침해
경험과 지역사회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

- 초등 4학년 이상의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 YMCA

2009 광주광역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차별 및 인권침해 경험과 지역사회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

- 초등 4학년 이상의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

책임 연구원: 옥경희(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연구원: 박미정(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2009. 8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 YMCA

2009 광주광역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차별 및 인권침해
경험과 지역사회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

2009. 8. 17

책임 연구원 : 옥경희(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연구원 : 박미정(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본 보고서는 2008년 12월부터 ~ 2009년 7월 기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광주인권사무소)와 광주YMCA에서 자체 설문조사 한 내용을 토대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물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YMCA의 입장과 다소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서론 / 87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87
2. 연구방법 / 90
 - 1) 조사체계 / 90
 - 2) 표본추출방법의 개요 / 90
 - 3) 표본 틀 / 90
 - 4) 자료 분석 / 91

II. 선행연구 고찰 / 92

1. 광주지역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현황 및 특성 / 92
2. 결혼이민여성 관련 선행연구 / 94
 - 1) 차이와 차별의 문제 / 95
 - 2) 자녀의 양육과 교육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 96

III. 연구결과 / 98

1. 개인 및 배우자의 특성 / 98
 - 1) 개인의 특성 / 98
 - 2) 배우자의 특성 / 102
2. 차별 및 인권침해 경험 / 105
 - 1) 차별경험 / 105
 - 2) 차별경험의 유형 / 108
3.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및 교류 / 109
 - 1) 지역사회에서의 교류 / 109
 - 2) 지역사회에서의 이웃과의 활동 및 이해 / 114
4. 자녀의 양육과 교육 / 116
 - 1) 자녀 양육과 교육활동 / 116
 - 2)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참여도 / 120
 - 3) 자녀양육과 교육과정 어려움 / 124
5. 자녀의 학교생활 / 130

- 1) 학교생활에 대한 자녀의 적응정도 / 130
- 2) 학교에서의 피해경험 / 133
- 6. 자녀의 차별경험 / 136
 - 1) 친구로부터의 차별경험 / 136
 - 2) 선생님으로부터 차별경험 / 138
- 7. 어머니와 자녀와의 의사소통 / 140
 - 1)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 140
 - 2) 어머니의 본국어 능력 / 142
 - 3) 자녀와의 의사소통 / 144

IV. 결론 및 제언 / 148

<참고문헌> / 155

<부록-설문지> / 157

- 1. 한국어 / 157
- 2. 일본어 / 165
- 3. 영어 / 173
- 4. 중국어 / 182
- 5. 베트남어 / 190

표 및 그림 목차

<표1> 조사체계 / 90
<표2> 광주광역시 혼인 유형 및 건수 / 92
<표3> 광주광역시 외국인 아내의 년도 별 출신 국적 / 93
<표4, 그림1> 출신 국 / 98
<표5, 그림2> 국적취득 여부 / 99
<표6, 그림3> 국적 미 취득 출신국가 / 99
<표7, 그림4> 연령 / 100
<표8, 그림5> 종교 / 100
<표9, 그림6> 학력 / 101
<표10, 그림7> 입국시기 / 101
<표11, 그림8> 거주기간 / 102
<표12, 그림9> 직업 / 102
<표13, 그림10> 배우자의 종교 / 103
<표14, 그림11> 배우자의 나이 / 103
<표15, 그림12> 배우자의 직업 / 104
<표16, 그림13> 배우자의 학력 / 104
<표17, 그림14> 동거가족 수 / 105
<표18, 그림15> 배우자와의 동거여부 / 105
<표19, 그림16> 차별경험 / 106
<표20, 그림17> 차별하는 사람 / 106
<표21, 그림18> 차별로 인한 상담 경험 / 107
<표22, 그림19> 차별을 받았을 때 상담자 / 107
<표23> 직업이나 직장을 구하는데 차별 / 108
<그림20> 직업이나 직장을 구하는데 차별 / 108
<표24> 지역사회에서의 교류 정도 / 109
<표25> 지역사회에서 교류 / 110
<표26, 그림21> 이웃에게 집을 비울 경우 아이를 맡기거나 집 보기 부탁 / 110
<표27, 그림22> 이웃에게 집안일을 서로 돕기를 부탁 / 111
<표28, 그림23> 이웃에게 생활용품이나 가사도구 등을 빌리거나 빌려 / 111
<표29, 그림24> 이웃에게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빌리거나 빌려주기 / 112
<표30, 그림25> 이웃에게 개인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 / 112
<표31, 그림26> 이웃에게 일상생활이나 속상할 때 이야기하기 / 113
<표32, 그림27> 이웃의 경조사 참석 / 113
<표33> 지역사회에서 활동이나 교류 / 115
<그림28> 지역사회에서 활동이나 교류 / 116

<표34, 그림29> 지역사회에서 겪는 어려움 / 116
<표35> 자녀와의 활동 만족도 / 117
<표36> 자녀와 관련된 활동내용 / 118
<그림30> 자녀와 관련된 활동내용 / 118
<표37, 그림31>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는 빈도 / 119
<표38, 그림32> 숙제를 도와줄 때 어려운 점 / 119
<표39, 그림33> 책 읽어주기 빈도 / 120
<표40> 학교활동 / 120
<그림34> 학교활동 / 121
<표41> 자녀의 학교활동 참석 / 122
<그림35> 자녀의 학교활동 참석 / 122
<표42, 그림36> 자녀의 선생님과 연락 정도 / 123
<표43, 그림37> 자녀의 선생님과 얘기할 때 어려운 점 / 123
<표44, 그림38>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 얻는데 도움 받는 사람 / 124
<표45, 그림39> 그 밖에 정보를 얻는 부분 / 124
<표46, 그림40>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 / 125
<표47, 그림41>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 / 125
<표48, 그림42> 자녀양육·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 / 126
<표49, 그림43> 숙제도와주기·학습준비 / 126
<표50, 그림44> 자녀의 생활지도 / 127
<표51, 그림45> 자녀의 이성교제 / 127
<표52, 그림46> 자녀의 인터넷 중독 또는 흡연 / 128
<표53, 그림47> 자녀의 폭력행동 / 128
<표54, 그림48> 자녀와의 의사소통 / 129
<표55, 그림49> 자녀와 나의 갈등 / 129
<표56, 그림50> 자녀와 남편사이의 갈등 / 130
<표57, 그림51> 나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음 / 130
<표58> 자녀연령별 학교 호감 및 적응 / 131
<표59> 어머니 출신국가별 학교 호감 및 적응 / 131
<표60, 그림52> 자녀의 학교생활 호감도 / 131
<표61, 그림53>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도 / 132
<표62, 그림54> 자녀의 성적 / 132
<표63, 그림55> 자녀의 친구들과의 관계 / 133
<표64, 그림56> 자녀와 교사와의 관계 / 133
<표65, 그림57> 학교에서 욕설·협박·모욕 피해 / 134
<표66, 그림58> 학교에서 돈·물건 빼앗김 / 134
<표67, 그림59> 학교에서 친구들로 부터의 따돌림 / 134

<표68, 그림60> 학교에서 신체적 폭행 피해 /	135
<표69, 그림61> 학교에서 성추행 및 폭력 피해 /	135
<표70, 그림62> 자녀의 학교 적응 시 가장 필요한 부분 /	136
<표71> 친구로부터 차별경험 평균 /	136
<표72, 그림63> 친구로부터의 차별유형 /	137
<표73> 엄마가 외국인이라 친구로부터 차별 /	138
<그림64> 엄마가 외국인이라 친구로부터 차별 /	138
<표74> 교사로부터 차별경험 평균 /	139
<표75> 교사로부터 차별유형 /	140
<그림65> 교사로부터 차별유형 /	140
<표76, 그림66> 한국어 능력 /	141
<표77> 한국어 능력 /	142
<그림67> 한국어 능력 /	142
<표78> 본국어 능력 /	143
<그림68> 본국어 능력 /	143
<표79, 그림69> 남편과 대화 시 사용 언어 /	144
<표80, 그림70> 자녀의 한국어 능력 /	144
<표81, 그림71> 자녀가 어머니의 본국어 학습 필요 여부 /	145
<표82, 그림72> 자녀와 대화 시 사용 언어 /	145
<표83, 그림73> 자녀와의 대화 빈도 /	146
<표84, 그림74> 자녀와 대화 시 불편한 점 /	146
<표85, 그림75> 자녀와의 대화가 어려운 이유 /	147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1세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사상·자본과 상품의 이동이 과거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이동 또한 빈번하고 다양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이주와 관련하여 두드러진 현상은 아시아 여성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 이주자의 절반가량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필리핀과 스리랑카와 같은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 이주자가 남성 이주자 수를 앞지르고 있다(IOM, 2003). 여성 이주자의 대다수는 가구의 주요 생계부양자로서 역할을 하며, 해외로 이주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홀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IOM2003). 이러한 국제적 변화로 인하여 우리사회도 외국인 100만명 시대에 도래하였다. 2009년 3월 기준 국내에는 111만 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약 10%정도인 104,749명이 결혼이민자들로 이중 대다수가 여성이며, 현재 우리사회에 살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은 약 14만 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법무부, 2009. 6월 기준).

우리사회에서 이주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는 데는 이들을 구조적으로 흡인하는 요인들이 작동되었다.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개발 중심의 경제성장은 인구의 이촌향도, 농어촌지역 공동화,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한 남녀성비의 불균형,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 등의 우리사회 내적 모순에 대한 자구책이었다.

초기에는 농촌지역 만혼의 남성 장가보내기 차원에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과의 혼인에서 비롯되었고, 이를 각 지역 기초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부터 국제결혼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 3.7%에 불과하던 외국인과의 혼인비율이 2006년 11.9%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중 으로 남자와 외국여자 간의 혼인건수의 비중은 2000년 59.2%였던 것이 2006년에는 76.1%였다. 특히, 2006년 전체 국제결혼 건수의 감소 와중에서도 결혼한 농림어업종사 남성 중 국제결혼 비율은 35.9%에서 41.0%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07). 그리고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증가’는 결혼시장의 상품화로 인하여(박재규, 2004; 보건복지부, 2005; 여성가족부, 2005a) 도시지역 남성들의 초혼이나 재혼 상대자로 결혼이민여성들이 선호되어 2001년 이래 전체 결혼이민자 중 76%내외가 중국 국적의 여성이었으나 2006년 들이서는 절반수준으로 감소하고 대신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민여성이 68%일 정도로 증가하였다. 그 이외에도 필리핀 및 일본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주요 출신국이며, 태국이나 몽골,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최근에는 캄보디아, 스리랑카에 이르기까지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한국여성정책개발원, 2007).

다양한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여성의 급속한 증가는 국제결혼의 상업화 논리에 따르는 반인권적 상황들도 동반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로 인한 무역의 자유화와는 달리 인구 이동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결혼을 통한 안전한 이주는 선진국 남성과 가난한 국가 출신의 여성들과의 혼인으로 인신매매적인 특성이 강하다. 때문에 젠더와 관련된 특수한 형태의 차별, 인권침해와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비공식 사적 공간인 가족 안으로 유입되어 가사와 자녀출산과 양육을 전담하는 돌봄 노동자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는 일정기간의 거주와 출산력, 남편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결혼이민여성들은 자유로이 사회권과 노동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입장과 위치에 놓여 있지 않으며, 인권침해와 차별을 심화하는 기제가 다문화 가정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작동하고 있다. 이는 거시적인 사회문제로 드러나기 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무의식적 또는 의식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사회는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 아메리카를 비롯한 나라의 선진국 출신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우월한 사람들로 여기는 반면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가난한 나라 출신의 사람들은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다. 때문에, 외국인과 교류가 적은 한국 토박이들은 외모나 언어·행동이 자기와는 다른 이들에 대해 방어적 자세를 가지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빈곤국가에서 이민 온 여성들에게 가까운 이웃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와 경멸을 보내기도 한다(김민정 외, 2006; 박재규, 2004; ; 한건수 외, 2006). 이러한 문제는 결혼이민여성의 취업과 자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혼이민여성은 한국 및 고국의 가족생계를 위해서 취업을 원하지만 정보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이 매우 어렵고 설령 취업했다하더라도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설동훈 외, 2005). 이러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차별은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선도하는 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을 차별하는 행위와 연결된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인권침해와 차별의 형태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결혼으로 인해 우리안의 깊숙한 사적 공간에 들어온 가족과 이웃이며 지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다. 이들이 겪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곧 우리의 어려움이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체의 문제이므로 지역사회의 활동 및 교류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자신의 가족 문화와 배우자 가족의 문화가 바로 충돌하게 되면서 언어장벽은 물론, 식습관, 가족 상호작용, 가족 규범, 가족에 편입되는 과정의 문제 등 적응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Chang & Myers, 2003). 특히 결혼이민 여성의 경우는 짧은 이민생활 적응 과정에서 겪는 보편적 문제에 더하여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건에 바로 직면하게 된다. 벅찬 적응 과정 속에서 출산 이후 어머니의 역할은 이들에게 큰 어려움일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개인적 가치, 삶의 방식, 언어, 문화, 기후 등 다문화적 충격이 출산과 양육 과정에 혼합되면서 결혼 내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다분하다(여성가족부, 2005a, b). 실제로 한국 내 결혼이민

여성은 서로 다른 가정의례·예의범절 등에 대한 상호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시부모님이나 남편과 갈등 상황에 빠지곤 한다(김영란,2006; 설동훈외,2005; 임경혜,2004; 최금해,2006; 홍기혜,2000). 또한, 학령기 자녀들은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언어 학습이 부진한데 이로 인해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는 경우도 있다(박진옥·장은희,2008; 오성배,2007).

언어나 생활습관, 가치관 등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결혼이민여성들은 이주해온 우리사회에서 그들을 둘러싼 가장 직접적인 생활세계에서 가족은 물론 친지나 이웃, 부녀회와 같은 지역모임의 성원,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및 정책관계자 나아가 자녀 성장에 따른 학부모 모임 등 사회적·인적 관계망 속에서 대면의 경험과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다. 대면 또는 접촉의 과정은 상호간의 이질적인 문화의 만남을 의미하며, 문화적 차이 인식이나 갈등의 소지는 예견할 수 있지만 문제는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초기 적응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이나 고충은 사전에 예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의 일상생활은 어떠한가에 대한 실태조사나 연구 활동들은 일천하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은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으므로 미취학 자녀의 언어발달 수준이 떨어지기도 하고 학령기의 자녀학습에 대한 지원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중·고교 진학 연령대에 진입할 경우 심리적으로 민감한 학생들이 편견과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난다거나, 따돌림이나 성적부진 등의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를 방치한다면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발달 장애나 학습 장애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우리사회의 관심은 아직 미미하다. 그나마 다문화가정을 위한 적응과 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사실상 다문화가족에 대해 지원서비스 정책 등이 논의된 것은 최근의 일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예산지원 및 위탁 운영형태의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및 문화체험 교육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등의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6년 51개소를 시작으로 시, 군, 구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에 본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이상의 자녀를 둔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인권침해나 차별경험, 지역사회교류와 활동, 자녀양육과 교육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조사체계

<표 1> 조사체계

조사대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고학년(초등학교4학년 이상)의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어머니
유효 응답자수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고학년(초등학교4학년 이상)의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어머니 150명
조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 YMCA
조사방법	방문 설문조사와 전화설문
실사수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 YMCA

2) 표본추출방법의 개요

- 본 조사는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중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자녀를 둔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초등학교 138개교 171명, 중학교 22개교 28명, 고등학교 일반계 9개교 10명, 전문계 5개교 7명 등 전체 216명 전체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이를 가정으로 가져가서 어머니께서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

3) 표본 틀

- 본 조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광주 YMCA가 공동으로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 중 초등학교 4학년 이상에 재학 중인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 틀을 마련하고, 전체 2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학교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부

모님이 작성하신 것을 회수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151부를 회수하였고 최종적으로 147부를 분석하였다.

(1) 자료수집 과정 및 절차

- 2009년 2월~2009년 5월 : 결혼이민여성 및 자녀의 인권실태에 조사 계획
- 2009년 5월 : 결혼이민여성 및 자녀의 인권실태에 조사를 위한 내용과 일정 확정
- 2009년 5월 26일 : 설문 작성 요청을 위해 광주교육청과 협의 및 협조요청
- 2009년 6월 1일 ~ 2009년 7월 31일: 광주지역에 소재한 전체 초·중·고에 협조보고 공문을 광주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발송하였다. 사전에 전화를 드려 양해를 구한 후, 광주 YMCA에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한 대학생 12명이 사전 설문지에 대한 설명과 주의사항을 숙지하였다.
각 학교별로 나누어 사전에 전화를 드려 해당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현황을 파악한 후 자녀 설문지와 어머니 출신국에 따라 번안된 설문지를 가지고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의 특성에 맞게 대면설문이나 간접설문을 받았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학생이 집으로 가져가서 어머니가 작성한 후 학교로 가져오면 조사자가 재방문하여 수거하였다. 최종적으로 수거된 설문지는 151부(회수율 70%)였으며, 이중 무응답과 결측치가 많은 6부를 제외한 후 147부를 분석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검증과 전화보완조사를 거친 최종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통계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교차분석, 집단 간 평균비교(t-test)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광주지역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현황 및 특성

광주광역시 전체 국제결혼건수에 대한 변화 추이는 <표2>과 같다. 2008년 12월 기준 결혼건수 8,472건 중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와의 결혼건수가 649건이다. 이를 년도 별로 나누어 보면, 2006년 643건, 2007년 595건, 2008년 649건으로 우리나라 전체 혼인건수가 감소한 2007년에 약간 감소하다가 2008년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광역시 3년 동안의 전체 혼인건수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구별로 나누어보면, 도심 공동화가 가장 심각한 동구의 경우 2006년에서 2008년까지의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혼인은 전체 혼인비율의 8.8%, 서구 6.5%, 남구 7.5%, 북구 7.0%, 광산구 7.8%이다. 혼인 건수별로 보면 북구, 광산구가 가장 많다. 이 두지역의 특징은 북구의 경우 광주광역시 5개 구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가장 많고, 광산구의 경우에는 농림업 종사자가 5개 구 중 가장 많고, 하남 산업단지와 평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신시가지라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광산구 월곡동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과 결혼이민여성들이 이 5개 구 중 가장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하다.

<표2> 광주광역시 혼인 유형 및 건수 (단위: 명)

년도	2006			2007			2008		
지역	혼인 건수	외국인 처	외국인 남편	혼인 건수	외국인 처	외국인 남편	혼인 건수	외국인 처	외국인 남편
동구	540	61	16	747	42	6	568	55	12
서구	1,866	119	18	1,886	122	12	1,807	124	21
남구	1,081	99	14	1,333	85	17	1,107	78	16
북구	2,756	201	24	3,092	197	25	2,863	216	26
광산구	2,244	163	8	1,858	149	11	2,127	176	17
광주광역시	8,487	643	80	8,918	595	71	8,472	649	92

(출처: 통계청 자료실; 2008년 12월말 기준)

국제결혼에 따른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를 년도 별로 추정해보면 <표2>와 같다. 2000년부터 2008년 12월 말 기준 전체 외국인 아내는 3,728명이다. 이를 국가별로 구분해 보면 중국 2,117명, 베트남 762명, 필리핀 284명, 기타 및 미상 128명, 일본 118명, 캄보디아 98명, 몽골 92명, 우즈베키스탄 49명 순이다. 초창기부터 꾸준히 유입되어온 나라는 중국 여성이 가장 많고 2004년을 기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다가 2005년부터는 감소추세이다. 2006년에는 베트남 여성들이 대거 증가하였고, 필리핀이나 일본여성의 경우 일정한 인원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추이를 가지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광주광역시의 경우 국제결혼으로 유

입된 외국인 아내들은 2005년 이전에는 중국, 필리핀, 일본 순이었으나 2006년을 기점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여성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출신국가의 변화는 국제결혼 시장의 상품화에 따른 결혼비용의 문제와 결부된다. 단일민족임을 자부하던 우리사회에서 국제결혼 비용의 기준은 피부색에 의해 좌우 되었다. 그래서 결혼이민 초창기 동일한 문화적 공유가 많을 것으로 추측되었던 조선족 출신의 중국여성이 선호되었고, 이후에 국제결혼에 따른 피해들이 속출하면서 필리핀, 베트남까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다른 하나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인권문제가 여기저기에서 발생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와 국제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자 각 나라에서는 인구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고 결혼이민에 따른 법적절차들도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표3> 광주광역시 외국인 아내의 년도 별 출신 국적 (단위: 명)

년도 국가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필리핀	33	15	34	20	33	24	26	42	57	284
베트남	3	1	7	20	46	95	249	147	194	762
캄보디아	-	-	-	1	2	1	9	61	24	98
태국(타이)	4	3	3	8	13	5	4	7	16	63
몽골	-	2	3	4	9	8	17	29	20	92
중국	61	117	102	227	406	344	303	266	291	2,117
일본	18	10	10	12	10	12	12	18	16	118
우즈베키스탄	1	-	2	8	6	3	6	9	14	49
미국	4	1	1	3	3	2	4	1	3	22
기타 및 미상	16	16	9	19	17	4	13	15	14	123
계	140	165	171	322	545	498	643	595	649	3,728

(출처: 통계청 자료실; 2008년 12월말 기준)

국제결혼에 따른 꾸준한 증가와 다양한 국가 출신의 여성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는 무작위 추출 방식에 의한 실태조사만 몇 차례 이루어져 왔었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일반적인 어려움과 앞으로 직면하게 될 생활상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상세히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어떠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경험하는지, 지역사회에서는 지역민들과 공동체감을 획득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이나 교류들을 하는지에 대한 조사나 연구는 미비하였다. 그리고 학령기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육에 대한 조사활동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조사는 학령기 아동을 둔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통합된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구체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어머니를 중심으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마련하고자 한다.

2. 결혼이주여성 관련 선행연구

이주에 대한 이론은 경제학적, 사회학적, 여성학적 접근 등 매우 다양하고, 1980년대 이후에는 여성 이주가 뚜렷해지면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이주를 설명하고 분석하려는 시도가 증가되고 있다. 결혼이민여성의 이주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으나 본격적으로 진행 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이론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화로 인한 자본과 사람의 이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80년대 세계체계이론은 Sassen과 Portes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IOM, 2003). 이 이론에 의하면, 국제이주는 개인이나 가구의 결정의 산물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위계질서에 따른 세계시장 결과의 확대로 본다. 세계 자본주의 시장 확대는 저개발 국가의 농업개혁을 필수 불가분하게 하여 농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이들이 생활 터전을 떠나 임금 노동자가 되어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로 이동한다는 것이다(Sassen, 2002). 이러한 측면에서 이주는 세계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거대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세계체계이론 관점에서 여성의 이주현상은 여성 내에서도 계층화를 부추기기도 하는데 경제성장과 여성의 고학력화로 선진국 여성들이 사회진출이 확산되면서 가족 내 돌봄 노동이 이주여성의 일로 특화되는 현상으로, 이를 담당하는 이주여성 노동의 성격은 친밀성과 돌봄이 내재되며(Hochschild, 2002, 2003), 결혼이주는 가사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하는 선진국 대도시의 여성전문직 계급과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시아 출신 '서비스 계급(serving class)'의 양상(Sassen, 2002)이라는 측면에서 보기도 하였다(Sassen, 2002). 선진국 사회로 유입된 결혼이주여성들은 수행하는 가사노동이나 사회적 노동의 특성이 '서비스 계급'의 성격을 갖지만, 노동자가 아니라 부인과 어머니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Piper & Roces, 2003).

국내연구에서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이 지구화된 노동력의 이동과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지만 '결혼'이라는 특정 방식을 통해 이주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선진국 남성과 후진국 여성들의 결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상업화된 결혼을 통해 이주하는 여성들은 선진국 남성들에게 성적서비스와 무보수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매매혼적 관계로 전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제결혼을 통한 여성의 이주현상은 세계화에 따른 양극화의 산물으로써 빈곤의 여성화에서 파생된다는 사실과도 연결된다고 보았다(윤형숙, 2003).

1990년대 Massey는 이주 네트워크를 설명하였다. 이 네트워크는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한 정보교환과 재정지원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주를 도와주는 전문업체나 인신매매를 하는 범죄조직과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국제결혼업체의 증가로 국가 간 연결되는 결혼조직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선진국의 남성들은 결혼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함으로써 외국인 아내를 사왔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남편들은 자신과 결혼을 위해 이민 온 아내를 무시하고 통제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심지어 아내가 도망갈 것을 염려해 아내와 외부와의 관계를

강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외부 사회의 지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김상임, 2004; 윤형숙, 2003; 최금해, 2006). 이러한 다차원적인 상황에서 결혼이민여성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 또한 다양하다.

1) 차이와 차별의 문제

결혼이주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여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문화 가정에서는 일반적인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가정의 공통의 문제로는 언어 미숙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이다. 국제결혼 부부 90%이상이 대화 시 한국말을 쓰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여성가족부, 2005a, b; 설동훈외, 2005),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결혼이민여성들은 낯선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부인들의 어려움을 남편들이 현실적인 생활에서 배려하지 않아 부부갈등을 느끼며, 언어적 능숙함이 따르지 않을 때 남편은 극단적인 갈등표출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경제적, 언어적 폭력과 사회적 고립을 통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김상임, 2004).

부부관계에서도 권위적인 한국 남편의 태도를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장 힘들어 하는데 아내로서 대하기보다는 지시적이고 억압적이며, 무시하기도 한다(김상임, 2004; 김영란, 2006; 설동훈외, 2005). 그리고 가부장적인 가족질서에 일방적으로 편입하기를 원하고 이 과정에서 부부위계에 대한 생각, 권위적인 남편의 태도, 남편의 술과 담배, 자녀 양육방식, 시부모의 간섭이나 시부모에 대한 의존 등에서 갈등을 느끼기도 한다(윤형숙, 2003).

다문화 가정 어머니와 자녀들은 우리 사회 내부의 모순과 수요에 의하여 유입된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근거 없는 단일민족 의식에 근거한 폐쇄성과 백호(白好)주의로 대표되는 인종 차별적 인식에 의한 편견의 대표적 희생양이라 볼 수 있다. 배타적 민족주의 성향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 혼혈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자녀들을 보육 기관에 맡기려 해도 혹시 상처받는 일이 있을까봐 아이를 쉽게 맡기지도 못한다. 이는 가정 형편상으로는 맞벌이를 해야 하지만 아이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집에 머물러 있게 되고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에서의 소외를 1차적으로 겪고 더불어 가정 내부에서도 경제권을 가지고 가정 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반적인 어려움과 문제 상황이 존재함에도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안정감을 획득하는 방법 중 하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활발한 교류와 활동들을 통해서 일 것이다. 하지만 언어 및 기타 제반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여 지역주민들과의 교류도 활발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웃들은 비난, 무시 등의 행동들을 보이기도 한다(설동훈외, 2005).

2) 자녀의 양육과 교육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상당 수 다문화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언어 상호작용에 의한 모국어 습득 환경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이것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가정에서 충분한 언어습득, 기초생활습관, 교육, 정서적·심리적 안정감, 사회성을 제공해주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많은 부분의 성장이 지연될 위험성이 일반 가정자녀들에 비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자가족의 경우,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부재를 아버지가 전혀 메워주지 못하는 실정이라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 교육은 누적성과 가장 큰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들 자녀들의 문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즉, 학령기 이전의 학습 결손은 초등학교 학습에서도 결손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청소년기와 성인기로 가면서 점점 더 누적성이 확대되어, 그 교육 격차는 학업성취도의 격차와 교육기회의 격차, 과정의 격차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중국에는 이들이 아주 새로운 소외계층이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예견되는 실정이다(보건복지부, 200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가 자녀의 성장과 함께 심화된다는 것이다. 이들 자녀의 경우, 부모의 이중 언어의 사용으로 인한 언어 습득지체를 가지고 있으며, 산만함, 어울리지 못함, 집단 따돌림, 폭력 및 문제행동 등의 문제들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곽금주, 2008; 김갑성, 2008; 김영임, 2006; 임경혜, 2004). 무엇보다도 이들 가정 자녀의 경우, 어머니의 무릎에서 습득되는 한국어가 서툴고, 이중 언어의 사용으로 언어생활의 혼돈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이룬 다문화 가정의 경우 어머니와 자녀의 특성을 인해 성장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취학 자녀를 낳아 누가 주로 돌보는 가’에 대한 질문에는 37.6%가 ‘본인·남편 또는 기타 가족’이라 답하였고, ‘시설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맡긴다는 응답자들은 27.5%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미처 덜 극복한 상당수의 이주 여성이 미취학 자녀 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들 가운데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다고 진술한 부모의 비율은 17.6%이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는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34.1%)’,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20.7%)’, ‘특별한 이유 없이(15.9%)’, 기타(22.0%)등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집단 따돌림의 원인 대부분이 개인의 성격 특성과는 무관한 다문화가정 아동이라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보건복지부, 2005; 설동훈외, 2005).

다문화가정 아동은 고학년이 될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어머니의 국적이 베트남, 중국, 필리핀인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

협요인은 개인적 요인, 심리적 소외감 요인, 학교관련 요인의 영향력이 큰 반면, 보호요인은 친구관련 요인과 학교관련 요인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다. 즉, 또래의 지지와 원활한 친구관계는 이들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완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요인이다. 또한 가족관련 보호요인과 학교관련 보호요인 및 친구관련 보호요인은 위험요인과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곽금주, 2008; 김갑성, 2008; 오성배, 2007).

다문화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이들 가정이 대부분 저소득층이라는 점도 자녀양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아이들이 가족 내에서 방치되고 가정에서의 기본적 환경제공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혼이민자들의 자녀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더불어 자신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적 인식, 그리고 가정과 학교 교육 사이에서 겪는 여러 가치들에 대한 혼란이 중첩되면서 더욱 힘든 성장과정을 거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와의 의사소통 문제와 함께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불완전한 한국어 습득환경에 의해 자녀의 언어 발달 자체가 늦어지는 것이다.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언어 환경적 요인들은 대략 가족 간 언어형태의 차이와 질적 의사소통의 정도, 어머니의 언어 습득 정도, 자녀에 대한 올바른 언어모델의 여부 등이다(곽금주, 2008; 김갑성, 2008; 오성배, 2007).

III.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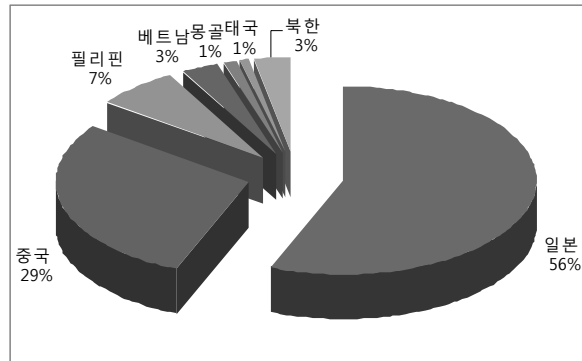
1. 개인 및 배우자의 특성

1) 개인의 특성

- 광주지역 다문화 가정 어머니 중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출신국은 <표4>과 같다. 응답자 147명 중 일본 82명(56%), 중국 43명(29%), 필리핀 11명(7%), 베트남 4명(3%), 태국 2명(1%), 몽골 1명(1%) 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자녀를 둔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거주 평균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결혼이민 초기 세대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후반에는 통일교를 통한 선교목적으로 일본 및 필리핀 여성들이 유입되었고, ‘한민족 하나 되기’ 운동차원에서 만혼의 농촌총각들과 조선족 중심의 중국여성들이 우리사회에 유입되었다. 때문에 본 조사의 응답자 또한 일본, 중국, 필리핀 등의 3개국 출신의 여성이 92%를 차지하고 있다.

<표4, 그림1> 출신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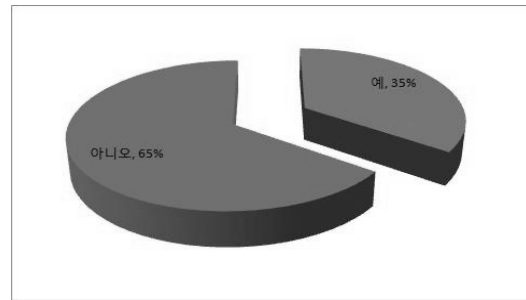
출신 국	빈도(명)	백분율(%)
일본	82	56
중국	43	29
필리핀	11	7
베트남	4	3
몽골	1	1
태국	2	1
북한	4	3
합계	147	100



- 결혼이민여성들이 우리사회에 유입되면 F-2비자를 받게 되는데, 2005년 개정안에 의해 2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거주해야만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국적 취득여부에 대한 응답은 전체 144명 중 국적을 취득한 경우 51명(35%),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93명(65%)로 나타났다.

<표5, 그림2> 국적취득 여부

국적취득	빈도(명)	백분율(%)
예	51	35
아니오	93	65
합계	14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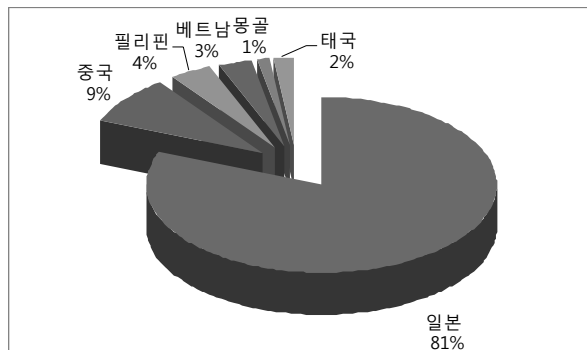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93명에 대한 출신 국가별 현황은 <표6>와 같다. 일본 75명(81%), 중국 8명(9%), 필리핀 4명(4%), 베트남 3명(3%), 몽골 1명(1%), 태국 2명(2%)이다.

- 여성가족부(설동훈 외, 2006)에 의하면, 일본 출신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한국국적 취득에 대해서 소극적인데, 그 이유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일본과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하기 위함이며, 반면 중국 여성들의 경우, 한국국적을 취득하는데 매우 적극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 이유는 국적취득은 일자리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며 돈을 벌 수 있는 합법적 장치이기 때문으로 보고했다.

<표6, 그림3> 국적 미 취득 출신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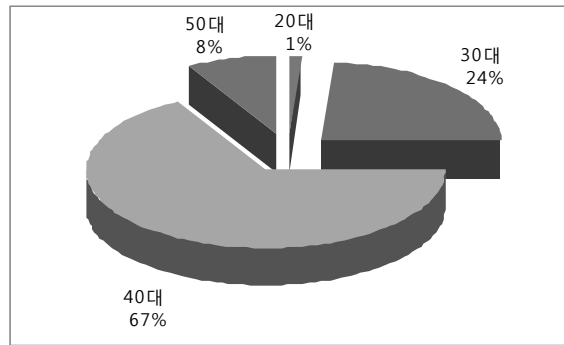
출신 국	빈도(명)	백분율(%)
일본	75	81
중국	8	9
필리핀	4	4
베트남	3	3
몽골	1	1
태국	2	2
합계	93	100



- 응답자의 연령은 20대 2명(1%), 30대 32명(24%), 40대 91명(67%), 50대 11명(8%)이며, 최소 나이는 23세, 최대 나이는 56세이며 평균나이는 42.6세이다. 20대이면서 자녀가 고학년인 경우는 재혼인 경우이다.

<표7, 그림4> 연령

연령	빈도(명)	백분율(%)
20대	2	1
30대	32	24
40대	91	67
50대	11	8
합계	13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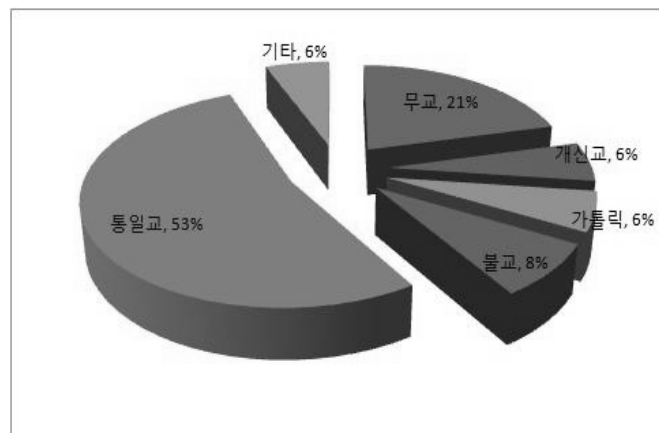


최소: 23, 최대: 56, 평균: 42.6세

- 종교는 응답자 125명 중 무교 27명(21%), 개신교 8명(6%), 카톨릭 7명(6%), 불교 10명(8%), 통일교 66명(53%), 기타 7명(6%)이다. 통일교가 55%이상을 선회하는 결과는 초창기 결혼이민여성들은 통일교를 통한 선교차원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표8, 그림5>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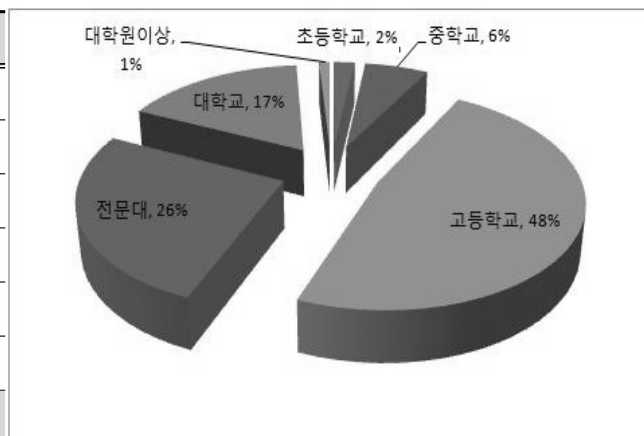
종교	빈도(명)	백분율(%)
무교	27	21
개신교	8	6
가톨릭	7	6
불교	10	8
통일교	66	53
기타	7	6
합계	125	100



- 결혼이민여성의 학력은 초졸 3명(2%), 중학교 졸업 8명(6%), 고등학교 졸업 67명(48%), 전문대학 졸업 36명(26%), 대학교 졸업 23명(17%), 대학원 졸업 2명(1%)로 조사되었다. 고등학교 졸업이상이 92%이며, 전문대학 졸업이상도 44%로 이다. 1990년 중반 즈음에 결혼으로 우리사회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고학력의 여성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표9, 그림6>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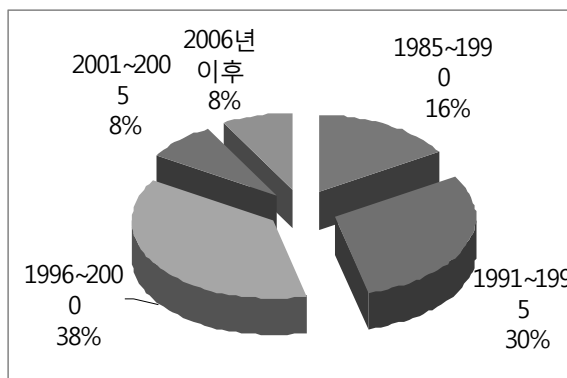
학력	빈도(명)	백분율(%)
초등학교	3	2
중학교	8	6
고등학교	67	48
전문대	36	26
대학교	23	17
대학원이상	2	1
합계	139	100



- 입국시기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10>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7명 중 1985년~1990년 23명(16%), 1991~1995년까지 43명(30%), 1996~2000년까지 53명(38%), 2001~2005년까지 11명(8%), 2006년 이후 11명(8%)이다. 1995년까지의 입국이 전체의 36%, 2000년까지 74%를 차지하고 있다.

<표10, 그림7> 입국시기

입국시기	빈도(명)	(%)
1985~1990	23	16
1991~1995	43	30
1996~2000	53	38
2001~2005	11	8
2006년 이후	11	8
합계	14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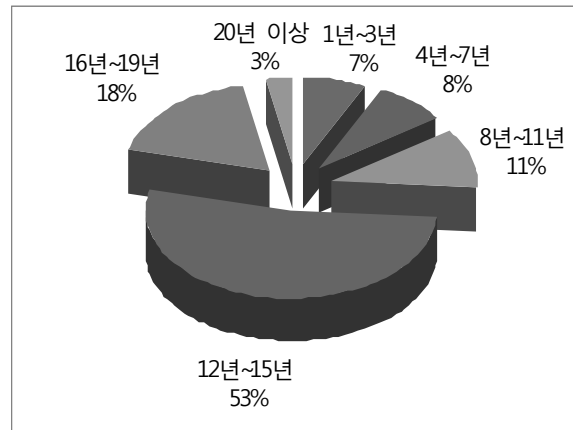


- 거주기간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11>와 같다. 는 응답자 144명 중 1년~3년 10명(7%), 4년~7년 11명(8%), 8년~11년 16명(11%), 12년~15년 74명(53%), 16년~19년 25명(18%), 2 는 이상 4명(3%)t년~3초등학교 4학년 이상<표자녀14돌 수 1는 거주기간인 12년 이상결과74%이다.

<표11, 그림8> 거주기간

거주기간	빈도(명)	백분율(%)
1년~3년	10	7
4년~7년	11	8
8년~11년	16	11
12년~15년	74	53
16년~19년	25	18
20년 이상	4	3
합계	14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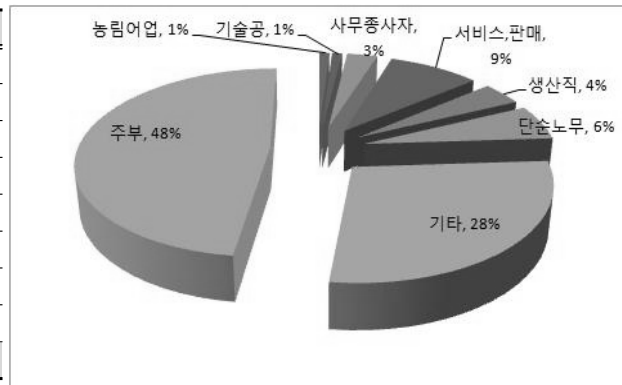
최소: 1년, 최대: 21년, 평균:12년



- 경제활동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12>와 같다. 전체 응답자 133명 중 농림어업 1명(1%), 기술공, 준 전문가 1명(1%), 사무종사자 4명(3%), 서비스 판매직 12명(9%), 생산직 5명(4%), 단순노무 8명(6%), 기타 37명(28%), 주부 65명(48%)이다. 이를 재분류하면, 농림어업에서 단순노무까지 31명(24%), 기타 37명(28%), 주부 65명(48%)로 나타났다.

<표12, 그림9> 직업

직업	빈도(명)	백분율(%)
농림어업	1	1
준전문가	1	1
사무종사자	4	3
서비스, 판매	12	9
생산직	5	4
단순노무	8	6
기타	37	28
주부	65	48
합계	1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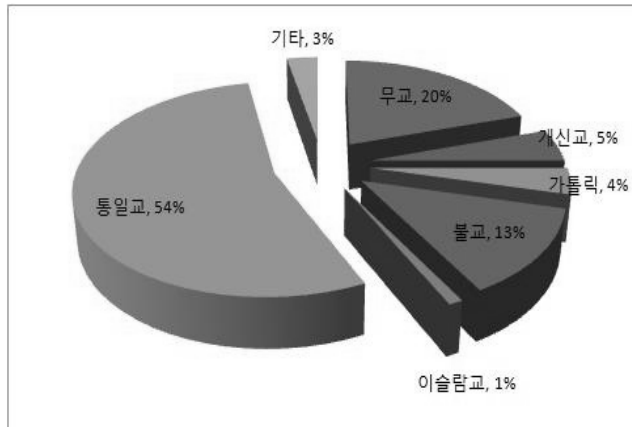


2) 배우자의 특성

- 결혼이민여성 배우자인 한국인 남편의 종교를 알아본 응답결과는 <표13>와 같다. 전체 응답자 117명 중 무교 23명(20%), 개신교 6명(5%), 카톨릭 5명(4%), 불교 15명(13%), 이슬람교 1명(1%), 통일교 64명(54%), 기타 3명(3%)이다.

<표13, 그림10> 배우자의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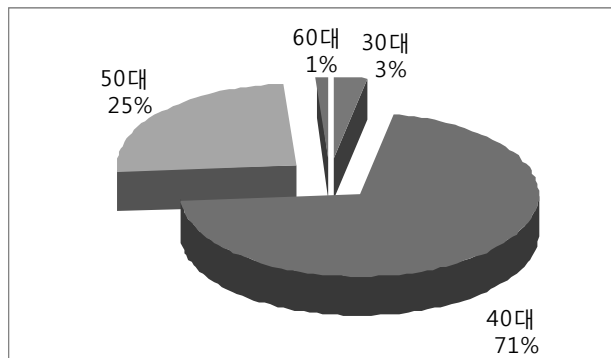
종교	빈도(명)	백분율(%)
무교	23	20
개신교	6	5
가톨릭	5	4
불교	15	13
이슬람교	1	1
통일교	64	54
기타	3	3
합계	117	100



- 연령에서는 30대 4명(3%), 40대 95명(71%), 50대 33명(25%), 60대 1명(1%)이며, 최소나이 38세에서 최대나이63세로 평균나이는 47세로 이들 부부의 평균 나이 차이는 5세이다.

<표14, 그림11> 배우자의 나이

연령	빈도(명)	백분율(%)
30대	4	3
40대	95	71
50대	33	25
60대	1	1
합계	1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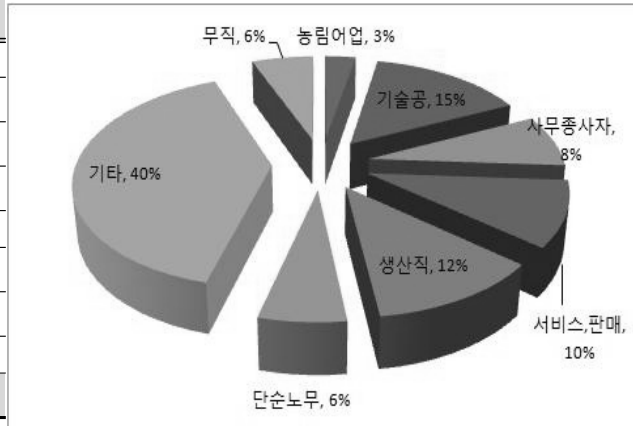


최소: 38세, 최대:63세 평균:47.6세

- 조사자의 배우자 직업에 관한 응답결과는 <표15>와 같다. 전체 응답자 130명 중 농림어업 4명(3%), 기술공, 준전문가 19명(15%), 사무종사자 10명(8%), 서비스, 판매 13명(10%), 생산직 15명(12%), 단순노무 8명(6%), 기타 53명(40%), 무직 8명(6%)이다.

<표15, 그림12> 배우자의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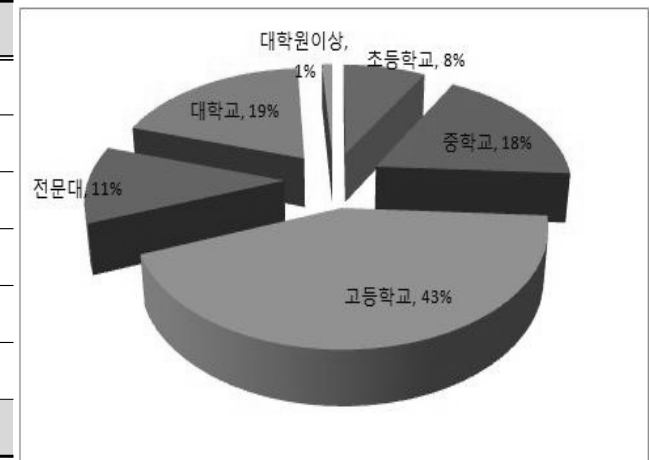
직업	빈도(명)	백분율(%)
농림어업	4	3
준전문가	19	15
사무종사자	10	8
서비스, 판매	13	10
생산직	15	12
단순노무	8	6
기타	53	40
무직	8	6
합계	130	100



-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60명(43%), 전문대 졸업 13명(10%), 대학교 졸업 24명(18%), 대학원 이상 1명(1%)로 조사자의 배우자의 고등교육 이수 비율은 72%, 아내의 고등교육 이수비율 92%와 비교하면 26%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6, 그림13> 배우자의 학력

학력	빈도(명)	백분율(%)
초등학교	12	9
중학교	25	19
고등학교	60	43
전문대	13	10
대학교	24	18
대학원이상	1	1
합계	14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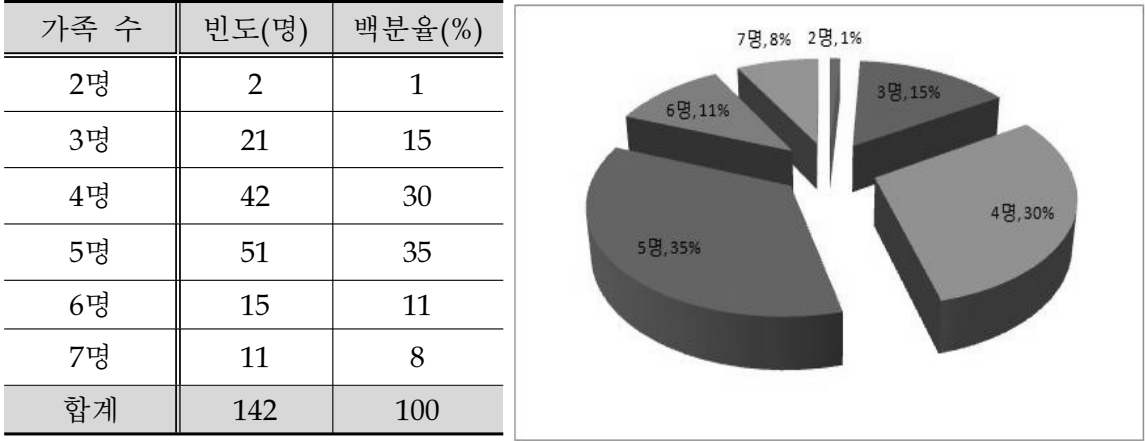


-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원 수는 전체 응답자 142명 중 2명(2명,1%), 3명(21명,15%), 4명(42명, 30%), 5명(51명,35%), 6명(15명,11%), 7명(11명,8%)으로 평균 가족원 수는 4.5명이다. 이는 우리나라 평균 가족원 수가 3명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는 이들의 결혼동기와 경로에서 찾을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 초창기 세대는 통일교의 교리 중 하나인 참-가정 실천 정신은 엄격한 낙태 제한과 다자녀 출산(3자녀 이상 출산)을 권장하기 때문일 수 있다. 가족원 수가 5명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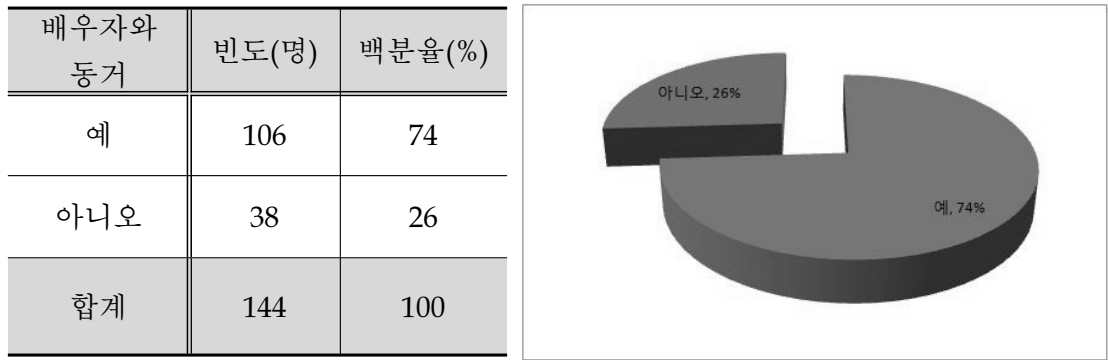
상인 가정이 55%이다.

<표17, 그림14> 동거가족 수



- 그 밖에도, 남편과의 동거 여부에 대한 응답에서는 전체 144명 중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이 106명(74%), 함께 살지 않는 가정 38명(26%)으로 나타났다.

<표18, 그림15> 배우자와의 동거여부



2. 차별 및 인권침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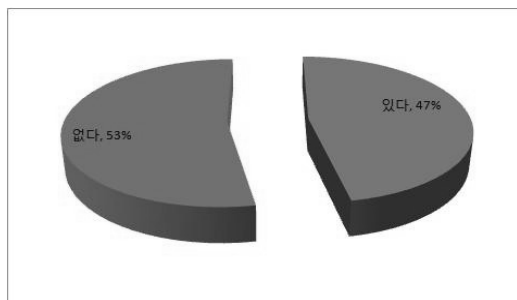
1) 차별경험

- 결혼이민으로 우리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차별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응답결과는 <표19>와 같다. 전체 응답자 139명 차별경험이 있다 65명(47%), 차별경

험이 없다 74%(53%)로 차별경험 없다가 9%로 높게 나타났지만 절반가량인 47%는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19, 그림16> 차별경험

차별경험	빈도(명)	백분율(%)
있다	65	47
없다	74	53
합계	13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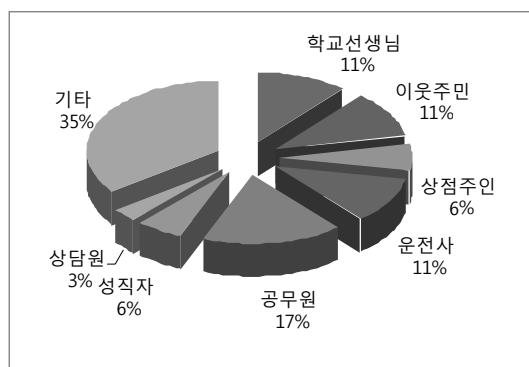


- 차별경험이 있는 65명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20>와 같다. 공무원 11명(17%), 이웃주민 7명(11%), 버스 택시 운전자 7명(11%), 학교 선생님 7명(11%), 상점주인 4명(6%), 목사 신부님 등 성직자 4명(6%), 다문화 지원 단체 및 상담원 2명(3%)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 높은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을 차별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공무원은 외국인 등록 및 관리, 행정적 업무차원에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고, 버스 택시 운전자들은 외형적으로 구분이 잘 안되지만 지리에 대해 이해가 부족가 부성들이 이동과정에서 가장 많이 부딪치게 되는 사람들로 서툰 언어를 쉽게 노출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은 거리상 근접하기 때문에 정보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표20, 그림17> 차별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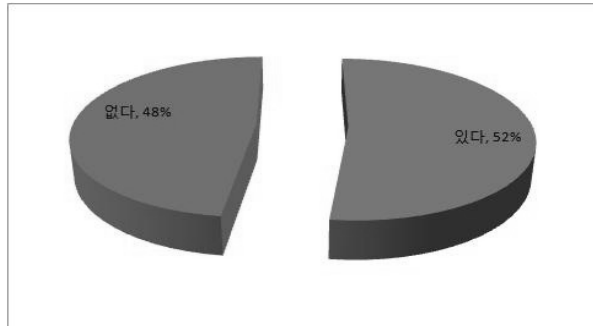
차별하는 사람	빈도(명)	백분율(%)
학교선생님	7	11
이웃주민	7	11
상점주인	4	6
운전자	7	11
공무원	11	17
성직자	4	6
상담원	2	3
기타	23	35
합계	65	100



- 차별을 경험하였을 때, 다른 사람과 상담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의 응답결과는 <표21>와 같다. 전체 응답자 122명 중 상담 경험이 있다 64명(52%), 상담경험이 없다 58명(48%)이다.

<표21, 그림18> 차별로 인한 상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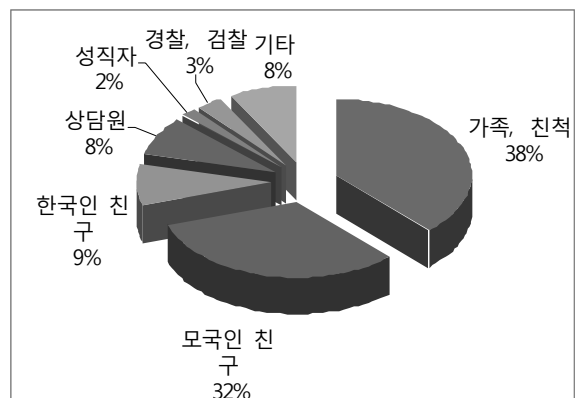
상담경험	빈도(명)	백분율(%)
있다	64	52
없다	58	48
합계	122	100



- 차별을 경험하였을 때의 상담한다는 64명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누구와 상담 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22>와 같다. 가족, 친척 25명(38%), 모국인 친구 21명(32%), 한국인 친구 6명(9%), 다문화 가정 지원 단체 및 상담원 5명(8%), 기타 3명(8%), 성직자 1명(2%)순이다. 결혼이민여성들이 차별을 경험하였을 때 상담하는 사람들은 생활영역에서 친밀감이 형성되는 가족이나 모국인 친구에게 상담한다는 경우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표22, 그림19> 차별을 받았을 때 상담자

상담자	빈도(명)	백분율(%)
가족, 친척	25	38
모국인 친구	21	32
한국인 친구	6	9
상담원	5	8
성직자	1	2
경찰, 검찰	2	3
기타	5	8
합계	65	100



2) 차별경험의 유형

- 직업이나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차별 경험이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23>와 같다. 전체 응답자 137명 중 전혀 그렇지 않다 32명(23%), 약간 그렇다 40명(29%), 그렇다 44명(32%), 매우 그렇다 21명(16%)이다. 이를 이분하면, 차별경험이 없는 경우가 52%, 차별경험이 있는 경우 48%이다.

- 같은 일을 해도 본국 사람보다 돈을 적게 받는다고 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23>와 같다. 전체 응답자 130명 중 전혀 그렇지 않다 53명(41%), 약간 그렇다 43명(33%), 그렇다 28명(22%), 매우 그렇다 6명(4%)이다. 이를 이분하면 동일 노동과 임금에 대한 차별 경험이 없다 73%, 차별 경험이 있다 2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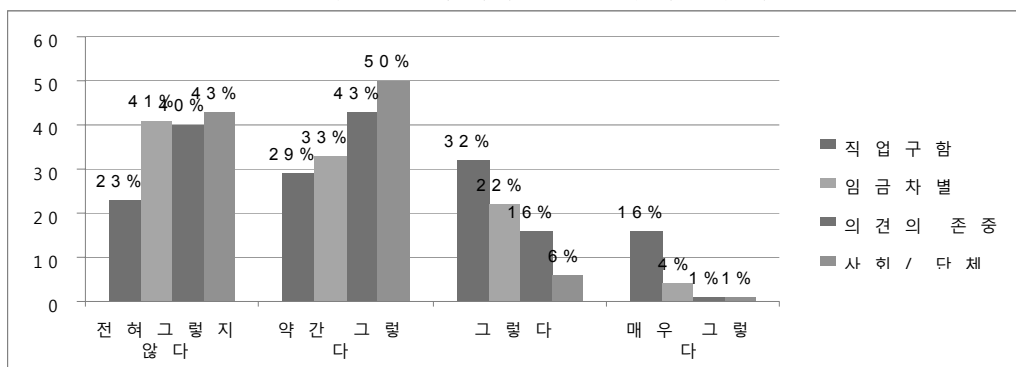
- 직장, 교회, 각종 공동체에서 내 의견을 존중받지 못 한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23>와 같다. 전체 응답자 134명 중 전혀 그렇지 않다 53명(40%), 약간 그렇다 58명(43%), 그렇다 22명(16%), 매우 그렇다 1명(1%)이다.

- '사회나 단체에서 차별을 받는다.'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23>와 같다. 전체 응답자 134명 중 전혀 그렇지 않다 58명(43%), 약간 그렇다 66명(50%), 그렇다 8명(6%), 매우 그렇다 2명(1%)이다.

<표23> 직업이나 직장을 구하는데 차별

차별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직업구함	32(23)	40(29)	44(32)	21(16)	137(100)
임금차별	53(41)	43(33)	28(22)	6(4)	130(100)
의견의 존중	53(40)	58(43)	22(16)	1(1)	134(100)
사회/ 단체	58(43)	66(50)	8(6)	2(1)	134(100)

<그림20> 직업이나 직장을 구하는데 차별



3.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및 교류

1) 지역사회에서의 교류

-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와 역할을 위해 이웃과 얼마나 교류하고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집을 비울 경우 아이를 맡기거나 집 보기 등을 부탁할 수 있다, 집안일을 서로 돕는다, 생활용품이나 가사도구 등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다,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다, 개인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할 수 있다, 일상생활이나 속상할 때 이야기 할 수 있다, 경조사에 참석한다.' 등과 같은 교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보았다.

-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지역사회에서 교류하는 내용의 문항은 7개이다. '최소1점 전혀 하지 않는다. 에서 최대 5점 매우 자주한다.'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이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지역사회에서 교류하는 최소 7, 최대 35, 평균= 14.37로 보통 수준에서 교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4> 지역사회에서의 교류 정도

차별경험	N=143
최소값	7
최대값	35
평균	14.37
표준편차	5.26

- 지역사회에서 교류를 자주한다고 응답한 66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교류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표25>와 같다. 이웃의 경조사에 참석 한다 23%, 집안일을 서로 돕는다 20%, 일상생활이나 속상할 때 이야기 할 수 있다 17%, 생활용품이나 가사도구 등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다 12%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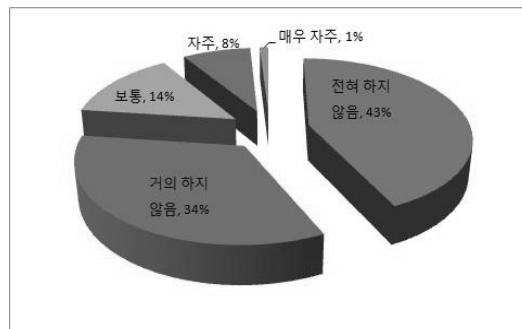
<표25> 지역사회에서 교류

지역사회에서 교류	빈도(명)	백분율(%)
집을 비울 경우 아이를 맡기거나 집 보기 부탁하기	3	4
집안일을 서로 돕기	13	20
생활용품이나 가사도구 등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다.	8	12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다.	6	9
개인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할 수 있다.	10	15
일상생활이나 속상할 때 이야기 할 수 있다.	11	17
경조사에 참석 한다.	15	23
합계	66	100

-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집을 비울 경우 아이를 맡기거나 집 보기 등을 부탁할 수 있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26>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4명 중 전혀 하지 않는다 67명(48%), 거의 하지 않는다 47명(33%), 보통이다 24명(17%), 자주한다 1명(1%), 매우 자주한다 1명(1%)로 이다. 결혼이민여성 81%정도는 집을 비울 경우 이웃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집 보기 등을 부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6, 그림21> 이웃에게 집을 비울 경우 아이를 맡기거나 집 보기 부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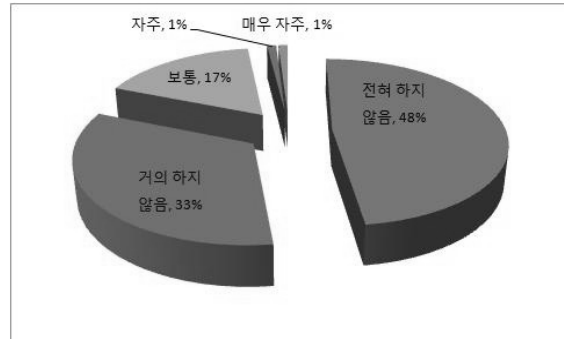
이웃교류	빈도(명)	백분율(%)
전혀 하지 않음	67	48
거의 하지 않음	47	33
보통	24	17
자주	1	1
매우 자주	1	1
합계	141	100



- 지역사회에서 이웃들에게 집안일을 서로 돕기를 부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27>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0명 중 전혀 하지 않는다 60명(43%), 거의 하지 않는다 47명(34%), 보통이다 20명(14%), 자주한다 11명(8%), 매우 자주한다 2명(1%)로 이다. 결혼이민여성 68%는 이웃들에게 집안일을 서로 돕기를 부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7, 그림22> 이웃에게 집안일을 서로 돕기를 부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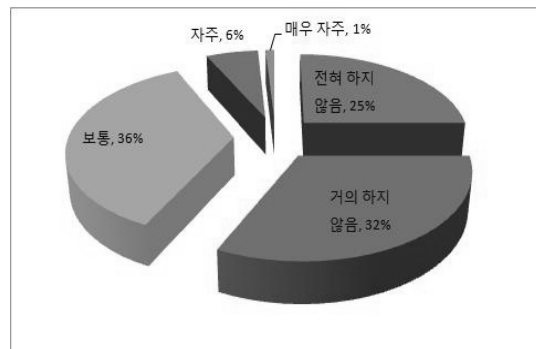
지역사회 교류	빈도(명)	백분율(%)
전혀 하지 않음	60	43
거의 하지 않음	47	34
보통	20	14
자주	11	8
매우 자주	2	1
합계	140	100



- 지역사회의 이웃들에게 가사 도구를 빌리거나 빌려주기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28>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0명 중 전혀 하지 않는다 57명(41%), 거의 하지 않는다 40명(29%), 보통이다 35명(25%), 자주 한다 6명(4%), 매우 자주 한다 2명(1%)로 이다. 결혼이민여성 70%는 이웃들과 가사 도구를 빌리거나 빌려주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8, 그림23> 이웃에게 생활용품이나 가사도구 등을 빌리거나 빌려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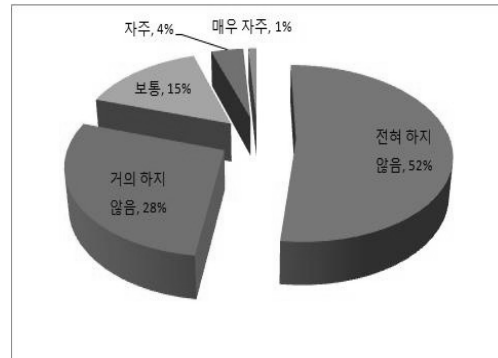
지역사회교류	빈도(명)	백분율(%)
전혀 하지 않음	57	41
거의 하지 않음	40	29
보통	35	25
자주	6	4
매우 자주	2	1
합계	140	100



- 지역사회의 이웃들에게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빌리거나 빌려주기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29>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0명 중 전혀 하지 않는다 74명(52%), 거의 하지 않는다 39명(28%), 보통이다 21명(15%), 자주 한다 5명(4%), 매우 자주 한다 1명(1%)로 이다. 결혼이민여성 81% 정도는 이웃들과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빌리거나 빌려주기를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9, 그림24> 이웃에게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빌리거나 빌려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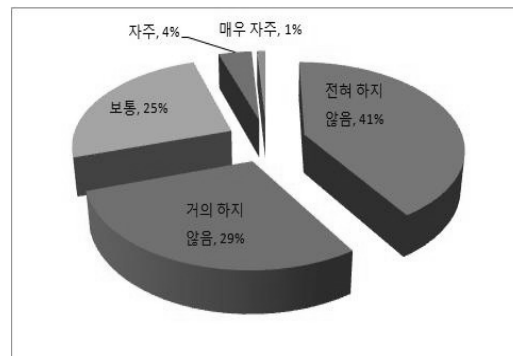
지역사회교류	빈도(명)	백분율(%)
전혀 하지 않음	74	52
거의 하지 않음	39	28
보통	21	15
자주	5	4
매우 자주	1	1
합계	140	100



- 지역사회에서 이웃에게 개인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하기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30>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0명 중 전혀 하지 않는다 43명(31%), 거의 하지 않는다 47명(33%), 보통이다 40명(29%), 자주 한다 8명(6%), 매우 자주 한다 2명(1%)로 이다. 결혼이민여성 64% 정도는 개인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웃과 의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0, 그림25> 이웃에게 개인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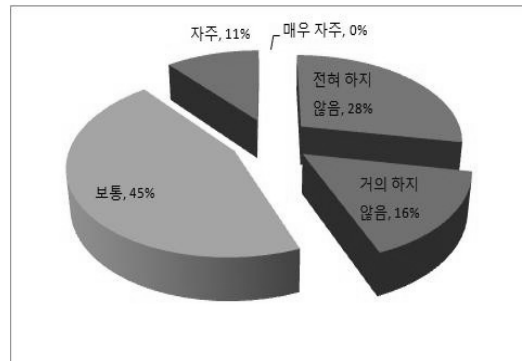
지역사회교류	빈도(명)	백분율(%)
전혀 하지 않음	43	31
거의 하지 않음	47	33
보통	40	29
자주	8	6
매우 자주	2	1
합계	140	100



- 지역사회에서 이웃에게 일상생활이나 속상할 때 이야기 하기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31>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0명 중 전혀 하지 않는다 35명(25%), 거의 하지 않는다 45명(32%), 보통이다 49명(36%), 자주 한다 9명(6%), 매우 자주 한다 2명(1%)로 이다. 결혼이민여성 57% 정도는 이웃에게 일상생활이나 속상할 때 이야기하기를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1, 그림26> 이웃에게 일상생활이나 속상할 때 이야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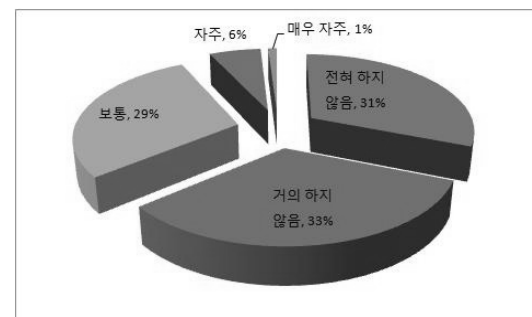
지역사회교류	빈도(명)	백분율(%)
전혀 하지 않음	35	25
거의 하지 않음	45	32
보통	49	36
자주	9	6
매우 자주	2	1
합계	140	100



- 지역사회에서 이웃의 경조사에 참석하기에 응답결과는 <표32>와 같다. 전체 응답자 139명 중 전혀 하지 않는다 39명(28%), 거의 하지 않는다 22명(16%), 보통이다 62명(45%), 자주 한다 15(11%)이다. 결혼이민여성 44% 정도는 이웃의 경조사를 참석하지 않는 반면 56%정도는 보통이거나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2,그림27>이웃의 경조사 참석

지역사회교류	빈도(명)	백분율(%)
전혀 하지 않음	39	28
거의 하지 않음	22	16
보통	62	45
자주	15	11
매우 자주	-	-
합계	139	100



- 종합하면, 결혼이민여성 81%정도는 집을 비울 경우 이웃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집 보기 등을 부탁하지 않았고, 77%는 이웃들에게 집안일을 서로 돕기를 부탁하지 않았으며, 70%는 이웃들과 가사 도구를 빌리거나 빌려주기를 하지 않았으며, 80% 정도는 이웃들과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빌리거나 빌려주기를 않았고, 64% 정도는 개인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웃과 의논하기를 않았으며, 57% 정도는 이웃에게 일상생활이나 속상할 때 이야기하기를 않았으며, 44% 정도는 이웃의 경조사를 참석하지 않았다.

아이를 맡기거나 집 보기를 부탁할 때, 급한 돈거래와 같은 상황에 대한 교류는

80%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집안일 돕기, 가사도구 교류, 어려운 일 상의하기 및 말 벗 하기 등은 50%이상 교류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이웃의 경조사에 56%정도가 참석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지역사회에서의 이웃과의 교류관계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2) 지역사회에서의 이웃과의 활동 및 이해

- 지역사회에서 이웃과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물음에 대한 응답은 <표33>와 같다.

- ‘나는 이웃들과 거의 왕래가 없다.’에 대한 응답결과 전체 140명 중 정말 그렇다 7명(5%), 그렇다 29명(21%), 보통이다 61명(43%), 별로 그렇지 않다 28명(20%), 전혀 그렇지 않다 15명(11%)이다. 이웃들과 거의 왕래 없음은 26%이며, 왕래하는 경우는 74%이다.

- ‘나는 이웃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무시당한다고 느낀다.’에 대한 응답결과 전체 139명 중 그렇다 4명(3%), 보통이다 20명(14%), 별로 그렇지 않다 56명(40%), 전혀 그렇지 않다 59명(43%)이다. 이웃에게 소외나 무시당함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83%였다.

- ‘나는 지역사회의 행사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에 대한 응답결과 전체 139명 중 정말 그렇다 7명(5%), 그렇다 23명(17%), 보통이다 57명(40%), 별로 그렇지 않다 36명(26%), 전혀 그렇지 않다 16명(12%)이다. 지역사회의 행사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22%이며, 그렇지 않는 경우 38%, 보통이다 40%이다. 실제로 결혼이민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행사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한 정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와 활동인지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을 것이나 적극적이지 않는 경우가 더 높았다.

- ‘이웃들이 나의 본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준다.’에 대한 응답결과 전체 137명 중 정말 그렇다 1명(1%), 그렇다 23명(17%), 보통이다 93명(68%), 별로 그렇지 않다 14명(10%), 전혀 그렇지 않다 6명(4%)이다. 지역사회의 사람들은 결혼이민여성 본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준 경우 18%이며, 그렇지 않는 경우 14%인 반면 보통이다는 68%로 나타났다. 보통이다가 매우 높게 나타난 이유는, 이제 우리사회의 다문화 가정은 일상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가정의 모습이기 때문일 수 있으며, 세계화로 인한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짐으로서 타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다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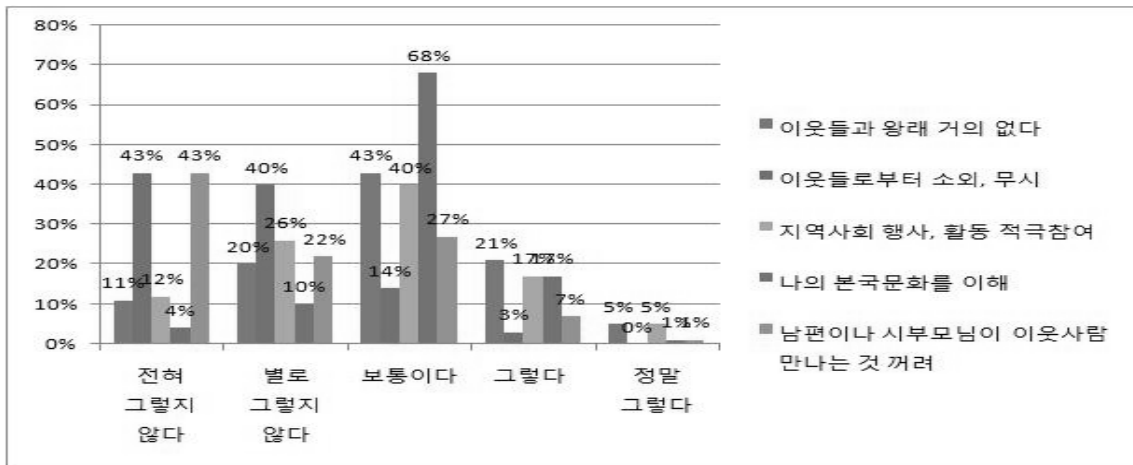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지역사회에서 활동이나 교류를 위해서는 집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이웃사람과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결과 전체 138명 중 정말 그렇다 1명(1%), 그렇다 9명(7%), 보통이다 37명(27%), 별로 그렇지 않다 31명(22%), 전혀 그렇지 않다 60명(43%)이다.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이웃사람과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8%이며, 그렇지 않는 경우 65%, 보통이다 27%이다. 이는, 결혼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다. 본 조사의 응답자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자녀를 둔 결혼이민여성들로서 결혼기간이 12년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가족 내에서 나름대로의 자신에 대한 위치가 확보된 상태이고, 시부모님과 동거하는 가족이 15%인 점을 감안한다면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33> 지역사회에서 활동이나 교류

응답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N (%)
이웃들과 왕래 거의 없다	15(11)	28(20)	61(43)	29(21)	7(5)	140(100)
이웃들로부터 무시, 소외	59(43)	56(40)	20(14)	4(3)	0(0)	139(100)
지역사회 행사, 활동 적극참여	16(12)	36(26)	57(40)	23(17)	7(5)	139(100)
나의 본국 문화를 이해	6(4)	14(10)	93(68)	23(17)	1(1)	137(100)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이웃사람만나는 것 꺼려	60(43)	31(22)	37(27)	9(7)	1(1)	138(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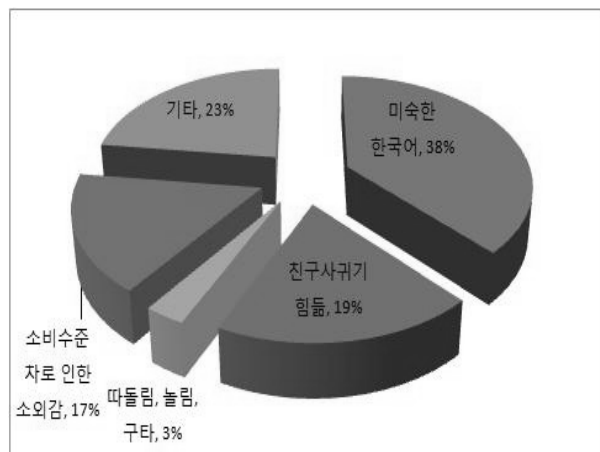
<그림28> 지역사회에서 활동이나 교류



- 지역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34>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5명 중 미숙한 한국어 55명(38%), 기타 34명(23%), 친구 사귀기 힘들 27명(19%), 소비수준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 25명(17%), 한국 사람들로 부터의 따돌림, 놀림, 구타당하는 것 5명(3%)순이었다.

<표34, 그림29> 지역사회에서 겪는 어려움

어려움	명	%
미숙한 한국어	55	38
친구 사귀기 힘들	27	19
따돌림, 놀림, 구타	5	3
소비수준 차로 인한 소외감	25	17
기타	34	23
합계	146	100



4. 자녀의 양육과 교육

1) 자녀 양육과 교육활동

-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자녀와의 의사소통, 자녀의 교우관계, 자녀의 학교성적, 나(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태도 등에 만족하는지를 알아보았다.

-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이에 대한 문항은 5개이다. '최소1점 매우불만족 에서 최대 5점 매우 만족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이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자녀양육 활동에 대한 만족은 최소 10, 최대 25, 평균=17.34로 만족한 수준이었다.

<표35> 자녀와의 활동 만족도

자녀와의 활동만족	N=134
최소값	5.0
최대값	17
평균	6.58
표준편차	2.27

-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만족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36>과 같다. 전체 응답자 145명 중 매우 불만족 2명(1%), 불만족 20명(14%), 보통이다 63명(43%), 만족한다 36명(25%), 매우 불만족 24명(17%)이다. 16%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불만족하고 있는 반면 42%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만족하고 있었다.

-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36>과 같다. 전체 응답자 144명 중 불만족 19명(13%), 보통이다 48명(33%), 만족 한다 54명(38%), 매우 불만족 23명(16%)이다. 13%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불만족하지만 54%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자녀의 교우관계의 만족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36>과 같다. 전체 응답자 144명 중 불만족 9명(6%), 보통이다 70명(49%), 만족 한다 50명(35%), 매우 만족 15명(10%)이다. 6%는 자녀의 교우관계에 불만족하지만 45%는 자녀의 교우관계에 만족하고 49%는 보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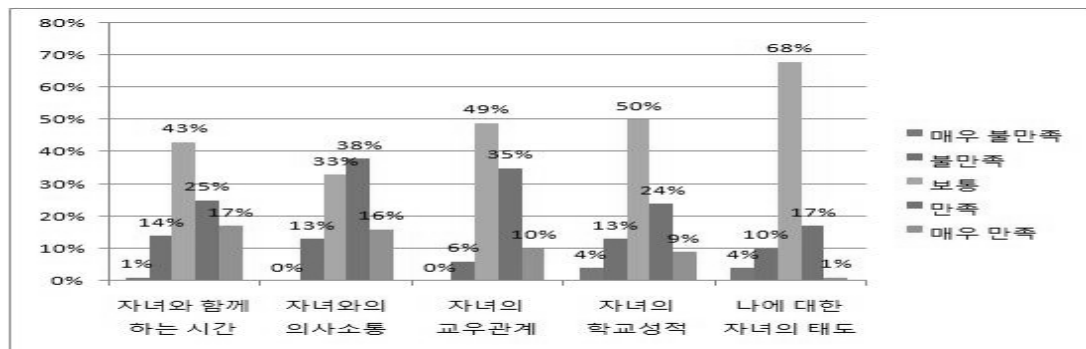
- 자녀의 학교성적 만족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36>과 같다. 전체 응답자 142명 중 매우 불만족 5명(4%), 불만족 19명(13%), 보통이다 71명(50%), 만족 한다 34명(24%), 매우 만족 13명(9%)이다. 7%는 자녀의 학교성적에 불만족하지만 33%는 자녀의 학교성적에 만족하였고 50%는 보통이었다.

- 나(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36>과 같다. 전체 응답자 131명 중 매우 불만족 3명(2%), 불만족 9명(7%), 보통이다 59명(45%), 만족 한다 42명(32%), 매우 만족 18명(14)이다. 9%는 어머니를 대하는 자녀의 태도에 불만족하고 있는 반면 46%는 만족하였고 45%는 보통이었다.

<표36> 자녀와 관련된 활동내용

응답내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N(%)
자녀와의 시간	2(1)	20(14)	63(43)	36(25)	24(17)	145(100)
자녀와의 의사소통	0(0)	19(13)	48(33)	54(38)	23(16)	144(100)
자녀의 교우관계	0(0)	9(6)	70(49)	50(35)	15(10)	144(100)
자녀의 학교성적	5(4)	19(13)	71(50)	34(24)	13(9)	142(100)
나에 대한 자녀의 태도	3(2)	9(7)	59(45)	42(32)	18(14)	13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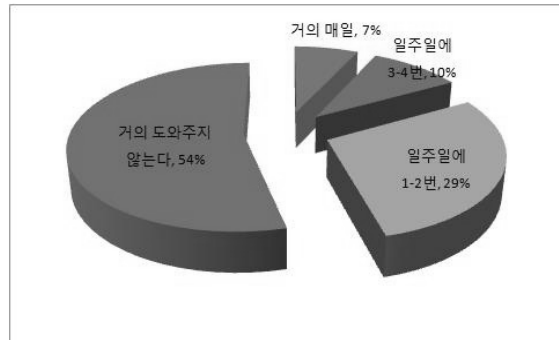
<그림30> 자녀와 관련된 활동내용



-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는 빈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37>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7명 중 거의 도와주지 않는다 80명(54%), 일주일에 1-2번 42명(29%), 일주일에 3-4번 15명 (10%), 거의 매일 10명(7%)이다. 거의 도와주지 않는 비율이 54%로 가장 많고, 일주일 단위 39%이며, 거의 매일 7%이다.

<표37, 그림31>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는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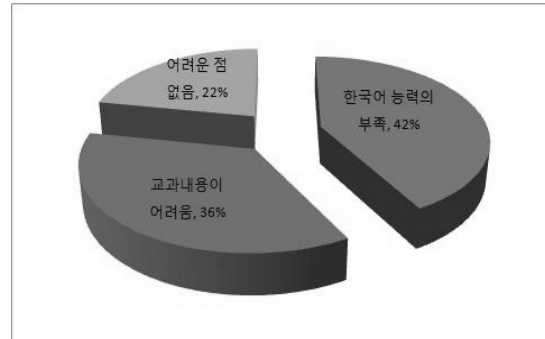
숙제	빈도(명)	백분율(%)
거의 매일	10	7
일주일에 3-4번	15	10
일주일에 1-2번	42	29
거의 도와주지 않는다	80	54
합계	147	100



- 자녀의 숙제를 도와줄 때 어려움 점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38>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2명 중 한국어의 능력이 부족해서 60명(42%), 교과내용이 어려워서 51명(36%), 어려운 점이 없음 31명(22%)이다. 한국어 능력의 어려움과 교과내용의 어려움의 문제는 언어적 이해를 전제로 하는 공동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비율은 78%를 차지하고 있다.

<표38, 그림32> 숙제를 도와줄 때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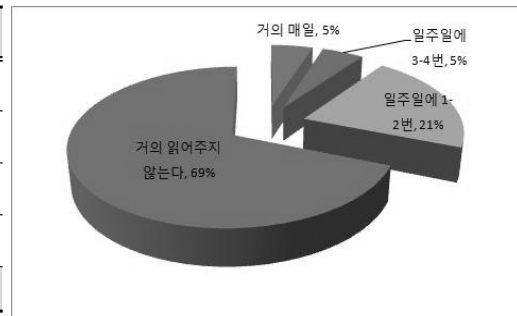
숙제어려움	빈도(명)	백분율(%)
한국어 능력의 부족	60	42
교과내용이 어려움	51	36
어려운 점 없음	31	22
합계	142	100



-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빈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39>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4명 중 거의 읽어주지 않는다 100명(69%), 일주일에 1-2번 30명(21%), 일주일에 3-4번 7명(5%), 거의매일 7명(5%)이다.

<표39, 그림33> 책 읽어주기 빈도

책 읽어 주기	빈도(명)	백분율(%)
거의 매일	7	5
일주일에 3-4번	7	5
일주일에 1-2번	30	21
거의 읽어주지 않는다	100	69
합계	144	100



2)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참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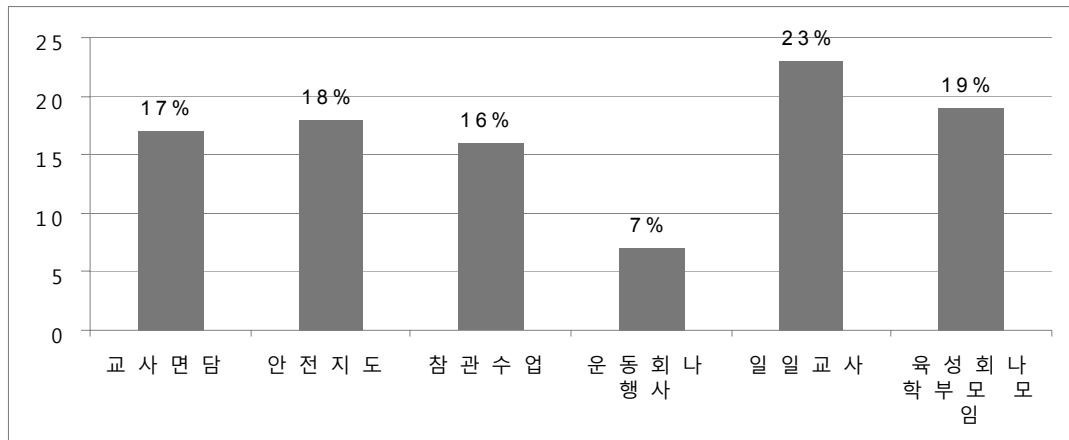
- 자녀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들 중 어머니의 참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교사면담, 안전지도, 참관수업, 운동회나 행사, 일일교사, 육성회나 학부모 모임 등의 활동에 대한 참석정도를 알아보았다.

- 자녀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들 중 교사면담17%, 안전지도18%, 참관수업16%, 운동회나 행사 7%, 일일교사 23%, 육성회나 학부모 모임 19% 가 참석하고 있었으며, 일일교사 활동에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운동회나 각종 학교행사는 가장 소극적이었다.

<표40> 학교활동

학교활동	백분율(%)
교사면담	17
안전지도	18
참관수업	16
운동회나 행사	7
일일교사	23
육성회나 학부모 모임	19

<그림34> 학교활동



- 학교 선생님과 면담 참석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41>과 같다. 전체 응답자 144명 중 매우 많이 참석함 35명(24%), 많이 참석함 53명(37%), 보통으로 참석함 42명(29%), 별로 참석안함 10명(7%), 전혀 안함 4명(3%)이다. 61%는 자녀의 학교 선생님과 면담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었으며, 10%는 면담을 참석 하지 않았으며, 29%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 안전지도 참석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41>과 같다. 전체 응답자 140명 중 매우 많이 참석함 48명(34%), 많이 참석함 44명(31%), 보통으로 참석함 40명(29%), 별로 참석안함 6명(5%), 전혀 안함 2명(1%)이다. 64%는 안전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었으며, 5%는 참석하지 않는 편이며, 29%는 보통이었다.

- 참관수업에 대한 참여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41>과 같다. 전체 응답자 141명 중 매우 많이 참석함 37명(26%), 많이 참석함 45명(32%), 보통으로 참석함 40명(28%), 별로 참석안함 15명(11%), 전혀 안함 4명(3%)이다. 58%는 참관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지만 14%는 참석하지 않는 편이었고, 28%는 보통이었다.

- 운동회나 행사에 대한 참여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41>과 같다. 전체 응답자 146명 중 매우 많이 참석함 15명(10%), 많이 참석함 25명(17%), 보통으로 참석함 49명(34%), 별로 참석안함 38명(26%), 전혀 안함 19(13%)이다. 27%는 운동회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지만 39%는 참석하지 않는 편이었고, 34%는 보통이었다.

- 일일교사 참여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41>과 같다. 전체 응답자 136명 중 매우 많이 참석함 72명(53%), 많이 참석함 44명(32%), 보통으로 참석함 16명(12%), 별로 참석안함 3명(2%), 전혀 안함 1명(1%)이다. 85%는 일일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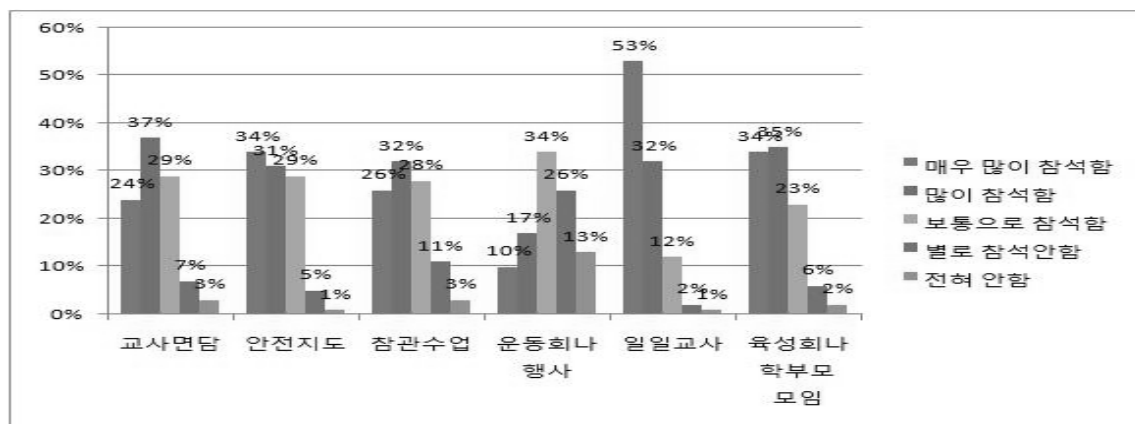
하고 있었지만 3%는 참석하지 않는 편이었고, 12%는 보통이었다. 일일교사에 대한 참석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육성회나 학부모 모임의 참여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41>과 같다. 전체 응답자 140명 중 매우 많이 참석함 47명(34%), 많이 참석함 49명(35%), 보통으로 참석함 32명(23%), 별로 참석안함 9명(6%), 전혀 안함 3명(2%)이다. 69%는 육성회나 학부모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지만 8%는 참석하지 않는 편이었고, 23%는 보통이었다.

<표41> 자녀의 학교활동 참석

응답내용	매우 많이 참석함	많이 참석함	보통으로 참석함	별로 참석안함	전혀 안함	N(%)
교사면담	35(24)	53(37)	42(29)	10(7)	4(3)	144(100)
안전지도	48(34)	44(31)	40(29)	6(5)	2(1)	140(100)
참관수업	37(26)	45(32)	40(28)	15(11)	4(3)	141(100)
운동회나 행사	15(10)	25(17)	49(34)	38(26)	19(13)	146(100)
일일교사	72(53)	44(32)	16(12)	3(2)	1(1)	136(100)
육성회나 학부모 모임	47(34)	49(35)	32(23)	9(6)	3(2)	14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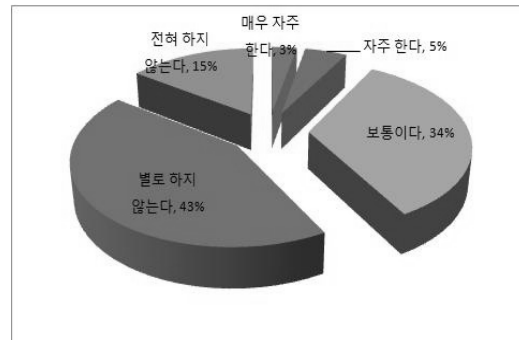
<그림35> 자녀의 학교활동 참석



- 자녀의 선생님과 연락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42>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7명 중 매우 자주 한다 4명(3%), 자주 한다 8명(5%), 보통이다 50명(34%), 별로 하지 않는다 63명(43%), 전혀 하지 않는다 22명(15%)이다. 8%만이 자녀의 학교 선생님과 자주 연락하고 58%는 연락하지 않는 편이며, 34%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표42, 그림36> 자녀의 선생님과 연락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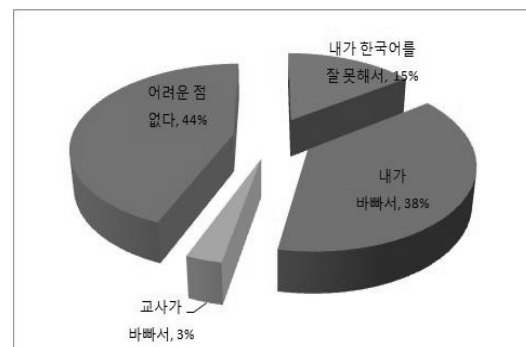
선생님과 연락	빈도(명)	백분율(%)
매우 자주 한다	4	3
자주 한다	8	5
보통이다	50	34
별로 하지 않는다	63	43
전혀 하지 않는다	22	15
합계	147	100



- 자녀의 선생님과 얘기 할 때 어려운 점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43>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0명 중 어려운 점이 없다 62명(44%), 내가 바빠서 53명(38%), 내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 21명(15%), 교사가 바빠서 4명(3%)이다.

<표43, 그림37> 자녀의 선생님과 얘기할 때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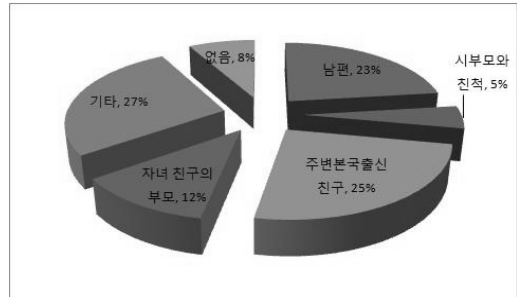
교사상담	빈도(명)	백분율(%)
내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	21	15
내가 바빠서	53	38
교사가 바빠서	4	3
어려운 점 없다	62	44
합계	140	100



-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가장 도움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44>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6명 중 기타 39명(27%), 남편 34명(23%), 주변 본국 출신 친구 37명(25%), 자녀 친구의 부모 18명(12%), 없음 11명(8%), 시부모와 친척 7명(5%)이다. 이외에도 신문, 인터넷, 주변사람, 학습지 교사, 한국친구, 회사동료들에게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었다.

<표44, 그림38>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 얻는데 도움 받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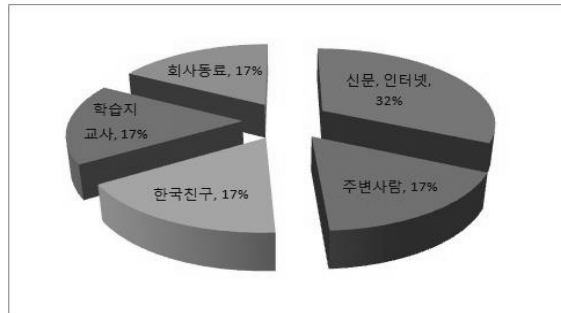
도움	빈도(명)	백분율(%)
남편	34	23
시부모와 친척	7	5
주변본국출신친구	37	25
자녀 친구의 부모	18	12
기타	39	27
없음	11	8
합계	146	100



- 그 밖에도 신문, 인터넷, 주변사람, 한국사람, 학습지 교사 등이다.

<표45, 그림39> 그 밖에 정보를 얻는 부분

그 외 도움	빈도(명)	백분율(%)
신문, 인터넷	2	32
주변사람	1	17
한국친구	1	17
학습지 교사	1	17
회사동료	1	17
합계	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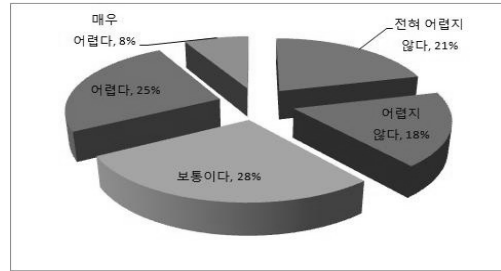
3) 자녀양육과 교육과정 어려움

- 자녀양육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자녀를 돌보아줄 사람,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 자녀양육/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 숙제도와주기/학습준비. -
- 자녀의 생활지도, 자녀의 이성교제, 자녀의 인터넷 중독 또는 흡연, 자녀의 폭력행동, 자녀와의 의사소통, 자녀와 나의 갈등, 자녀와 남편사이의 갈등, 나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음 등에 대한 어려움 정도를 알아보았다.

-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에 대한 어려움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46>와 같다. 전체 응답자 114명 중 전혀 어렵지 않다 24명(21%), 어렵지 않다 21명(18%), 보통이다 32명(28%), 어렵다 28명(25%), 매우 어렵다 9명(8%)이다. 39%는 자녀 양육과정에서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지만 33%는 어려우며, 28%는 보통이다.

<표46, 그림40>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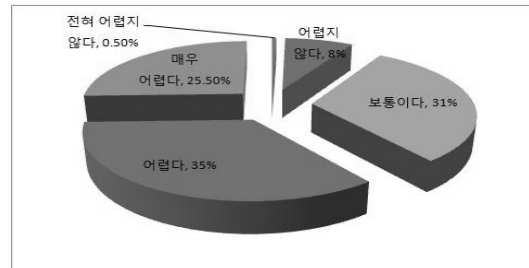
사람	빈도(명)	백분율(%)
전혀 어렵지 않다	24	21
어렵지 않다	21	18
보통이다	32	28
어렵다	28	25
매우 어렵다	9	8
합계	114	100



-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에 대한 어려움 정도의 응답 결과는 <표47>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0명 중 전혀 어렵지 않다 1명(1%), 어렵지 않다 11명(8%), 보통이다 43명(31%), 어렵다 49명(35%), 매우 어렵다 36명(26%)이다. 9%는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에 대한 어려움 없고, 31%는 보통, 61%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47, 그림41>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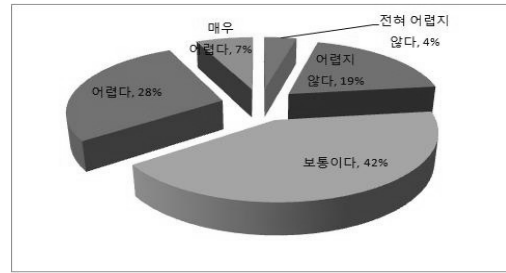
양육비용	빈도(명)	백분율(%)
전혀 어렵지 않다	1	0.5
어렵지 않다	11	8
보통이다	43	31
어렵다	49	35
매우 어렵다	36	25.5
합계	140	100



-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정도의 응답 결과는 <표48>와 같다. 전체 응답자 138명 중 전혀 어렵지 않다 5명(4%), 어렵지 않다 26명(19%), 보통이다 59명(42%), 어렵다 38명(28%), 매우 어렵다 10명(7%)이다.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정보부족의 어려움을 23%는 겪지 않지만 35%는 겪고 있었으며 42%는 보통이다.

<표48, 그림42> 자녀양육·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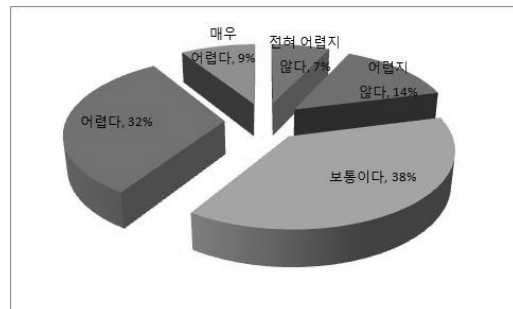
정보부족	빈도(명)	백분율(%)
전혀 어렵지 않다	5	4
어렵지 않다	26	19
보통이다	59	42
어렵다	38	28
매우 어렵다	10	7
합계	138	100



- 자녀의 숙제 도와주기 및 학습준비에 대한 어려움 정도의 응답 결과는 <표49>와 같다. 전체 응답자 139명 중 전혀 어렵지 않다 10명(7%), 어렵지 않다 20명(14%), 보통이다 52명(38%), 어렵다 44명(32%), 매우 어렵다 13명(9%)이다. 21%는 자녀 숙제 도와주기 및 학습준비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으나 41%는 어려움이 많은 편이고 38%는 보통임을 알 수 있다.

<표49, 그림43> 숙제도와주기·학습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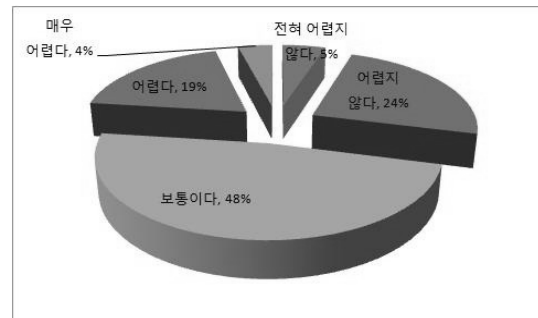
학습	빈도(명)	백분율(%)
전혀 어렵지 않다	10	7
어렵지 않다	20	14
보통이다	52	38
어렵다	44	32
매우 어렵다	13	9
합계	139	100



- 자녀의 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 정도의 응답 결과는 <표50>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0명 중 전혀 어렵지 않다 7명(5%), 어렵지 않다 33명(24%), 보통이다 68명(48%), 어렵다 26명(19%), 매우 어렵다 6명(4%)이다. 29%는 자녀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23%는 어려움이 많은 편이고, 48%는 보통임을 알 수 있다.

<표50, 그림44>자녀의 생활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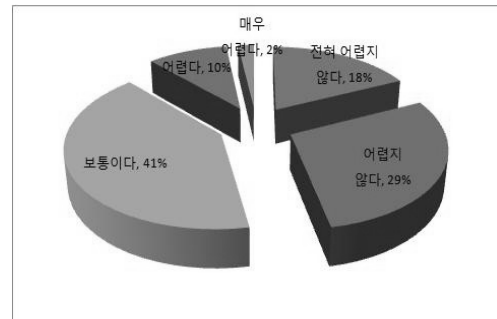
생활지도	빈도(명)	백분율(%)
전혀 어렵지 않다	7	5
어렵지 않다	33	24
보통이다	68	48
어렵다	26	19
매우 어렵다	6	4
합계	140	100



-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한 어려움 정도의 응답 결과는 <표51>와 같다. 전체 응답자 112명 중 전혀 어렵지 않다 20명(18%), 어렵지 않다 32명(29%), 보통이다 47명(41%), 어렵다 11명(10%), 매우 어렵다 2명(2%)이다. 47%는 자녀의 이성교제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13%는 어려움이 많은 편이고, 41%는 보통임을 알 수 있다.

<표51, 그림45>자녀의 이성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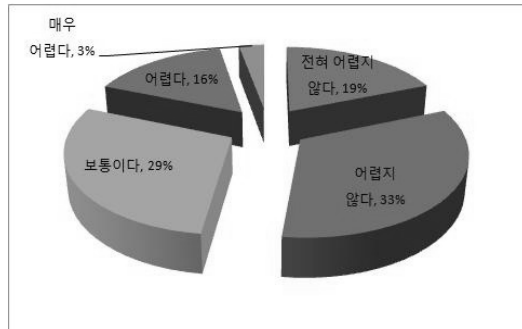
이성교제	빈도(명)	백분율(%)
전혀 어렵지 않다	20	18
어렵지 않다	32	29
보통이다	47	41
어렵다	11	10
매우 어렵다	2	2
합계	112	100



- 자녀의 인터넷 중독 또는 흡연에 대한 어려움 정도의 응답 결과는 <표52>과 같다. 전체 응답자 106명 중 전혀 어렵지 않다 20명(19%), 어렵지 않다 35명(33%), 보통이다 31명(29%), 어렵다 17명(16%), 매우 어렵다 3명(3%)이다. 52%는 자녀의 인터넷 중독 또는 흡연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으나 19%는 어려움이 많은 편이고, 29%는 보통이었다.

<표52, 그림46> 자녀의 인터넷 중독 또는 흡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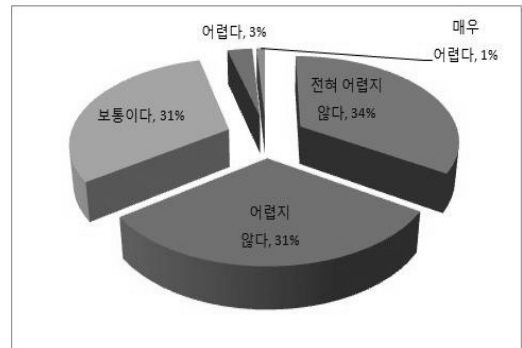
중독 흡연	빈도(명)	백분율(%)
전혀 어렵지 않다	20	19
어렵지 않다	35	33
보통이다	31	29
어렵다	17	16
매우 어렵다	3	3
합계	106	100



- 자녀의 폭력 행동에 대한 어려움 정도의 응답 결과는 <표53>과 같다. 전체 응답자 88명 중 전혀 어렵지 않다 30명(34%), 어렵지 않다 27명(31%), 보통이다 27명(31%), 어렵다 3명(3%), 매우 어렵다 1명(1%)이다. 65%는 자녀의 폭력행동에 대해 어려움이 없었으나 4%는 어려움이 많은 편이고, 31%는 보통이었다.

<표53, 그림47> 자녀의 폭력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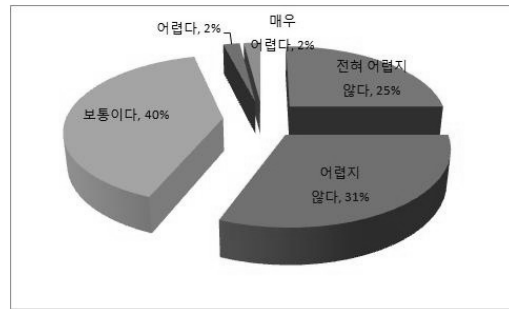
폭력행동	빈도(명)	백분율(%)
전혀 어렵지 않다	30	34
어렵지 않다	27	31
보통이다	27	31
어렵다	3	3
매우 어렵다	1	1
합계	88	100



-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 정도의 응답 결과는 <표54>와 같다. 전체 응답자 129명 중 전혀 어렵지 않다 32명(25%), 어렵지 않다 40명(31%), 보통이다 52명(40%), 어렵다 3명(2%), 매우 어렵다 2명(2%)이다. 56%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4%는 어려움이 많은 편이고, 40%는 보통이었다.

<표54, 그림48> 자녀와의 의사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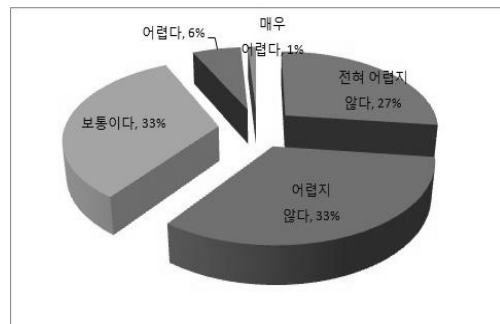
의사소통	빈도(명)	백분율(%)
전혀 어렵지 않다	32	25
어렵지 않다	40	31
보통이다	52	40
어렵다	3	2
매우 어렵다	2	2
합계	129	100



- 자녀와의 나의 갈등 대한 어려움 정도의 응답 결과는 <표55>과 같다. 전체 응답자 120명 중 전혀 어렵지 않다 33명(27%), 어렵지 않다 40명(33%), 보통이다 39명(33%), 어렵다 7명(6%), 매우 어렵다 1명(1%)이다. 60%는 자녀와 갈등이 없었지만 7%는 어려움이 많은 편이고, 33%는 보통이었다.

<표55, 그림49> 자녀와 나의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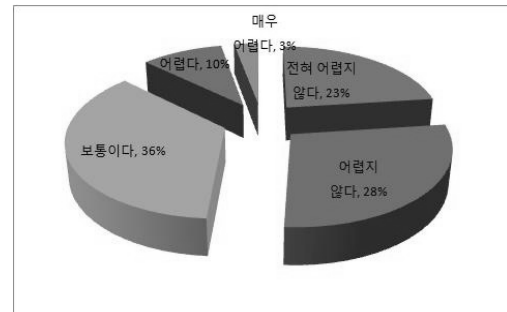
모자갈등	빈도(명)	백분율(%)
전혀 어렵지 않다	33	27
어렵지 않다	40	33
보통이다	39	33
어렵다	7	6
매우 어렵다	1	1
합계	120	100



- 자녀와 남편사이의 갈등 어려움 정도의 응답 결과는 <표56>와 같다. 전체 응답자 121명 중 전혀 어렵지 않다 28명(23%), 어렵지 않다 34명(28%), 보통이다 43명(36%), 어렵다 12명(10%), 매우 어렵다 4명(3%)이다. 51%는 자녀와 남편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며 13%는 어려움이 많은 편이고, 36%는 보통이었다.

<표56, 그림50> 자녀와 남편사이의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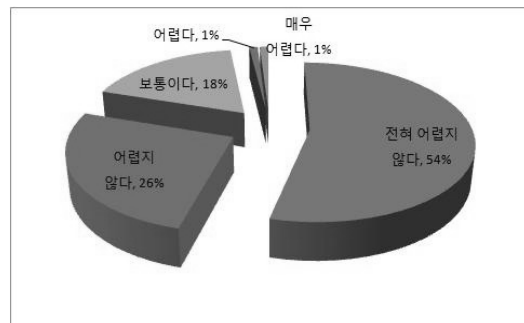
부자갈등	빈도(명)	백분율(%)
전혀 어렵지 않다	28	23
어렵지 않다	34	28
보통이다	43	36
어렵다	12	10
매우 어렵다	4	3
합계	121	100



- 나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한 어려움 정도의 응답 결과는 <표57>와 같다. 전체 응답자 100명 중 전혀 어렵지 않다 42명(54%), 어렵지 않다 20명(26%), 보통이다 14명(18%), 어렵다 1명(1%), 매우 어렵다 1명(1%)이다.

<표57, 그림51> 나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음

모친불인정	빈도(명)	백분율(%)
전혀 어렵지 않다	42	54
어렵지 않다	20	26
보통이다	14	18
어렵다	1	1
매우 어렵다	1	1
합계	78	100



5. 자녀의 학교생활

1) 학교생활에 대한 자녀의 적응정도

-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자녀의 학교생활의 호감 정도에 대해 자녀가 학교생활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가와 학교에 잘 적응하는가에 대해 매우 좋아한다 1점에서 매우 싫어한다 5점까지이다. 2문항으로 구성된 학교생활 호감도를 합산한 평균을 초등, 중등, 고등학교별로 집단 간 평균비교를 하였다. 결과는 <표58>와 같다. 학교생활과 적응에 대한 호감도는 고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이 가장 낮았다.

<표58> 자녀연령별 학교 호감 및 적응

학교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초등학교	2.08	118	.76
중학교	2.17	26	.70
고등학교	2.00	3	.00
합계	2.10	147	.74

- 이를 어머니의 출신국가별로 집단 간 평균비교 결과는 <표59>와 같다. 학교생활과 적응에 대한 호감도는 일본 및 중국 출신의 어머니 자녀들이 2.11, 필리핀, 베트남 2.14, 기타(몽골, 우즈베키스탄, 북한, 독일 등) 1.75로 나타났다. 기타 국가 출신의 자녀가 학교 호감도 및 적응이 가장 좋고, 필리핀, 베트남, 태국 출신의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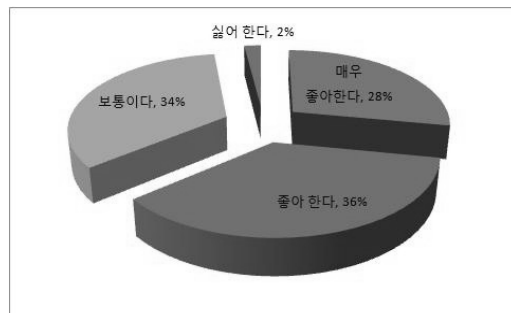
<표59> 어머니 출신국가별 학교 호감 및 적응

출신국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일본, 중국	2.11	127	.75
필리핀, 베트남, 태국	2.14	17	.58
기타	1.75	8	.65
합계	2.10	152	.73

- 자녀의 학교생활의 호감정도 대한 응답결과는 <표60>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8명 중 매우 좋아한다 41명(28%), 좋아한다 54명(36%), 보통이다 50명(34%), 싫어한다 3명(2%)이다. 이를 재정리하면 좋아한다 64%, 보통이다 34%, 싫어한다 2%이다. 결혼 이민여성의 자녀 대부분은 학교생활에 대한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60, 그림52>자녀의 학교생활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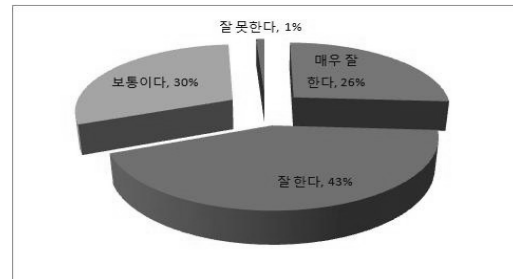
학교호감도	빈도(명)	백분율(%)
매우 좋아 한다	41	28
좋아 한다	54	36
보통이다	50	34
싫어 한다	3	2
합계	148	100



- ‘자녀가 학교에 적응을 잘한다고 생각 하십니까.’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61>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8명 중 매우 잘 한다 38명(26%), 잘 한다 63명(43%), 보통이다 45명(30%), 잘 못한다 2명(1%)이다. 이를 재정리하면 잘 한다 69%, 보통이다 30%, 잘 못한다 1%이다. 결혼이민여성의 자녀 대부분은 학교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1, 그림53>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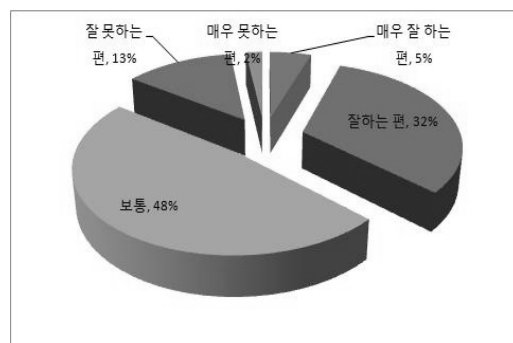
학교적응도	빈도(명)	백분율(%)
매우 잘 한다	38	26
잘 한다	63	43
보통이다	45	30
잘 못한다	2	1
합계	148	100



- 자녀의 성적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62>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6명 중 매우 잘 하는 편이다 7명(5%), 잘 하는 편 46명(32%), 보통이다 71명(48%), 잘 못하는 편 19명(13%), 매우 못하는 편이다 3명(2%)이다. 이를 재정리하면 잘하는 편 37%, 보통이다 48%, 못하는 편 15%이다.

<표62, 그림54> 자녀의 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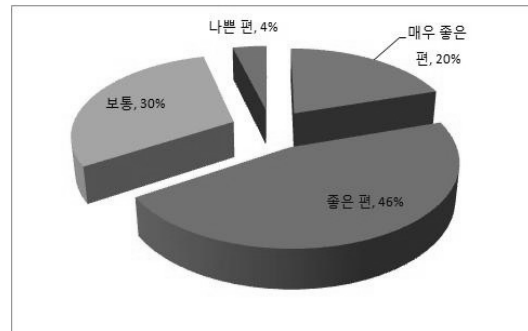
성적	빈도(명)	백분율(%)
매우 잘하는 편	7	5
잘하는 편	46	32
보통	71	48
잘 못 하는 편	19	13
매우 못하는 편	3	2
합계	146	100



-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63>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7명 중 매우 좋은 편이다 29명(20%), 좋은 편이다 68명(46%), 보통이다 44명(30%), 나쁜 편이다 6명(4%)이다. 이를 재정리하면 결혼이민여성 자녀의 친구 관계가 좋은 편이다 66%, 보통이다 30%, 나쁜 편이다 4%이다.

<표63, 그림55> 자녀의 친구들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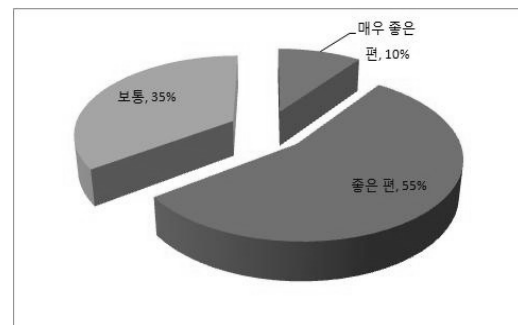
친구관계	빈도(명)	백분율(%)
매우 좋은 편	29	20
좋은 편	68	46
보통	44	30
나쁜 편	6	4
합계	147	100



- 자녀와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64>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8명 중 매우 좋은 편이다 15명(10%), 좋은 편이다 81명(55%), 보통이다 52명(35%)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와 교사와의 관계는 좋은 편이다 65%, 보통이다 35%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와 교사와의 관계는 좋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64, 그림56> 자녀와 교사와의 관계

교사관계	빈도(명)	백분율(%)
매우 좋은 편	15	10
좋은 편	81	55
보통	52	35
합계	14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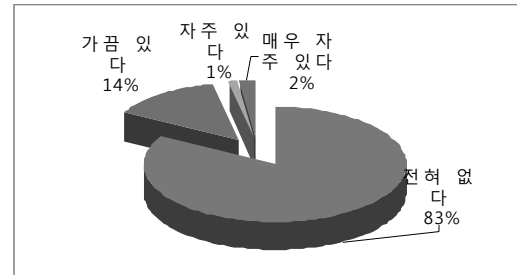


2) 학교에서의 피해경험

- 학교에서 욕설·협박·모욕 피해에 대한 결과는 <표65>와 같다. 전체 응답자 138명 중 전혀 없다 115명(83%), 가끔 있다 19명(14%)자주 있다 1명(1%), 매우 자주 있다 3명(2%)이다.

<표65, 그림57> 학교에서 욕설·협박·모욕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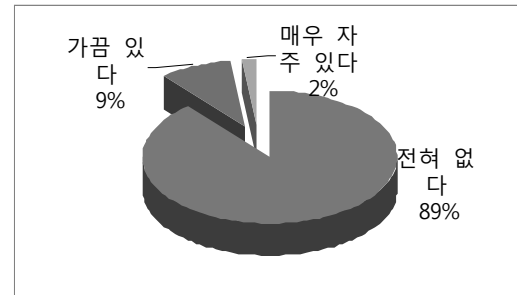
피해	빈도(명)	백분율(%)
전혀 없다	115	83
가끔 있다	19	14
자주 있다	1	1
매우 자주 있다	3	2
합계	138	100



- 학교에서 돈·물건 빼앗김에 대한 결과는 <표66>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0명 중 전혀 없다 125명(89%), 자주 있다 12명(9%), 매우 자주 있다 3명(2%)이다.

<표66, 그림58> 학교에서 돈·물건 빼앗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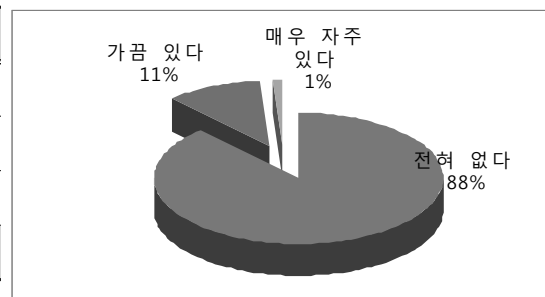
피해	빈도(명)	백분율(%)
전혀 없다	125	89
가끔 있다	12	9
매우 자주 있다	3	2
합계	140	100



-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에 대한 결과는 <표67>와 같다. 전체 응답자 139명 중 전혀 없다 122명(88%), 자주 있다 15명(11%), 매우 자주 있다 2명(1%)이다. 88%는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경험하지 않는 반면 12%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의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67, 그림59>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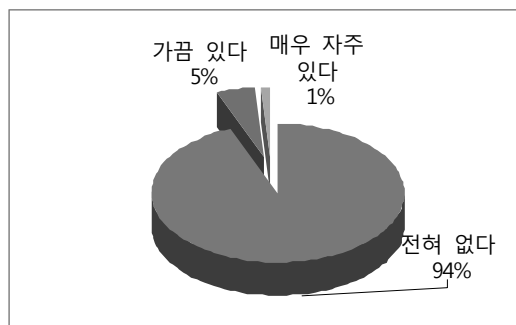
따돌림	빈도(명)	백분율(%)
전혀 없다	122	88
가끔 있다	15	11
매우 자주 있다	2	1
합계	139	100



-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의 신체적 폭행피해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68>와 같다. 전체 응답자 138명 중 전혀 없다 129명(94%), 자주 있다 7명(5%), 매우 자주 있다 2명(1%)이다.

<표68, 그림60> 학교에서 신체적 폭행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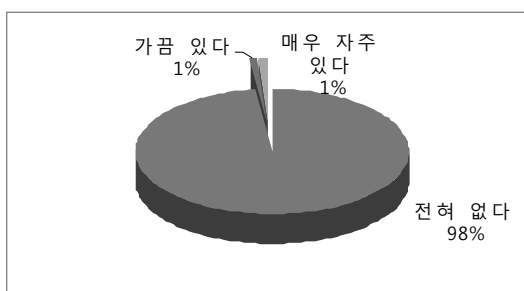
피해	빈도(명)	백분율(%)
전혀 없다	129	94
가끔 있다	7	5
매우 자주 있다	2	1
합계	138	100



-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의 성추행 및 폭행피해에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69>와 같다. 전체 응답자 138명 중 전혀 없다 135명(98%), 가끔 있다 1명(5%), 매우 자주 있다 2명(1%)이다.

<표69, 그림61> 학교에서 성추행 및 폭력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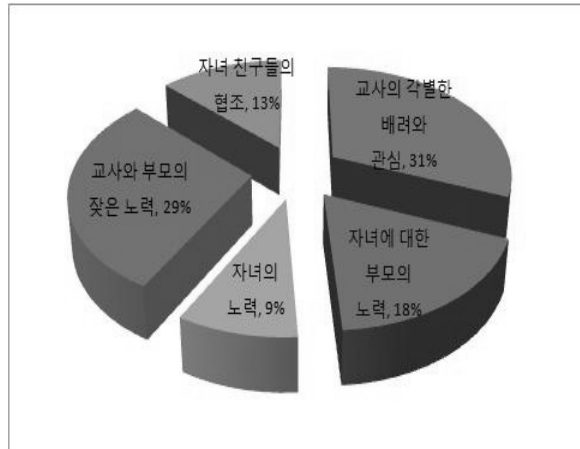
피해	빈도(명)	백분율(%)
전혀 없다	135	98
가끔 있다	1	1
매우 자주 있다	2	1
합계	138	100



- 자녀가 학교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70>와 같다. 전체 응답자 127명 중 교사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 39명(31%), 교사와 부모의 잦은 연락 37명(29%), 자녀에 대한 부모의 노력 23명(18%), 자녀 친구들의 협조 16명(13%), 자녀의 노력12명(9%)이다.

<표70, 그림62> 자녀의 학교 적응 시 가장 필요한 부분

적응요소	빈도(명)	백분율(%)
교사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	39	31
자녀에 대한 부모의 노력	23	18
자녀의 노력	12	9
교사와 부모의 잦은 연락	37	29
자녀 친구들의 협조	16	13
합계	127	100



6. 자녀의 차별경험

1) 친구로부터의 차별경험

- 다문화 가정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로부터 차별을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문항은 5개이다. '최소1점 전혀 없다 에서 최대 4점 정말 많다.'로 구성된 4점 리커트 척도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친구로부터 경험하는 차별점수는 최소 5.00, 최대 12.0, 평균= 6.59로 중간이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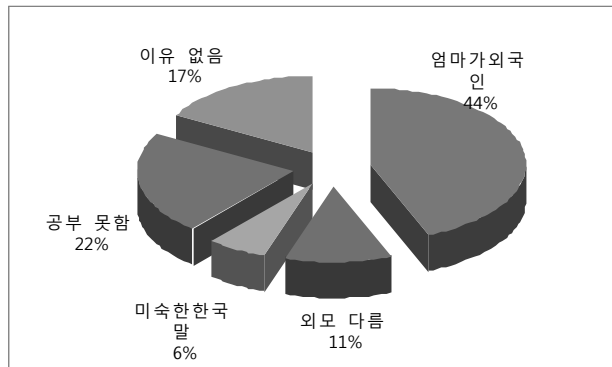
<표71> 친구로부터 차별경험 평균

차별경험	N=130
최소값	5.0
최대값	12.0
평균	6.59
표준편차	2.119

-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차별을 경험한다고 응답한 12%(18명)을 차별유형에 대한 결과는 <표72>와 같다. 엄마가 외국인 8명(44%), 공부를 못해서 4명(22%), 다른 아이들과 외모가 달라서 2명(11%), 한국말을 잘 못해서 1명(6%), 특별한 이유 없음 3명(17%)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외모와 공부에 대한 유형이 33%이다.

<표72, 그림63> 친구로부터의 차별유형

응답내용	빈도(명)	백분율(%)
엄마가 외국인	8	44
외모 다름	2	11
미숙한 한국말	1	6
공부 못함	4	22
이유 없음	3	17
합계	18	100



-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친구에게 차별을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73>와 같다. 전체 응답자 134명 중 전혀 없다 74명(55%), 별로 없다 52명(39%), 많다 6명(5%), 정말 많다 2명(1%)이다. 92%정도는 특별한 이유 없이 선생님에게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 ‘다른 아이들과 외모가 달라서 친구로부터 차별을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73>와 같다. 전체 응답자 135명 중 전혀 없다 100명(74%), 별로 없다 33명(24%), 많다 1명(1%), 정말 많다 1명(1%)이다. 98%정도는 외모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차별을 경험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어머니들이 대부분 일본이나 중국 출신이므로 외모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한국말을 잘못해서 친구로부터 차별을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73>와 같다. 전체 응답자 132명 중 전혀 없다 97명(73%), 별로 없다 34명(26%), 많다 1명(1%)이다. 99%정도는 한국말을 잘못해서 친구들로부터 차별을 경험하지 않고 있었다.

- ‘공부를 못해서 친구로부터 차별을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73>와 같다. 전체 응답자 131명 중 전혀 없다 91명(69%), 별로 없다 36명(27%), 많다 2명(2%), 정말 많다 2명(2%)이다. 96%정도는 공부를 잘못해서 친구들로부터 차별을 경험하지 않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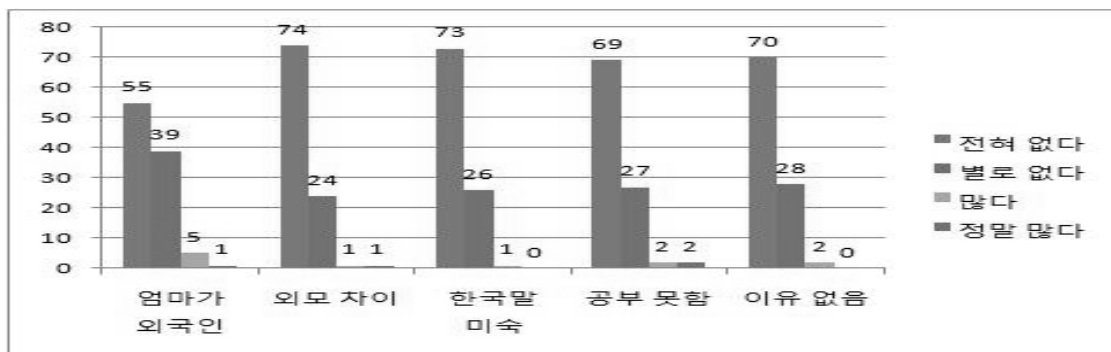
- ‘특별한 이유 없이 친구로부터 차별을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73>와 같다. 전체 응답자 130명 중 전혀 없다 90명(70%), 별로 없다 37명(28%), 많다 3명(2%)이다. 98%정도는 특별한 이유 없이 친구들로부터 차별을 경험하지 않고 있었다.

- 선행연구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학교에서 친구로부터 왕따를 경험하는데 그 이유가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였다(오성배, 2007). 하지만 본 조사에서는 엄마가 외국인이어서 차별을 받는다는 6%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존 연구와 본 조사와의 연구대상의 차별성이나 어머니 출신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차이일 수 있다. 본 조사의 대부분은 일본, 중국 출신이기 때문에 피부색에 대한 차이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표73> 친구의 차별유형

차별유형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많다	정말 많다	N(%)
엄마가 외국인	74(55)	52(39)	6(5)	2(1)	134(100)
외모 차이	100(74)	33(24)	1(1)	1(1)	135(100)
한국말 미숙	97(73)	34(26)	1(1)	0(0)	132(100)
공부 못함	91(69)	36(27)	2(2)	2(2)	131(100)
이유 없음	90(70)	37(28)	3(2)	0(0)	130(100)

<그림64> 친구의 차별유형 (단위;%)



2) 선생님으로부터 차별경험

- 다문화 가정 자녀가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차별을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문항은 5개이다. '최소1점 전혀 없다 에서 최대 4점 정말 많다.'로 구성된 4점 리커트 척도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교사로부터 경험하는 차별점수는 최소 5.00, 최대 17.0 평균= 6.58로 중간이하이다.

<표74> 교사로부터 차별경험 평균

차별경험	N=130
최소값	5.0
최대값	17
평균	6.58
표준편차	2.27

-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선생님께서로부터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75>와 같다. 전혀 없다 83명(63%), 별로없다 46명(34%), 많다 2명(1%), 정말 많다 3명(2%)이다. 97%는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 다른 아이들과 외모가 달라서 선생님께서로부터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75>와 같다. 전체 응답자 133명 중 전혀 없다 102명(76%), 별로 없다 30명(23%), 정말 많다 1명(1%)이다. 99%이상이 교사로부터의 외모로 인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결혼 이민여성들 중 1990년 중 후반에 입국한 중국, 일본 여성들과 한국인 남성 사이의 2세대들은 피부색이나 생활습관에서 한국인과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으며, 문화적응 단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거주기간 12년 이상이면 실제로 고향단계로서 본국보다는 이민국의 생활이 익숙해진 단계이고, 아이들의 경우 대부분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아버지가 한국인이기 때문이다.

- 한국말을 못해서 선생님께서로부터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75>와 같다. 전체 응답자 134명 중 전혀 없다 100명(74%), 별로 없다 32명(24%), 많다 1명(1%), 정말 많다 1명(1%)이다. 98%는 한국말을 못해서 선생님께서로부터 차별을 받는 경험은 없었다.

- '공부를 못해서 선생님께서로부터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75>와 같다. 전체 응답자 131명 중 전혀 없다 90명(69%), 별로 없다 32명(24%), 많다 8명(6%), 정말 많다 1명(1%)이다. 93%는 공부를 못해서 선생님에게 차별을 받지 않지만 7%는 공부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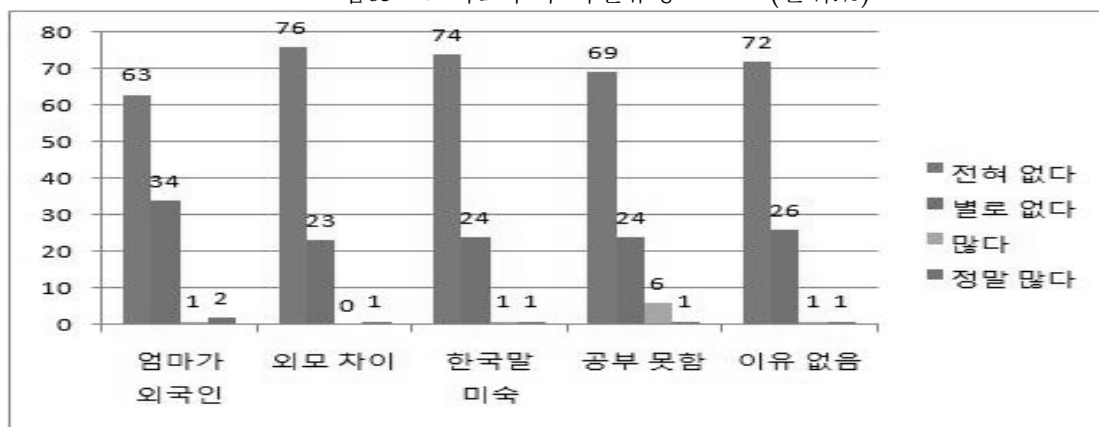
- '특별한 이유 없이 선생님께서로부터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75>와 같다. 전체 응답자 129명 중 전혀 없다 93명(72%), 별로 없다 34명(26%), 많다 1명(1%), 정말 많다 1명(1%)이다. 98%정도는 특별한 이유 없이 선생님

에게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75> 교사로부터 차별유형

차별유형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많다	정말 많다	N(%)
엄마가 외국인	83(63)	46(34)	2(1)	3(2)	134(100)
외모 차이	102(76)	30(23)	0(0)	1(1)	133(100)
한국말 미숙	100(74)	32(24)	1(1)	1(1)	134(100)
공부 못함	90(69)	32(24)	8(6)	1(1)	131(100)
이유 없음	93(72)	34(26)	1(1)	1(1)	129(100)

<그림65> 교사로부터 차별유형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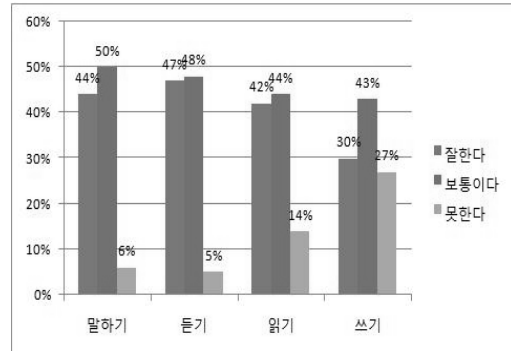
7. 어머니와 자녀와의 의사소통

1)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 한국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한국말에 대한 이해정도일 것이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의 한국어 능력 정도를 각각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별로 나누어 보면, 4개 영역에 대해 약 40% 4개 모두 잘한다고 응답하였고, 47% 보통이다, 13%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잘하는 영역은 말하기이며, 가장 못하는 영역은 쓰기 부분이였다.

<표76, 그림66> 한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	잘한다 (%)	보통이다 (%)	못한다 (%)	N (%)
말하기	44	50	6	100
듣기	47	48	5	100
읽기	42	44	14	100
쓰기	30	43	27	100



- 자신의 한국말 말하기 실력정도에 대해 스스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77>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6명 중 못 한다 9명(6%), 보통이다 73명(50%), 잘 한다 42명(29%), 매우 잘 한다 22명(15%)이다. 재분류하면, 잘 한다 64명(44%)이며, 보통이다 73명(50%)이다. 전반적으로 한국말 말하기 수준은 보통이상임을 알 수 있다.

- 의사소통을 잘하는 방법 중 하나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일 것이다. 한국말 듣기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77>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5명 중 못 한다 7명(5%), 보통이다 70명(48%), 잘 한다 41명(28%), 매우 잘 한다 27명(19%)이다. 잘하는 편에 속하는 사람이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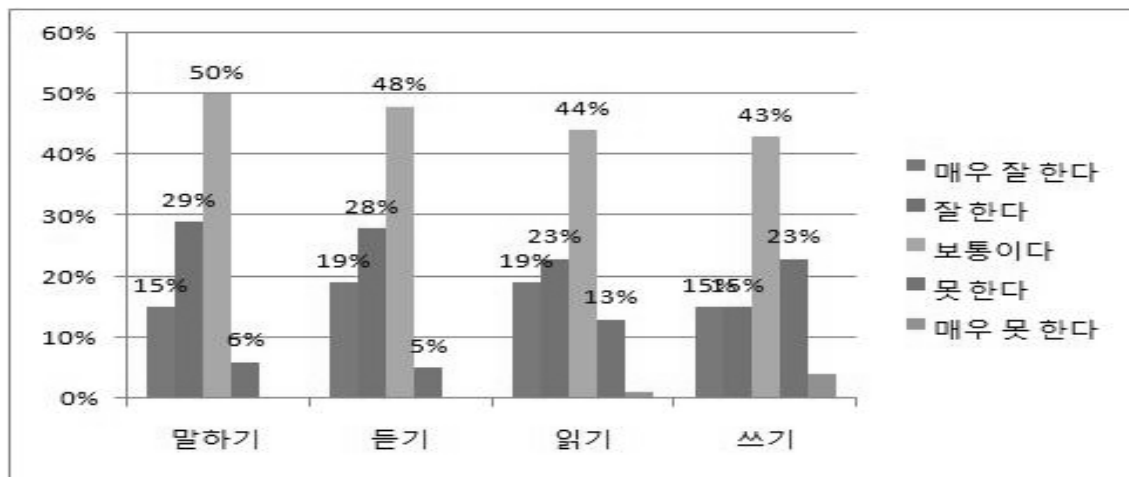
-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이들의 학습과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는데 용이한 한국말 읽기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77>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4명 중 '매우 못 한다' 1명(1%), '못 한다' 18명(13%), '보통이다' 65명(44%), '잘 한다' 33명(23%), '매우 잘 한다' 27명(19%)이다. 한국말 읽기를 '잘 한다'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전체 응답자의 42%, 보통이다 44%, 못 한다 14%이다.

- 한국말 쓰기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77>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4명 중 매우 못 한다 6명(4%), 못 한다 33명(23%), 보통이다 62명(43%), 잘 한다 22명(15%), 매우 잘 한다 21명(15%)이다. 한국말 쓰기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30%이며 못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7%이다.

<표77> 한국어 능력

한국말	매우 잘 한다	잘 한다	보통이다	못 한다	매우 못 한다	N (%)
말하기	22(15)	42(29)	73(50)	9(6)	0(0)	146(100)
듣기	27(19)	41(28)	70(48)	7(5)	0(0)	145(100)
읽기	27(19)	33(23)	65(44)	18(13)	1(1)	144(100)
쓰기	21(15)	22(15)	62(43)	33(23)	6(4)	144(100)

<그림67> 한국어 능력



2) 어머니의 본국어 능력

- 결혼이민여성의 본국 언어 말하기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78>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3명 중 매우 못 한다 1명(1%), 못 한다 1명(1%), 보통이다 30명(21%), 잘 한다 45명(31%), 매우 잘 한다 66명(46%)이다.

- 결혼이민여성의 본국 언어 듣기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78>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3명 중 보통이다 28명(20%), 잘 한다 45명(31%), 매우 잘 한다 70명(49%)이다.

- 결혼이민여성의 본국 언어 읽기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78>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3명 중 매우 못 한다 1명(1%), 못 한다 1명(1%), 보통이다 29명(20%), 잘 한다 42명(29%), 매우 잘 한다 70명(49%)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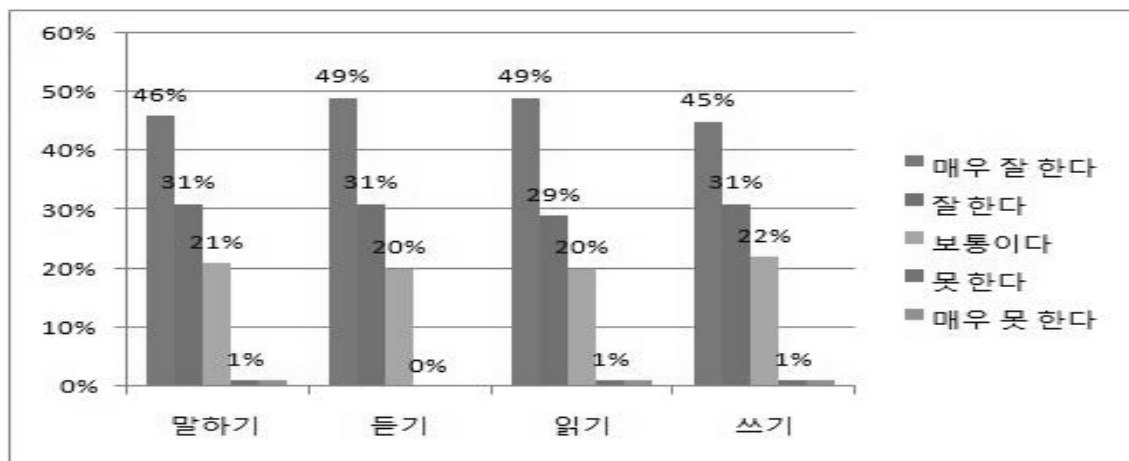
- 결혼이민여성의 본국 언어 쓰기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78>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3명 중 매우 못 한다 1명(1%), 못 한다 2명(1%), 보통이다 32명(22%), 잘 한다 45명(31%), 매우 잘 한다 63명(45%)이다.

본국 언어능력에 대한 정도에서 76%이상은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영역에서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78> 본국어 능력

본국말	매우 잘한다	잘 한다	보통이다	못 한다	매우 못한다	N (%)
말하기	66(46)	45(31)	30(21)	1(1)	1(1)	143(100)
듣기	70(49)	45(31)	28(20)	0(0)	0(0)	143(100)
읽기	70(49)	42(29)	29(20)	1(1)	1(1)	143(100)
쓰기	63(45)	45(31)	32(22)	2(1)	1(1)	14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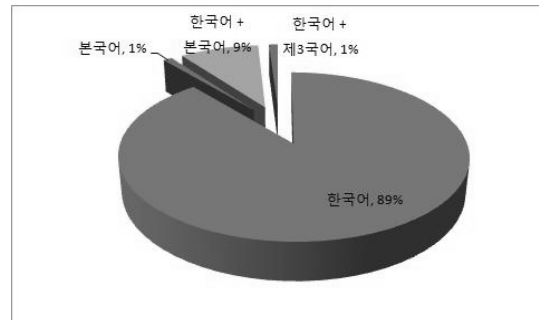
<그림68> 본국어 능력



- 남편과의 대화 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79>와 같다. 한국어 124명(89%), 본국어 1명(1%), 한국어와 본국어 12명(9%), 한국어와 제3국어 2명(1%)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결혼이민여성과 결혼한 한국 배우자들은 아내나라 언어에 대해서 거의 모르거나, 배우려고 시도도 하지 않고, 외국인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한글만을 빨리 배우기를 요구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79, 그림69> 남편과 대화 시 사용 언어

사용언어	빈도(명)	백분율(%)
한국어	124	89
본국어	1	1
한국어+본국어	12	9
한국어+제3국어	2	1
합계	13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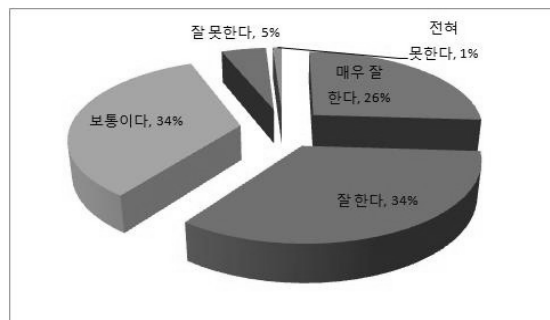
3) 자녀와의 의사소통

- 자녀의 한국어 실력은 어떠한지에 대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에게 물어본 응답결과는 아래와 같다.

- 또래 아이들에 비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 능력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80>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6명 중 매우 잘 한다 38명(26%), 잘 한다 49명(34%), 보통이다 50명(34%), 잘 못한다 8명(5%), 전혀 못 한다 1명(1%)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90%이상이 보통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표80, 그림70> 자녀의 한국어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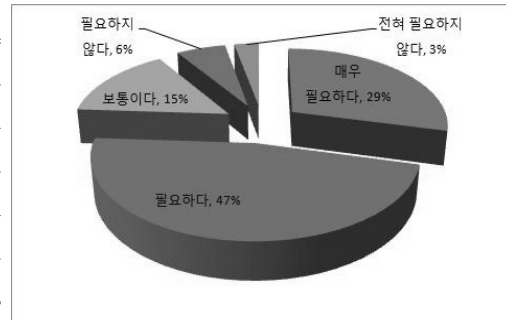
한국어능력	빈도(명)	백분율(%)
매우 잘 한다	38	26
잘 한다	49	34
보통이다	50	34
잘 못한다	8	5
전혀 못 한다	1	1
합계	146	100



- 다문화 가정 자녀가 어머니의 본국어 학습 필요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81>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6명 중 매우 필요하다 41명(29%), 필요하다 67명(47%), 보통이다 22명(15%), 필요하지 않다 9명(6%), 전혀 필요하지 않다 4명(3%)이다. 다문화 가정에서 75% 이상은 자녀가 어머니 나라 언어에 대한 학습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81, 그림71> 자녀가 어머니의 본국어 학습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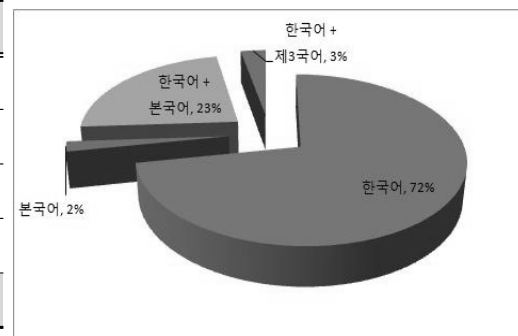
학습여부	빈도(명)	백분율(%)
매우 필요하다	41	29
필요하다	67	47
보통이다	22	15
필요하지 않다	9	6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3
합계	143	100



- 자녀와 얘기할 때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82>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8명 중 한국어만 사용 106명(72%), 본국어(어머니 나라 언어) 사용 3명(2%), 한국어와 본국어 사용 34명(23%), 한국어와 제3국어 5명(3%)로 나타났다. 70%이상이 자녀와 대화 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23%는 한국어와 본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표82, 그림72> 자녀와 대화 시 사용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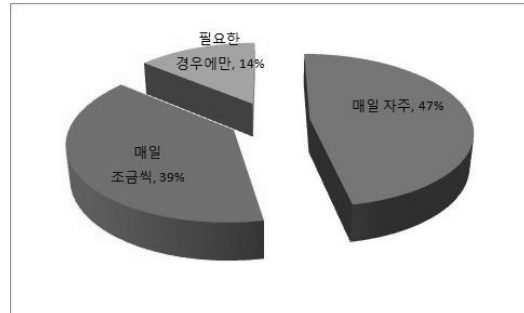
사용언어	빈도(명)	백분율(%)
한국어	106	72
본국어	3	2
한국어+본국어	34	23
한국어+제3국어	5	3
합계	148	100



- 자녀와는 얼마나 자주 얘기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83>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8명 중 매일 자주 69명(47%), 매일 조금씩 58명(39%), 필요한 경우D7%21명(14%)이다. 86%정도는 매일 자녀와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83, 그림73> 자녀와의 대화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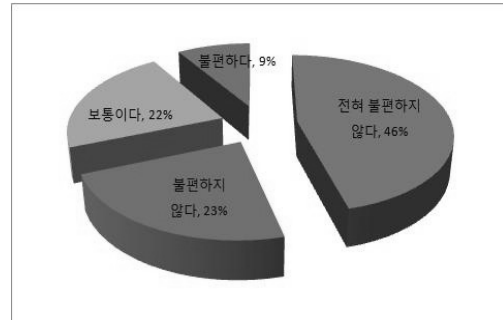
대화빈도	빈도(명)	백분율(%)
매일 자주	69	47
매일 조금씩	58	39
필요한 경우에만	21	14
합계	148	100



- 자녀와 대화 시 불편한 점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84>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8명 중 전혀 불편하지 않다 67명(46%), 불편하지 않다 34명(23%), 보통이다 33명(22%), 불편하다 14명(9%)이다. 69%는 자녀와의 대화 시 불편하지 않지만 9%는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22%는 보통이었다.

<표84, 그림74> 자녀와 대화 시 불편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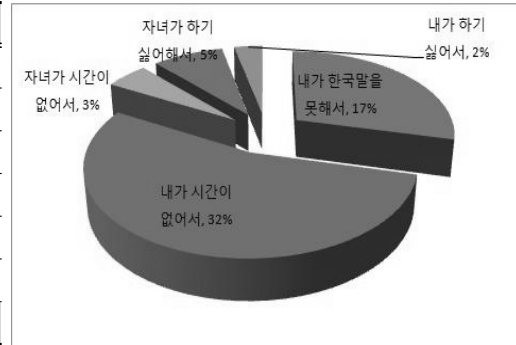
불편한 점	빈도(명)	백분율(%)
전혀 불편하지 않다	67	46
불편하지 않다	34	23
보통이다	33	22
불편하다	14	9
합계	148	100



- 자녀와의 대화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85>와 같다. 전체 응답자 138명 중 어렵지 않다 56명(41%), 시간이 없어서 44명(32%), 내가(어머니) 한국말을 못해서 24명(17%), 자녀가 하고 싶지 않아서 15명(11%), 자녀가 시간이 없어서 4명(3%),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3명(2%)였다. 51%는 어머니의 조건 때문에 자녀와의 대화가 어렵고, 11%는 자녀의 조건 때문에 대화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혀 어렵지 않음 41%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85, 그림75> 자녀와의 대화가 어려운 이유

대화 힘든 이유	빈도(명)	백분율(%)
내가 한국말을 못해서	24	17
내가 시간이 없어서	44	32
자녀가 시간이 없어서	4	3
자녀가 하기 싫어해서	7	5
내가 하기 싫어서	3	2
어렵지 않다	56	41
합계	138	100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147명을 대상으로 차별 및 인권침해 경험, 자녀의 차별경험,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및 교류, 자녀의 양육과 교육, 자녀의 학교생활, 어머니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실태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자녀를 둔 광주지역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의 출신국은 일본 82명(56%), 중국 43명(29%), 필리핀 11명(7%), 베트남 4명(3%), 태국 2명(1%), 몽골 1명(1%)이다. 국적을 취득한 경우 51명(35%),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93명(65%)로 나타났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93명에 대한 출신 국가별 현황은 일본 75명(81%), 중국 8명(9%), 필리핀 4명(4%), 베트남 3명(3%), 태국 2명(1%), 몽골 1명(1%)이다. 연령은 20대 2명(1%), 30대 32명(24%), 40대 91명(67%), 50대 11명(8%)이며, 최소 나이는 23세, 최대 나이는 56세이며 평균나이는 42.6세이다. 20대이면서 자녀가 고학년인 경우는 재혼인 경우이다. 종교는 무교 27명(22%), 개신교 8명(6%), 카톨릭 7명(6%), 불교 10명(8%), 통일교 66명(53%), 기타 7명(6%)이다. 통일교가 55%이상을 선회하는 결과는 초창기 결혼이민여성들은 통일교를 통한 선교차원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학력은 초졸 3명(2%), 중학교 졸업 8명(6%), 고등학교 졸업 67명(48%), 전문대학 졸업 36명(26%), 대학교 졸업 23명(17%), 대학원 졸업 2명(1%)로 조사되었다. 고등학교 졸업이상이 92%이며, 전문대학 졸업이상도 44%로이다. 입국 시기는 1985년~1990년 23명(16%), 1991~1995년까지 43명(30%), 1996~2000년까지 53명(38%), 2001~2005년까지 11명(8%), 2006년 이후 11명(8%)이다. 1995년까지의 입국이 전체의 36%, 2000년까지 74%를 차지하고 있다. 거주기간은 1년~3년 10명(7%), 4년~7년 11명(8%), 8년~11년 16명(11%), 12년~15년 74명(53%), 16년~19년 25명(18%), 20년 이상 4명(3%)이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자녀를 둘 수 있는 거주기간인 12년 이상이 74%이다. 직업은 농림어업 1명(1%), 기술공, 준전문가 1명(1%), 사무종사자 4명(3%), 서비스 판매직 12명(9%), 생산직 5명(4%), 단순노무 8명(6%), 기타 37명(28%), 주부 65명(49%)이다. 이를 재분류하면, 농림어업에서 단순노무까지 31명(24%), 기타 37명(28%), 주부 65명(49%)였다.

응답자 배우자 특성에서 종교는 117명 중 무교 23명(20%), 개신교 6명(5%), 카톨릭 5명(4%), 불교 15명(13%), 이슬람교 1명(1%), 통일교 64명(54%), 기타 3명(3%)이다. 연령에서는 30대 4명(3%), 40대 95명(71%), 50대 33명(25%), 60대 1명(1%)이며, 최소나이 38세에서 최대나이 63세로 평균나이는 47세로 이들 부부의 평균 나이 차이는 5세이다. 직업은 농림어업 4명(3%), 기술공, 준전문가 19명(15%), 사무종사자 10

명(8%), 서비스, 판매 13명(10%), 생산직 15명(12%), 단순노무 8명(6%), 기타 53명(40%), 무직 8명(6%)이다. 직업이 있는 경우가 94%이나 '기타'가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60명(43%), 전문대 졸업 13명(10%), 대학교 졸업 24명(18%), 대학원 이상 1명(1%)로 조사자의 배우자의 고등교육 이수 비율은 72%로 아내의 고등교육 이수비율 92%와 비교하면 20%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외국인 아내의 학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원 수는 전체 응답자 142명 중 2명(2명,1%), 3명(21명,15%), 4명(42명, 30%), 5명(51명,35%), 6명(15명,11%), 7명(11명,8%)으로 평균 가족원 수는 4.5명이다. 우리나라 평균 가족원 수가 3명 보다 많게 나타났는데 이는 통일교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차별 및 인권침해 경험에 대한 결과는 차별경험이 있다 65명(47%), 차별경험이 없다 74명(53%)로 차별경험 없다가 9%로 높게 나타났지만 절반가량인 47%는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차별경험이 있는 65명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 공무원 11명(17%), 이웃주민 7명(11%), 버스타кси 운전자 7명(11%), 학교 선생님 7명(11%)순이다. 이와 같은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생활에서 신상에 대한 접근성 높은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을 차별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차별을 경험하였을 때의 상담하는 사람은 가족, 친척 25명(38%), 모국인 친구 21명(32%), 한국인 친구 6명(9%)순으로, 생활영역에서 친밀감이 형성되는 가족이나 모국인 친구에게 상담한다는 경우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사회나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결과는 미숙한 한국어 55명(38%), 기타 34명(23%), 친구 사귀기 힘들 27명(19%), 소비수준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 25명(17%), 한국 사람들로 부터의 따돌림, 놀림, 구타당하는 것 5명(3%)순이었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지역사회에서 교류하는 정도는 35점 만점에 평균= 14.37로 보통이하의 수준이다. 지역사회에서 교류내용은 아이를 맡기거나 집 보기를 부탁할 때, 급한 돈거래와 같은 상황에 대한 교류는 80%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집안일 돕기, 가사도구 교류, 어려운 일 상의하기 및 말 벗 하기 등은 50%이상 교류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이웃의 경조사에 56%정도가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웃들과 거의 왕래 없음은 26%이며, 보통이상으로 왕래하는 경우는 74%이다. 지역사회의 행사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22%이며, 그렇지 않는 경우 38%, 보통이다 40%였다. 실제로 결혼이민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행사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한 정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와 활동인지 또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나 본 조사 결과에서는 거의 교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사회의 사람들은 결혼이민여성 본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준 경우에 대한 응답결과에서 그렇다 18%, 그렇지 않다 14%, 보통이다 68%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의 타문화

수용성에 정도와 도시지역이 갖는 특성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20점 만점에 평균=17.34로 만족한 수준이었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숙제를 도와줄 때 어려움 점은 한국어의 능력이 부족해서 60명(42%), 교과내용이 어려워서 51명(36%), 어려운 점이 없음 31명(22%)이다. 한국어 능력의 어려움과 교과내용의 어려움의 문제는 언어적 이해를 전제로 하는 공동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었다.

자녀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들 중 어머니의 참석정도를 알아본 결과 교사면담17%, 안전지도18%, 참관수업16%, 운동회나 행사 7%, 일일교사 23%, 육성회나 학부모 모임 19%가 참석하고 있었으며, 일일교사 활동에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운동회나 각종 학교행사는 가장 소극적이었다. 자녀의 선생님과 연락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매우 자주 한다 4명(3%), 자주 한다 8명(5%), 보통이다 50명(34%), 별로 하지 않는다 63명(43%), 전혀 하지 않는다 22명(15%)이다. 8%만이 자녀의 학교 선생님과 자주 연락하고 58%는 연락하지 않는 편이며, 34%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가장 도움을 받는 사람은 남편 34명(23%), 주변 본국출신 친구 37명(25%), 자녀 친구의 부모 18명(12%), 없음 11명(8%), 시부모와 친척 7명(5%), 기타 39명(27%)은 신문, 인터넷, 주변사람, 학습지 교사, 한국친구, 회사동료들에게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었다.

자녀양육과정에서의 어려움들 중에서는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학교생활의 호감 정도에 대해 자녀가 학교생활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가와 학교에 잘 적응하는가에 대해 고등학생이 가장 좋고, 초등학생이 가장 낮다. 이를 어머니의 출신국가별로 집단 간 평균비교 결과는 일본 및 중국 출신의 어머니 자녀들이 2.11, 필리핀, 베트남 2.14, 기타(몽골, 우즈베키스탄, 북한, 독일 등) 1.75로 나타났다. 기타 국가 출신의 자녀가 학교 호감도 및 적응이 가장 좋고, 일본 중국 출신의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교에서 자기 적성과 분야에 대한 고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진학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초등학생 보다는 학교생활의 호감도가 낮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로부터 차별을 경험은 중간정도 수준이었으며,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차별을 경험한다고 응답한 어머니들 중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엄마가 외국인 8명(44%), 공부를 못해서 4명(22%), 다른 아이들과 외모가 달라서 2명(11%), 한국말을 잘 못해서 1명(6%), 특별한 이유 없음 3명(17%)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외모와 공부에 대한 유형이 33%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께서부터 차

별경험은 17점 만점에 평균= 6.58로 중간이하수준이었지만, 성적으로 인한 차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경우, 사회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학교생활에 대한 평가기준이 성적일수 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동시에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자녀가 학교에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69%는 자신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욕설·협박·모욕·욕설, 돈이나 물건 빼앗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신체적 폭행, 성추행 및 폭력 등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31%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피해 경험에 있는 31%를 대상으로 피해유형을 나누어 보았더니, 친구로부터 따돌림 34%, 돈이나 물건 빼앗김 31%, 신체적 폭행 17%, 욕설·협박·모욕 9%, 성추행 및 폭력 9%로 조사되었다.

자녀가 학교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교사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 39명(31%), 교사와 부모의 잦은 연락 37명(29%), 자녀에 대한 부모의 노력 23명(18%), 자녀 친구들의 협조 16명(13%), 자녀의 노력 12명(9%)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의 경우, 선생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다문화와 그 가정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말씀하는지가 아이들에게는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에서 어머니들의 한국어 능력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별로 나누어 보면, 약 40% 4개 모두 잘한다고 응답하였고, 47% 보통이다, 13%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잘하는 영역은 말하기이며, 가장 못하는 영역은 쓰기 부분이었다. 남편과의 대화 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 124명(89%), 본국어 1명(1%), 한국어와 본국어 12명(9%), 한국어와 제3국어 2명(1%)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인 배우자들은 아내나라 언어에 대해서 거의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래 아이들에 비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 능력은 90%이상이 보통 이상이였다. 다문화 가정 자녀가 어머니의 본국어 학습 필요 여부에 대해 75%이상은 자녀가 어머니 나라 언어에 대한 학습을 필요하다고 하였고, 70%이상이 자녀와 대화 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23%는 한국어와 본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자녀와의 대화가 어려운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44명(32%), 내가(어머니) 한국말을 못해서 24명(17%), 자녀가 하고 싶지 않아서 7명(5%), 자녀가 시간이 없어서 4명(3%),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3명(2%)이다. 51%는 어머니의 조건 때문에 자녀와의 대화가 어렵고, 8%는 자녀의 조건 때문에 대화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혀 어렵지 않음 또한 41%였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을 차별하는 사람들은 주로 공무원, 이웃주민, 버스·택시 운전자, 학교 선생님 등이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일상생활영역에서 가장 근접하게 만나야 되는 공공의 서비스 기관에 근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쉽게 누구보다도 빨리 신상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직업군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의 공공기관 및 행정적 절차와 과정이 다문화 사회를 위해 구축되어 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접근성의 어려움이나 직원의 민원봉사 태도 및 방식에 대한 체계구축과 다문화 사회의 부합하는 공공정책과 행정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둘째,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지역사회나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미숙한 한국어, 친구 사귀기 힘들, 소비수준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 한국 사람들로 부터의 따돌림, 놀림, 구타당하는 것이며, 차별을 경험하였을 때의 상담하는 사람은 또한 가족, 친척, 모국인 친구이다.

이는, 세계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외국과의 왕래가 활발해졌다고는 하나 실제로 일상생활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류사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선입견들을 완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 사회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대부분의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가정 축제들의 패턴을 보면, 우리사회 구성원들은 제외하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문화 축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주류사회 사람들이 포함된 다문화 축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에서 인권침해나 차별문제 발생 시, 개인과 가족 중심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이웃 간의 활동과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가정들이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교류와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집박에서 함께하는 가족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가족모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결혼이민여성들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차별은 직장생활이나 구직활동 시의 차별,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 차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사회의 여성, 소수자에 대한 문제이며, 고질적인 차별의 양상이기도 하다. 직업 및 직장에서의 차별이나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주류사회의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사회적 노력과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로부터 받는 차별로는 엄마가 외국인이어서, 선생님의로부터 차별은 공부를 못해서이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양육비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며,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만족하지만 한국어의 능력이 부족과 교과내용이 어려워 자녀의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는 다문화 가정 부모와 아이들의 상황에 맞는 학교 교육 시스템을 변화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자녀가 학교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교사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 교사와 부모의 잦은 연락, 자녀에 대한 부모의 노력, 자녀 친구들의 협조, 자녀의 노력 순이다. 무엇보다도 학교선생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전체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선생님들께서 민감하게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보수 교육 프로그램들이 정기적,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확대·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어머니들의 한국어 능력 정도에서 가장 잘하는 영역은 말하기이며, 가장 못하는 영역은 쓰기이다. 남편과의 대화 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배우자들은 아내나라 언어에 대해서 거의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았다. 다문화 가정 자녀가 어머니의 본국어 학습 필요 여부에 대해 75%이지만 70%이상이 자녀와 대화 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변화의 주체는 가정 내의 구성원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들 가정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남편을 비롯한 자녀, 가족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계의 기술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무엇보다도 우리사회 다문화의 핵심주체는 결혼이민여성들이다. 이들이 자신의 열악한 조건들을 극복하고 성실히 살아갈 때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생각들은 감소될 것이다. 다문화 사회를 위한 사회적 변화와 노력은 주류 사회의 사람들이 보다 많이 노력을 해야 하지만 당사자 또한 많은 노력과 변화 및 실천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제언들이 도출되었음에 불구하고 본 조사의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 차별경험이 많고, 어머니의 한국어 미숙으로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안 되고, 아이들이 학습부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었다. 하지만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인권침해나 차별의 경험을 겪지 않으며, 자녀들 또한 학교생활과 적응이 매우 좋으며, 학교생활도 원만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상이한 차이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연구 대상에 대한 선별이다. 본 조사의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어머니에 한정하였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 대부분은 입국 시기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지역이나 기관에 편중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자녀의 학교생활과 차별 및 인권 침해 경험들을 알아보는 민감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4학년이상의 어머니

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다보니 학교를 통해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치우친 응답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다 할 수 있다.

이는 몇 가지 측면에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2006년 이후 우리사회의 뜨거운 관심거리는 다문화이다. 최근 몇 년간의 연구경향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부각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 있다.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쏠리면서 다문화 가정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일례로, 기존에 연구와 많은 차이를 보인 응답내용을 보고 본 연구자들 스스로도 당황하거나 고민하였다. 이는 두 가지에서 반성이 필요했다. 전자는 우리사회 다문화라는 현상에 대한 반응의 반성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대한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평균 12년 이상을 거주한 결혼이민여성 들 중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전반적으로 문제없이 잘살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 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입국시기 별, 거주기간 별, 출신국가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이들 가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관계하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금주(2008). 다인종, 다문화 시대 한국 사회의 심리학적 과제와 전망 ; 다문화가정 아동발달과 적응: 다문화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상호 작용 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26.
- 김갑성(2008).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청소년 문화포럼.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18호 58-95.
-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한국문화인류학회, 39(1), 159-193.
- 김상임(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의 삶.
이주여성 인권센터창립3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21-48.
- 김영란(2006).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정책.” 숙명여자 대학교 아시아 여성문제 연구소 아시아여성연구, 45(1), 143-189.
- 김영임(2007). 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다문화 가족 2세의 다문화 교육.
이화여자 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3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지구지역 시대 지식생산과 여성연구의 도전(253-257)
- 박재규(200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지역 정착과 지원방안. 한국사회의 지구화와 근대성. 한국 사회학회전기사회학 대회자료집.
- 박진욱·장은희 (2008). 유치원 교실과 초등학교 교실 담화를 중심으로.
한국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9-51.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오성배 (2007).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교육기회 실태와 대안 모색.” 가톨릭대학교 인간학 연구, 12, 1-15
- 여성가족부(2005a).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2005b). 국제결혼부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결과 보고서.
- 윤형숙 (2003).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사회학회·한국문화인류학회 공동심포지움 자료집.
- 임경혜(2004).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금해(2006).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적응기 생활 체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아시아 여성문제 연구소 아시아 여성연구, 44(1), 329-364.
- 한국여성정책개발원(2007).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 연구
- 한건수·김이선·김민정(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홍기혜(2000). 중국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hang, C. Y., & Myers, J. E. (2003). Cultural adaptation of the wellness evaluation of lifestyle: An assessment challeng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5(4), 239-251.
- Chou, P. H., Wang, H. H., Chiang, . P., Lin, Y. R., Kang, C. W., & Lee, W. C. (2006). The pregnancy and labor experience of Southeast Asian women in transnational marriages. *Journal of Evidence-Based Nursing*, 2(4), 311-321.
- Hochschild, Russell. 2002. "Love and Gold" in B. Ehrenreich and A.R. Hochschild(eds.)
- Hochschild, Russell. (2003). "The Commercialization of Intimate Life: Notes from Home and Work"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IOM. (2003) .World Migration Report 2003. Geneva: IOM
- Piper, Nicola and Mina Roces. (2003). "Introduction: Marriage and Migration in an Age of Globalization", in N.Piper and M. Roces(eds), *wife or Worker? : Asian women and Migration*, New York : Rowmna & Littlefield Pub.
- Sassen. Saskia. (2002). "Global Cities and Survival Circuits". in B. Ehrenreich and A. R. Hochschild(eds.) *Global Waman: Nannie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New York: Metropolitan Books.

<자료>

- 통계청. 각연도 혼인. 이혼통계결과. www.nso.go.kr
- 법무부. 각 연도 출입국관리통계연보 www.immigration.go.kr

< 한국어 >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의 인권실태 조사 연구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여러분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 YMCA와 공동으로 광주·전남·북 지역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의 인권관련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비밀이 완전하게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저희 연구에 할애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09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YMCA

□ 본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062-710-9710~6)/광주YMCA(062-232 6141~4).

*** 귀하 가정의 자녀 모두를 적어주십시오. 아래에 적어주십시오.**

자녀 순위	연령	성별	교육기관	학년	동거유무
첫째 자녀	_____ 세	남 / 녀 ,	_____	_____	
둘째 자녀	_____ 세	남 / 녀 ,	_____	_____	
셋째 자녀	_____ 세	남 / 녀 ,	_____	_____	
넷째 자녀	_____ 세	남 / 녀 ,	_____	_____	
다섯째 자녀	_____ 세	남 / 녀 ,	_____	_____	

* 다음은 자녀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귀하의 자녀 중 현재 고등학교, 중학교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 중 제일 위 자녀를 대상으로 설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설문에 답하시기 전, 대상자녀가 누구인지 위의 표에 O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A. 자녀의 학교생활

1. 자녀가 **학교생활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아 한다 ② 좋아 한다 ③ 보통이다 ④ 싫어한다 ⑤ 매우 싫어한다
2.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한다 ② 잘 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못한다 ⑤ 매우 잘 못한다
3. 자녀의 **성적**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하는 편 ② 잘하는 편 ③ 보통 ④ 못하는 편 ⑤ 매우 못하는 편
4. 자녀는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은 편 ② 좋은 편 ③ 보통 ④ 나쁜 편 ⑤ 매우 나쁜 편
5. 자녀와 **교사와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은 편 ② 좋은 편 ③ 보통 ④ 나쁜 편 ⑤ 매우 나쁜 편
6. 또래에 비해 **자녀의 한국어 능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한다 ② 잘 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못한다 ⑤ 전혀 못 한다
7. 자녀가 **엄마의 본국어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8. 자녀가 다음 내용에서 교사와 친구에게 **차별을 당한 적이 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내용	교사				친구			
		정말 많다	많다	별로 없다	전혀없 다	정말 많다	많다	별로 없다	전혀없 다
1	엄마가 외국인이라								
2	다른 아이들과 외모가 달라서								
3	한국말을 잘 못해서								
4	공부를 못해서								
5	특별한 이유 없이								

9. 자녀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교에서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면, 그 빈도는 얼마나 됩니까?

번호	내용	전혀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매우 자주 있다
1	욕설·협박·모욕				
2	돈·물건 빼앗김				
3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				
4	신체적 폭행				
5	성추행 및 폭력				

10. 자녀가 학교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교사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 ② 자녀에 대한 부모의 노력 ③ 자녀의 노력
④ 교사와 부모의 잦은 연락 ⑤ 자녀 친구들의 협조

B.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해

1. 자녀와 관련된 다음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번호	활동내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2	자녀와의 의사소통					
3	자녀의 교우관계					
4	자녀의 학교성적					
5	나에 대한 자녀의 태도					

2. 자녀와 얘기하실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 ① 한국어 ② 본국어 ③ 한국어+본국어 ④ 제3국어 ⑤ 한국어+제3국어

3. 자녀와 얼마나 자주 얘기를 하십니까?

- ① 매일 자주 ② 매일 조금씩 ③ 필요한 경우에만 ④ 거의 하지 않는다

4. 자녀와 대화할 때 불편하십니까?

- ① 전혀 불편하지 않다 ② 불편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불편하다 ⑤ 많이 불편하다

5. 자녀와의 대화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 ② 내가 시간이 없어서 ③ 자녀가 시간이 없어서
④ 자녀가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⑤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⑥ 어렵지 않다

6. 자녀의 숙제를 얼마나 도와주십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3-4번 ③ 일주일에 1-2번 ④ 거의 도와주지 않는다

7. 숙제를 도와주실 때 가장 어려운 점은?

- ① 한국어 능력의 부족 ② 교과내용이 어려움 ③ 어려운 점 없음

8.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신다면 얼마나 자주 읽어주십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3-4번 ③ 일주일에 1-2번 ④ 거의 읽어주지 않는다

9. 귀하께서 자녀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에 얼마나 참석하십니까?

번호	활동내용	매우 많이 참석함	많이 참석함	보통으로 참석함	별로 참석안함	전혀 참석안함
1	교사면담					
2	안전지도					
3	참관수업					
4	운동회나 행사					
5	일일교사					
6	육성회나 학부모 모임					

10. 자녀의 선생님과 자녀에 대해 서로 연락을 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자주 한다 ② 자주 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하지 않는다 ⑤ 전혀 하지 않는다

11. 자녀의 선생님과 얘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내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 ② 내가 바빠서 ③ 교사가 바빠서
④ 교사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서 ⑤ 어려운 점이 없다

12.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가장 도움을 받는 사람은?

- ① 남편 ② 시부모와 친척 ③ 주변 본국출신 친구 ④ 자녀 친구의 부모
⑤ 기타 _____ ⑥없음

13. 다음 일들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알맞은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번 호	어려운 일들	매우 어렵다	어렵다	보통이다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해당 없음
1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						
2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						
3	자녀양육/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						
4	숙제도와주기/학습준비						
5	자녀의 생활지도						
6	자녀의 이성교제						
7	자녀의 인터넷 중독 또는 흡연						
8	자녀의 폭력행동						
9	자녀와의 의사소통						
10	자녀와 나의 갈등						
11	자녀와 남편사이의 갈등						
12	나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음						

* 다음 문항들은 본인이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A. 본인의 차별 및 인권침해 경험

1. 우리사회에서 차별당한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1-1로 가세요) ② 없다

☞ 1-1. 당신을 차별하는 한국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선생님 ② 이웃 주민 ③ 상점주인 ④ 버스 택시 운전자
 ⑤ 공무원 ⑥ 목사 신부님 등 성직자 ⑦ 다문화 지원 단체 및 상담원
 ⑧ 기타

2. 지역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해당란에 모두 표시하세요)

- ① 미숙한 한국어 ② 친구 사귀기의 힘들
 ③ 한국 사람들로 부터의 따돌림, 놀림, 구타당하는 것,
 ④ 소비수준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 ⑤ 기타

3. 우리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이유로 다음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지,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번호	문항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직업이나 직장을 구하는데 차별을 당한다.				
2	같은 일을 해도 남한 사람보다 돈을 적게 받는다.				
3	직장, 교회, 각종 공동체에서 내 의견을 존중받지 못한다.				
4	학교나 단체에서 차별을 받는다.				

4. 차별을 경험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상담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4-1로 가세요) ② 없다

☞ 4-1. 차별을 받았을 때 상담한 사람은 누구 입니까?

① 가족, 친척 ② 모국인 친구 ③ 한국인 친구 ④ 제3국 친구
 ⑤ 다문화 가정 지원 단체 및 상담원 ⑥ 성직자 ⑦ 신고전화(경찰, 검찰) ⑧ 기타

B.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1. 살고계신 한국인 이웃과 다음 일들을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알맞은 곳에 표시해 주세요.

번호	이웃과 하는 일들	매우 자주	자주	보통	거의 하지 않음	전혀 하지 않음
1	집을 비울 경우 아이를 맡기거나 집보기 부탁					
2	집안일을 서로 돕기					
3	생활용품이나 가사도구 등을 빌리거나 빌려주기					
4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빌리거나 빌려주기					
5	개인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					
6	일상생활이나 속상할 때 이야기하기					
7	경조사 참석					

2.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주세요.

번 호	내용	정말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이웃들과 거의 왕래가 없다					
2	나는 이웃들로부터 소외되고 무시당한다고 느낀다					
3	나는 지역사회와 행사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4	이웃들은 나의 본국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준다					
5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이웃사람과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C. 신상정보

1. 귀하의 본국은 어디입니까? _____
2.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하셨습니까? ① 예(☞ 2-1로 가세요) ② 아니오
☞ 2-1. 한국국적을 취득하셨다면 언제 하셨습니까? _____년도
3.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_____년도
4. 한국에는 언제 처음으로 들어오셨습니까? _____년도
5. 현재까지 한국에서 거주하신 기간은? _____년
6.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명
7.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 해당하는 번호에 모두 표해주십시오.
 ____ (1) 남편
 ____ (2) 현재의 남편과의 사이에 난 자녀
 ____ (3) 나의 이전 결혼에서 난 자녀
 ____ (4) 남편이 이전 결혼에서 난 자녀
 ____ (5)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

- ___ (6) 남편의 할머니, 할아버지
 ___ (7) 남편의 형제
 ___ (8) 나의 부모, 형제, 그 외 친척

8. 본인과 남편에 대한 정보를 적어주십시오.

	본인	남편
나이	세	세
학력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이상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이상
종교	무교 개신교 가톨릭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통일교 기타	무교 개신교 가톨릭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통일교 기타
직업	농림어업 기술공·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 생산직 단순노무 기타 주부	농림어업 기술공·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 생산직 단순노무 기타 무직

9. 귀하의 한국어와 본국어 능력에 대해서 가장 알맞은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매우 잘 한다	잘 한다	보통 이다	못 한다	매우 못 한다
나의 한국말 실력	1	말하기					
	2	듣기					
	3	읽기					
	4	쓰기					
나의 본국어 실력	1	말하기					
	2	듣기					
	3	읽기					
	4	쓰기					

10. 남편과 이야기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 ① 한국어 ② 본국어 ③ 한국어+본국어 ④ 제3국어 ⑤ 한국어+제3국어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어>

結婚移住女性及び子女の人権に関する実態調査研究

こんにちは。

私ども国家人権委員会 光州地域事務所と光州YMCAは、皆様の人権を保護し向上させることを主な目的に活動しております。国家人権委員会 光州地域事務所は、光州YMCAと共同で、光州・全南・全北地域に住む多文化家族の父母とお子様の人権に関する調査を行っております。

お答えいただいた内容は統計としてのみ処理されます。よって、内容については、その秘密が完全に保証されることを約束いたします。ご多忙中とは存じますが、大切なお時間を私どもの研究に割いてくださり、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009年2月

国家人権委員会 光州地域事務所
光州YMCA

□ 本調査に関してご質問等ございましたら下記の連絡先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ませ。

国家人権委員会 光州地域事務所 (062-710-9710~6)/光州YMCA(062-232-6131)

* お子様について下記にご記入ください。

順序 年齢 性別 教育機関 学年 同居・別居

一人目のお子様 ____ 才 男・女, _____

二人目のお子様 ____ 才 男・女, _____

三人目のお子様 ____ 才 男・女, _____

四人目のお子様 ____ 才 男・女, _____

五人目のお子様 ____ 才 男・女, _____

* 次はお様が経験したことのある差別に関する質問です。高校、中学校もしくは小学校高学年(4-6学年)以上のお子様を対象とした質問となります。

(質問に答える前に、上の表の対象となるお子様の欄に○印を記入してください。)

A. お子様の学校生活

1. お子様が学校生活を好んでいると思いますか?

① とても好んでいる ② 好んでいる ③ 普通 ④ 嫌っている ⑤ とても嫌っている

2. お子様が学校にちゃんと適応していると思いますか?

① とてもよく適応している ② よく適応している ③ 普通 ④ 適応できていない ⑤ 全然適応できていない

3. お子様の成績はどの程度だと思いますか?

① とても優秀な方 ② 優秀な方 ③ 普通 ④ できない方 ⑤ 全然できない方

4. お子様の友達との関係はどうだと思いますか?

① とても良い方 ② 良い方 ③ 普通 ④ 悪い方 ⑤ とても悪い方

5. お子様と先生との関係は同だと思いますか?

① とても良い方 ② 良い方 ③ 普通 ④ 悪い方 ⑤ とても悪い方

6. 他の子供と比べてお子様の韓国語能力はどうだと思いますか?

① とても上手だ ② 上手だ ③ 普通 ④ 下手だ ⑤ とても下手だ

7. お子様がお母様の母国語を学ぶことは必要だと思いますか?

① とても必要だと思う ② 必要だと思う ③ 普通 ④ 必要ないと思う ⑤ まったく必要ないと思う

8. 次の内容で、お子様が先生や友達から差別を受けたことがあるかどうか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

		先生				友達			
		本当に多い	多い	特にない	全くない	本当に多い	多い	特にない	全くない
1	お母さんが外国人だから								
2	他の子供たちと外見が違うから								
3	韓国語が下手だから								
4	勉強ができないから								
5	特別な理由もなく								

9. お子様が次のような理由で学校で被害を受けたことがあるかどうか、回答者のご意見に一番近い空欄に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

		全くない	時々ある	よくある	とてもよくある
1	悪口・強迫・侮辱				
2	かつあげ(お金・物)				
3	仲間はずれ				
4	身体的暴行				
5	セクハラ及び性的暴力				

10. お子様がもっと学校に適應するために一番必要だと思うことは何ですか?

- ① 先生の特別な配慮と関心 ② 子供に対する親の努力 ③ 子供の努力
④ 先生と親の間での頻繁な連絡 ⑤ 子供の友達との協力

B. 養育と教育について

1. お子様に関する次の項目についてどれだけ満足していますか?

		とても満足	満足	普通	不満	とても不満
1	子供と一緒に過ごす時間					
2	子供との意思疎通					
3	子供の交友関係					
4	子供の学校の成績					
5	私に対する子供の態度					

2. お子様と話すときには何語を使っていますか?

- ① 韓国語 ② 母国語 ③ 韓国語+母国語 ④ 第三外国語 ⑤ 韓国語+第三外国語

3. お子様とどれだけ頻繁に話していますか?

- ① とても頻繁に ② 毎日少しずつ ③ 必要なときだけ ④ ほとんどしない

4. お子様と会話するのは不便ですか?

- ① 全く不便でない ② 不便でない ③ 普通
④ 不便だ ⑤ とても不便だ

5. お子様との会話が難しい理由は何ですか?

- ① 私が韓国語を話せないから ② 私に時間がないから ③ 子供に時間がないから
④ 子供がいやがるから ⑤ 私がいやだから ⑥ 難しい

6. お子様の宿題をどれだけ手伝っていますか?

- ① ほぼ毎日 ② 一週間に3回から4回 ③ 一週間に1回から2回 ④ ほぼ手伝わない

7. 宿題を手伝うときに難しい点は何ですか?

- ① 韓国語能力の不足 ② 教科内容が難しい ③ 難しい点はない

8. お子様にどのくらい頻繁に本を読んであげていますか?

- ① ほぼ毎日 ② 一週間に3回から4回 ③ 一週間に1回から2回 ④ ほとんど読んであげない

9. お子様の学校で行われるいろいろな活動にどれだけ参加していますか?

		とてもよく参加している	よく参加している	普通	あまり参加していない	全く参加していない
1	先生との面談					
2	安全指導					
3	参観日					
4	運動会や行事					
5	一日先生					
6	育成会や父母の集まり					

10. お子様の先生と、お子様について連絡を取り合っていますか?

- ① とても頻繁に連絡している ② よく連絡している ③ 普通
④ 特に連絡していない ⑤ 全く連絡していない

11. お子様の先生との連絡が難しい理由は何ですか?

- ① 私が韓国語を話せないから ② 私が忙しいから ③ 先生が忙しいから
④ 先生が私を避けているようだから ⑤ 難しい

12. お子様の教育に必要な情報を得るのに一番役に立つ人は誰ですか?

- ① 主人 ② 主人の両親や家族 ③ 周りの韓国人の友人 ④ 子供の友達の両親
⑤ その他 ⑥ ない

13. 次の項目についてどれだけ大変か、ご本人のご意見に一番近い空欄に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

		と と も 大 変	大 変	普 通	大 変 で は な い	全 く 大 変 で は な い	該 当 な し
1	子供を預かってくれる人を探す こと						
2	私教育費及び養育費						
3	子供の養育・教育に関する情報 不足						
4	宿題の手伝い/学習準備						
5	子供の生活指導						
6	子供の異性交際						
7	子供のインターネット中毒また は喫煙						
8	子供の暴力的行動						
9	子供との意思疎通						
10	子供と私の葛藤						
11	子供と父親との葛藤						
12	私を母と認めない						

A. ご本人の差別及び人権侵害に関する経験について

* 次の項目はご本人が経験されたことについての質問です。

1. 韓国社会で差別されたと感じたことはありますか？

①ある(☞1-1へ) ② ない

☞ 1-1. あなたを差別する韓国人は誰だと思いますか？

① 学校の先生 ② 近所の住民 ③ 商店の主人 ④ バスやタクシーの運転手
⑤ 公務員 ⑥ 牧師や神父などの聖職者 ⑦ 多文化支援団体及び相談員
⑧ その他

2. 地域社会やの苦労にはどんなことがありますか?(該当全てに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

① 未熟な韓国語 ② 友達づきあい
③ 韓国人からの仲間はずれ、からかい、バッシング ④ 消費水準の差からくる疎外感
⑤ その他

3. 韓国社会で結婚移住女性という理由で次のような経験をした事がありますか? ご本人のご意見に一番近い空欄に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

		とてもあてはまる	多少あてはまる	あまりあてはまらない	全くあてはまらない
1	仕事や職場を探すときに差別される				
2	同じ仕事をしていても他の人より給料が安い				
3	職場、教会、各種共同体で私の意見は尊重されない				
4	近所や団地で差別される				

4. 差別を経験した時に他の人に相談した事がありますか?

① ある(☞4-1へ) ② ない

☞ 4-1. 相談したときに助けになったのはどんな人ですか?

① 家族・親戚 ② 母国人の友人 ③ 韓国人の友人 ④ 第三国の友人
⑤ 多文化家庭支援団体及び相談員 ⑥ 聖職者 ⑦ 通報電話(警察・検察) ⑧ その他

B. 地域社会での活動及び個人情報

1. 近所の人々(韓国人)と、どのくらい次の項目にあてはまる行動をしていますか?ご本人のご意見に一番近い空欄に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

		とても頻繁	頻繁	普通	ほとんどしていない	全くしていない
1	家を空けるときに子供を預けたり、留守番を頼む					
2	家事を互いに助け合う					
3	生活用品や家事道具などを貸し借りする					
4	急にお金が必要になったときに貸し借りする					
5	個人や家庭に問題が起こったときに相談する					
6	日常生活についてや嫌なことがあったときに話す					
7	慶弔事に参席する					

2. 次の項目を読んで、ご本人のご意見に一番近い空欄に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

		とてもあてはまる	あてはまる	普通	あまりあてはまらない	全くあてはまらない
1	私は近所の人たちとほとんど行き来がない					
2	私は近所の人たちから疎外され、無視されていると感じている					
3	私は地域社会の行事や活動に積極的に参加している					
4	近所の人たちは私の母国文化を理解してくれる					
5	主人や義母・義父が近所づきあいをあまり好まない					

3. 回答者の母国はどこですか? _____

4. 現在、韓国国籍を取得していますか? ① はい(☞4-1へ) ② いいえ

☞4-1. 韓国国籍を取得したのはいつですか? ____年

5. 結婚されたのはいつですか? ____年

6. 韓国に初めて来たのはいつですか? ____年

7. 現在、韓国に住んで何年になりますか? ____年

8. 現在一緒に住んでいるご家族は全部で何人ですか? ____名

9. 現在一緒に住んでいるご家族に該当する番号に全て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

__ (1) ご主人

__ (2) 現在のご主人とのお子様

__ (3) 回答者の以前の結婚でのお子様

__ (4) ご主人の以前の結婚でのお子様

__ (5) ご主人のご両親

__ (6) ご主人の祖父母

__ (7) ご主人のご兄弟

__ (8) 回答者のご両親、ご兄弟、またはその他のご親戚

10. ご本人とご主人に関する情報をご記入ください。

	ご本人	ご主人
年齢	____ 才	____ 才
学歴	無学歴 小卒 中卒 高卒 専門学校 大卒 大学院以上	無学歴 小卒 中卒 高卒 専門学校 大卒 大学院以上
宗教	無宗教 キリシト教 カソリック 仏教 ヒンドゥー教 イスラム教 統一教会 その他	無宗教 キリシト教 カソリック 仏教 ヒンドゥー教 イスラム教 統一教会 その他
職業	農林漁業 技術工・純専門家 事務 サービス・販売 生産 単純労務 その他 主婦	農林漁業 技術工・純専門家 事務 サービス・販売 生産 単純労務 その他 無職

9. 回答者の韓国語と母国語能力について、ご本人のご意見に一番近い空欄に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

			とても上手	上手	普通	できない	とてもできない
私の韓国語の実力	1	会話					
	2	聞き取り					
	3	読み					
	4	書き					
私の母国語の実力	1	会話					
	2	聞き取り					
	3	読み					
	4	書き					

11. ご主人とお話されるときはどの言語を使いますか？

① 韓国語 ② 母国語 ③ 韓国語+母国語 ④ 第外三国語 ⑤ 韓国語+第三外国語

皆さんのお子様のご意見も人権に関する状況の改善にとっても役立ちます。お子様も今回の調査にご協力いただけるかどうか、下記に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ご協力くださいました方には所定の御礼を差し上げております。

協力可能 協力不可能

☞ ご協力いただける場合は連絡先を下記にご記入くださいませ。

連絡先

アンケートにご協力くださりまして、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영어>

Human Rights of Foreign Women Married to Korean Men, and Their Offspring

Hell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s Gwangju Office and Gwangju YMCA are organizations devoted to protecting and improving your human right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s Gwangju Office, along with Gwangju YMCA, has planned this survey to examine the human rights of parents an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Gwangju, Jeonnam and Jeonbuk.

Your responses will be statistically processed and will be kept confidential. Thank you for sparing your time to participate in our survey.

February 2009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s Gwangju Office
Gwangju YMCA

* Please indicate all of your offspring below.

Offspring	Age	Sex	School	Grade	Co-residence?
1 st	_____	M/F, _____	_____	_____	_____
2 nd	_____	M/F, _____	_____	_____	_____
3 rd	_____	M/F, _____	_____	_____	_____
4 th	_____	M/F, _____	_____	_____	_____
5 th	_____	M/F, _____	_____	_____	_____

* The following are questions about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d by your offspring. Answer them for your offspring that are attending high school, middle school, or elementary school upper grades (4th–6th grades).

(Before proceeding, please circle the offspring you are considering for this section.)

☐ If you have any inquiries, please contact us 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s Gwangju Office (062-710-9710~6) / Gwangju YMCA (062-232-6131)

A. School Life

1. Do you think your child **likes school life**?

① Strongly agreed ② Agreed ③ Neutral ④ Disagreed ⑤ Strongly Disagreed

2. Do you think your child **adjusts to school life** well?

① Strongly agreed ② Agreed ③ Neutral ④ Disagreed ⑤ Strongly Disagreed

3. What is the level of your child's **grades**?

① Very good ② Good ③ Average ④ Poor ⑤ Very Poor

4. How is your child's **relationship with friends**?

① Very good ② Good ③ Average ④ Poor ⑤ Very Poor

4. How is your child's **relationship with teachers**?

① Very good ② Good ③ Average ④ Poor ⑤ Very Poor

6. How do your child's **Korean skills** compare to those of his/her peers?

① Very good ② Good ③ Average ④ Poor ⑤ Very Poor

7. Do you think it is necessary for your child to learn **your mother tongue**?

① Very necessary ② Necessary ③ Neutral ④ Unnecessary ⑤ Never Necessary

8. Please indicate whether your child has experienced **discrimination** by friends or teachers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Teachers				Friends			
		Very Often	Often	Rarely	Never	Very Often	Often	Rarely	Never
1	Because mother is foreigner								
2	Because of different appearance								
3	Because child cannot speak Korean								
4	Because child does not have good grades								
5	For no particular reason								

9. Please indicate whether your child has been victimized in school for the following reasons:

		Never	Sometimes	Often	Very Often
1	Abusive Language, blackmailing, insulting				
2	Snatched money/ possession				
3	Isolated by friends				
4	Physical violence				
5	Sexual harassment or violence				

10. What do you think is most needed for your child's better adjustment to school?

- ① Teachers' consideration and care ② Parents' efforts ③ Child's efforts
 ④ Frequent correspondence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⑤ Cooperation of friends

B. About Childcare and Education

1. How are satisfied are you with the following aspects of you and your child?

		Very Satisfied	Satisfied	Average	Dissatisfied	Very Dissatisfied
1	Time spent with child					
2	Communication with child					
3	Child's social relationship					
4	Child's grades					
5	Child's attitude toward you					

2. Which language do you use to talk to your child?

- ① Korean ② Mother Tongue ③ Korean + Mother Tongue
 ④ Other Language ⑤ Korean + Other Language

3. How often do you talk to your child?

- ① Frequently, everyday ② Little, everyday ③ When needed ④ Hardly

4. Do you feel discomfort when talking to your child?

- ① Never ② No ③ Neutral ④ Yes ⑤ Very much

5. Why do you find it difficult to talk to your child?

- ① I cannot speak Korean well ② I do not have time ③ Child does not have time
④ Child refuses to talk ⑤ I refuse to talk ⑥ Not difficult

6. How often you do help your child with homework?

- ① Almost everyday ② 3-4 times a week ③ 1-2 times a week ④ Hardly

7. What is most difficult when helping your child with homework?

- ① Lack of Korean skills ② Difficult contents ③ Not difficult

8. How often do you read to your child?

- ① Almost everyday ② 3-4 times a week ③ 1-2 times a week ④ Hardly

9. How actively do you participate in your child's school activities?

		Very actively	Actively	Average	Rarely	Never
1	Counseling with teachers					
2	Safety guidelines					
3	Class observation					
4	Athletic competition/event					
5	Daily Teacher					
6	Parents' Meeting					

10. How often do you talk to your child's teachers?

- ① Very Often ② Often ③ Average ④ Rarely ⑤ Never

11. What is most difficult when talking to your child's teachers?

- ① I cannot speak Korean well ② I am busy ③ Teachers are busy ④ Teachers seem
to avoid me to talk ⑥ Not difficult

12. Where do you find the most information for childcare and education?

- ① Husband ② Husband's parents and relatives ③ Friend from the same nationality ④
Parents of child's friends ⑤ Other ⑥ N/A

13. Please indicate whether you have difficulties with the following issues:

		Very difficult	Difficult	Average	Not difficult	Never difficult	N/A
1	Finding someone who can take care of child						
2	Cost of private education/ childcare						
3	Lack of information on childcare/education						
4	Helping with homework and schoolwork						
5	Child's discipline						
6	Child's dating						
7	Child's addiction to the Internet or smoking						
8	Child's violent action						
9	Communication with child						
10	Conflicts with child						
11	Conflicts between child and husband						
12	Child does not accept you as his/her mother						

A.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or Human Rights Violation

* The following questions ask about your experiences.

1. Have you ever felt that you are being discriminated by the Korean society?

① Yes (☞ Go to Q1-1) ② No

☞ 1-1. Who do you think discriminates you?

① Child's teachers ② Neighbors ③ Owners of local stores ④ Bus/taxi drivers
⑤ Government officials ⑥ Priests, etc
⑦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ganizations/counselors ⑧ Other

2. What are the difficulties you experience in community (check all that apply).

① Lack of Korean skills ② Difficulties in finding friends
③ Isolation, teasing, and/or violence of Korean people
④ Isolation from economic status ⑤ Other

3. Have you ever experienced the following because you are a foreign woman married to a Korean man?

		Very often	Yes	Rarely	Never
1	Discriminated in finding jobs				
2	Make less than Korean people in the same position				
3	My opinions are not respected at work, in church, and in other communities.				
4	Discriminated by neighbors or local organizations.				

4. Have you ever talked to others when you were discriminated?

① Yes (☞GotoQ4-1)②No

☞ 4-1. Who was most helpful?

- ① Family, relatives ② Friends from the same nationality ③ Korean friends
 ④ Other friends ⑤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ganizations/counselors
 ⑥ Priests ⑦ Call Center (Police, Public Prosecutor) ⑧ Other

B. Activities in Community and Personal Information

1. Please indicate how often you interact with your Korean neighbors.

		Very often	Often	Average	Rarely	Never
1	Asking favor to take care of child or house while away					
2	Helping each other's house chores					
3	Lending/borrowing home items or cookware					
4	Lending/borrowing money					
5	Discussing personal or family problems					
6	Talking about life and troubles					
7	Participating in each other's family events					

2. Read the following and check what best describes your situation.

		Always	Yes	Average	Rarely	Never
1	I rarely interact with neighbors.					
2	I feel that I am isolated and ignored by neighbors.					
3	I actively participate in community events and activities.					
4	My neighbors understand and tolerate my culture.					
5	My husband and/or mother-in-law do not want me to meet other people.					

3. Where are you originally from? _____

4. Do you have Korean citizenship? ① Yes (☞ Go to 2-1.) ② No

☞ 4-1. When did you obtain Korean citizenship? Year _____

5. When did you get married? Year _____

6. When did you first enter Korea? Year _____

7. For how long have you lived in Korea? Year _____

8.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family?

9. Please check all family members currently living together.

___ (1) Husband

___ (2) Children with current husband

___ (3) Children from previous marriage

___ (4) Children from husband's previous marriage

___ (5) Husband's mother/father

___ (6) Husband's grandmother/grandfather

___ (7) Husband's siblings

___ (8) My parents/siblings/relatives

10. Please provide us with your and your husband's information.

	You	Your Husband
Age	_____	_____
Educ ation	N/A Elementary Middle High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r higher	N/A Elementary Middle High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r higher
Reli gion	N/A Christian Catholic Buddhism Hinduism Islam Tongil Other	N/A Christian Catholic Buddhism Hinduism Islam Tongil Other
Occu patio n	Farm/Fishery Mechanical Eng./Technician Office Worker Service/Sale Manufacture Labor Other Housewife	Farm/Fishery Mechanical Eng./Technician Office Worker Service/Sale Manufacture Labor Other Unemployed

9. Please check one that best describes your Korean and mother tongue skills.

			Very good	Good	Average	Poor	Very poor
My Korean Skills	1	Speaking					
	2	Listening					
	3	Reading					
	4	Writing					
My Mother Tongue Skills	1	Speaking					
	2	Listening					
	3	Reading					
	4	Writing					

10. Which language(s) do you use to talk to your husband?

- ① Korean ② Mother Tongue ③ Korean + Mother Tongue
④ Other Language ⑤ Korean + Other Language

Your children's opinions would greatly contribute to improving and claiming your and your children's human rights. We would appreciate it if your children can participate in this survey. Please tell us if your children can participate. Participants will be rewarded.

Available / Unavailable

☞ If available, please give us a valid contact information.

Contact: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중국어>

结婚移住女性及儿女人权实际状况调查研究

您好！

国家人权委员会广州地区办事处和广州YMCA各项活动的主要目的为保护和提高各位的人权。国家人权委员会广州地区办事处与广州YMCA一起，共同实施广州·全罗南道·全罗北道地区多文化家庭父母和儿女的人权相关调查。

您回答的内容，只是用于统计处理，保证彻底的保密。真诚感谢您百忙之中参与我们的研究。

2009年2月

国家人权委员会广州地区办事处
广州YMCA

☐ 如有本调查相关的咨询事项，请拨打如下电话。

国家人权委员会广州地区办事处(062-710-9710~6) / 广州YMCA (062-232-6131)

* 请在下面填写您家庭的所有子女。

子女顺序 年龄 性别 教育机关 学年 是否同住

第一子女 ____ 岁 男 / 女 , _____

第二子女 ____ 岁 男 / 女 , _____

第三子女 ____ 岁 男 / 女 , _____

第四子女 ____ 岁 男 / 女 , _____

第五子女 ____ 岁 男 / 女 , _____

* 如下是子女曾经受到的不平等待遇相关提问。您的子女中如有高中、初中或小学高年级(4-6年级)子女，请回答提问。

(回答提问之前，请在上边表格中，用O表示对象子女是谁。)

A. 子女的学校生活

1. 您认为您的子女喜欢学校生活吗?

① 很喜欢 ② 喜欢 ③ 一般 ④ 不喜欢 ⑤ 很不喜欢

2. 您认为您的子女适应学校吗?

① 非常适应 ② 很适应 ③ 一般 ④ 不太适应 ⑤ 非常不适应

3. 您认为您的子女**成绩**如何?

① 非常好 ② 好 ③ 一般 ④ 不好 ⑤ 很不好

4. 您认为您的子女与**朋友们的关系**如何?

① 非常好 ② 好 ③ 一般 ④ 不好 ⑤ 很不好

5. 您认为您的子女和**老师的关系**如何?

① 非常好 ② 好 ③ 一般 ④ 不好 ⑤ 很不好

6. 与相同年龄的孩子相比, 您子女的**韩国语能力**如何?

① 非常好 ② 好 ③ 一般 ④ 不好 ⑤ 很不好

7. 您的子女认为有必要学习**妈妈的本国语**吗?

① 很必要 ② 必要 ③ 一般 ④ 不必要 ⑤ 根本不必要

8. 如下内容中选择您的子女是否被老师和朋友**受过不公正待遇**。

		老师				朋友			
		很多	多	不多	根本没有	很多	多	不多	根本没有
1	因为妈妈是外国人								
2	与其他孩子相比 外貌不同								
3	韩国语说的不好								
4	学习不好								
5	没有特别的理由								

9. 子女是不是因为如下原因, 在学校受到过不公正待遇, 请选择。

		根本没有	偶尔有	经常有	非常多
1	骂·胁迫·侮辱				
2	被抢钱或物品				
3	朋友们不理				
4	身体的暴行				
5	性骚扰及暴力				

10. 您认为您的子女为了更好地适应学校，最需要的部分是什么？

- ① 老师的格外的关怀和关心 ② 对子女的父母的努力 ③ 子女的努力 ④ 老师和父母经常联系 ⑤ 子女朋友们的协助

B. 子女养育和教育相关

1. 您对子女相关的如下事情，满意度如何？

		很满意	满意	一般	不满意	很不满意
1	和子女一起的时间					
2	与子女的交流					
3	子女的校友关系					
4	子女的学校成绩					
5	对您的子女的态度					

2. 与子女谈话时使用哪个语言？

- ① 韩国语 ② 本国语 ③ 韩国语+本国语 ④ 第三国语 ⑤ 韩国语+第三国语

3. 您与子女经常谈话吗？

- ① 每天经常 ② 每天不多 ③ 只是必要时 ④ 几乎不谈

4. 与子女谈话时不自然吗？

- ① 很自然 ② 自然 ③ 一般 ④ 不自然 ⑤ 很不自然

5. 与子女对话困难的原因是什么？

- ① 我的韩国语不好 ② 我没有时间 ③ 子女没有时间 ④ 子女不愿意谈话 ⑤ 我不愿意谈话 ⑥ 不困难

6. 帮助子女作业多少？

- ① 几乎每天 ② 一周3-4次 ③ 一周1-2次 ④ 几乎不帮

7. 帮助作业时，最困难的问题是？

- ① 韩国语能力不足 ② 教课内容难 ③ 没有困难

8. 您读书给子女的时间如何？

- ① 几乎每天 ② 一周3-4次 ③ 一周1-2次 ④ 几乎不做

9. 您参加子女的各种学校活动如何?

		参加非常多	多参加	一般参加	不怎么参加	根本不参加
1	老师面谈					
2	安全指导					
3	参观授课					
4	运动会或活动					
5	每日教师					
6	培养会议或家长聚会					

10. 您和子女的老师相互联系吗?

① 联系非常多 ② 很多 ③ 一般 ④ 不怎么联系 ⑤ 根本不联系

11. 跟子女的老师谈话困难的原因是什么?

① 我的韩国语不好 ② 我忙 ③ 老师忙 ④ 老师好像回避我 ⑤ 没有困难

12. 获得子女教育所需信息时, 最有帮助的人是?

① 丈夫 ② 丈夫的父母和亲戚 ③ 周边本国出身朋友 ④ 子女朋友的父母
⑤ 其他 ⑥ 无

13. 您是否因如下原因有困难, 请选择。

		很难	难	一般	不难	一点不难	无相关
1	寻找照顾子女的人						
2	业余教育费用及养育费用						
3	子女养育/教育相关信息不足						
4	帮助作业/准备学习						
5	子女的生活指导						
6	子女的异性关系						
7	子女的网络中毒或吸烟						
8	子女的暴力行动						
9	与子女的交流						
10	子女和我的矛盾						
11	子女和丈夫之间的矛盾						
12	不认为我是母亲						

A. 本人受到不公正待遇及人权被侵害经验

*** 对如下提问, 请填写自己曾经经验过的事情。**

1. 您感觉过我们社会中受到不公正待遇?

① 有(☞ 请填写1-1) ② 无

☞ 1-1. 您认为给您不公正待遇的韩国人是谁?

① 学校老师 ② 邻居 ③ 商店主人 ④ 公交车出租车司机 ⑤ 公务员
⑥ 牧师神父等教会人员 ⑦ 多文化支援团体及咨询人员 ⑧ 其他

2. 在地区社会中遇到的困难是什么?(全部表示相应的栏目)

① 韩国语不足 ② 交朋友困难 ③ 韩国人排除、侮辱、殴打我
④ 消费水平差异中感觉到的隔离感 ⑤ 其他

3. 您是否在我们社会中, 因为是结婚迁入女性, 而碰到过如下事情? 请选择最近似的选项。

		非常是	有点是	不是	根本不是
1	找职业或单位时, 差别对待我				
2	做同样的活, 却比别人工资少				
3	在单位、教会、团体中, 我的意见不受尊重				
4	邻居或团体排除我				

4. 感受到不公正待遇后, 与别人咨询过吗?

① 有(☞ 请填写4-1) ② 没有

☞ 4-1. 咨询后, 给您帮助的人是谁?

① 家庭、亲戚 ② 本国人朋友 ③ 韩国人朋友 ④ 第三国朋友
⑤ 多文化家庭支援团体及咨询人员 ⑥ 教会人员 ⑦ 申报电话(警察, 检察官) ⑧ 其他

B. 地区社会中的活动及个人信息

1. 与韩国人邻居做如下事情做多次？请选择最近似的选项。

		很多	多	一般	几乎不做	一点都不作
1	外出时托付孩子或托付看家					
2	互相帮组家务活					
3	互相借给生活用品或家务或工具等					
4	急需钱时，借或借给邻居					
5	个人或家庭有困难时，讨论					
6	日常生活或伤心时谈心					
7	参加红白喜事					

2. 读如下提问后，选择最近似自己意见的项目。

		非常是	是	一般	不怎么是	一点都不不是
1	我几乎与邻居不来往					
2	我觉得邻居们不理我、排除我					
3	我积极参加地区社会的节日活动及各种活动					
4	邻居理解和接受我的本国文化					
5	丈夫或丈夫的父母不喜欢我跟邻居接触					

3. 您的本国是？ _____

4. 目前您获得了韩国国籍吗 ① 是(☞ 请填写2-1) ② 没有

☞ 4-1. 如果您取得了韩国国籍，哪年取得的？ _____年

5. 您哪年结婚？ _____年

6. 您第一次到韩国是哪年？ _____年

7. 目前为止您居住在韩国的时间是？ _____年

8. 目前一起生活的家庭成员有几位？ 位

9. 请选择现在一起生活的家庭成员的相应编号。

- ___ (1) 丈夫
 ___ (2) 与现在的丈夫之间出生的子女
 ___ (3) 我的以前结婚中出生的子女
 ___ (4) 丈夫的以前结婚中出生的子女
 ___ (5) 丈夫的妈妈、爸爸
 ___ (6) 丈夫的爷爷、奶奶
 ___ (7) 丈夫的兄弟
 ___ (8) 我的父母、兄弟、其他亲戚

10. 请填写本人和丈夫相关信息。

	本人	丈夫
年龄	_____ 岁	_____ 岁
学历	无 小学 初中 高中 专科 大学 研究生以上	无 小学 初中 高中 专科 大学 研究生以上
宗教	无 新教 天主教 佛教 印度教 伊斯兰教 统一教 其他	无 新教 天主教 佛教 印度教 伊斯兰教 统一教 其他
职业	农林渔业/技术工 准专家 办公室人员 服务/销售 生产者 单纯 其他 主妇	农林渔业/技术工 准专家 办公室人员 服务/销售 生产者 单纯 其他 无职业

9. 请选择您的韩国语和本国语能力，请选择最近似的选项。

			非常好	很好	一般	不好	很不好
我的韩国语实力	1	说					
	2	听					
	3	读					
	4	写					
我的本国语实力	1	说					
	2	听					
	3	读					
	4	写					

10. 与丈夫谈话时，使用哪种语言？

- ① 韩国语 ② 本国语 ③ 韩国语+本国语 ④ 第三国语 ⑤ 韩国语+第三国语

各位子女的意见，对改善和发展人权状况，会有很多帮助。如果你的子女参与本次调查，将会非常感谢。请告诉子女是否参与，如果参与，将给与一定答礼。

可以参与 不能参与

☞ 如果可能，请填写能够联系的联系方式。

联系方式：

感谢您认真填写本次提问。

<베트남어>

Bản điều tra tình hình nhân quyền của phụ nữ kết hôn người nước ngoài và con cái.

Xin chào các bạn.

Hội uỷ quyền nhân quyền quốc gia, văn phòng khu vực Kwang Ju đang hoạt động với mục đích chính là bảo vệ và gìn giữ quyền lợi về nhân quyền của các bạn. Văn phòng hội nhân quyền tỉnh Kwang Ju của chúng tôi hợp lực cùng YMCA thực hiện bản điều tra liên quan về nhân quyền của ba mẹ và con cái gia đình đa văn hoá khu vực phía bắc-chonnam-kwangju.

Vì nội dung mà các bạn trả lời sau đây sẽ được xử lý theo tính thông kê nên xin hứa với các bạn là chúng tôi sẽ bảo đảm bí mật hoàn toàn mọi thông tin. Xin trân thành cảm ơn các bạn đã giành thời gian quý báu để giúp chúng tôi hoàn thành bản điều tra này.

Tháng 2 Năm 2009

Hội uỷ quyền nhân quyền quốc gia, văn phòng khu vực Kwang Ju
Kwang Ju YMCA

☐ Mọi hình huống thắc mắc thuộc về bản điều tra này xin vui lòng liên lạc theo địa chỉ dưới đây. Hội uỷ quyền nhân quyền quốc gia, văn phòng khu vực Kwang Ju (062-710-9710~6)/ Kwang Ju YMCA(062-232 6141~4).

*** Xin hãy điền đầy đủ các mục sau về con cái của các bạn.**

Thứ tự	Tuổi	giới tính	Trường học	Năm học	Động cơ học
Con thứ 1	_____	nam/nữ ,	_____	_____	
Con thứ 2	_____	nam/nữ ,	_____	_____	
Con thứ 3	_____	nam/nữ ,	_____	_____	
Con thứ 4	_____	nam/nữ ,	_____	_____	
Con thứ 5	_____	nam/nữ ,	_____	_____	

* Sau đây là câu hỏi về sự phân biệt mà trẻ kinh nghiệm. Hiện nay các con của bạn có thể đang học trung học, trung học cơ sở hay tiểu học, xin hãy điền vào câu hỏi tình trạng của người con lớn nhất của bạn.

(Trước khi điền vào bản điều tra, bạn lấy đứa con nào làm mẫu chuẩn cho câu trả lời, xin hãy đánh dấu O vào tên của bé.

A. Sinh hoạt trường học của con.

1. Bạn nghĩ con bạn **thích đến trường?**
 ① Rất thích ② Thích ③ Bình thường ④ Ghét ⑤ Rất ghét.
2. Bạn nghĩ con bạn **thích ứng tốt với hoàn cảnh ở trường?**
 ① Rất tốt ② Tốt ③ Bình thường ④ Không tốt ⑤ Rất không tốt.
3. Bạn nghĩ **tính tình của con bạn** thuộc mức độ nào?
 ① Rất tốt ② Tốt ③ Bình thường ④ Không tốt lắm ⑤ Rất không tốt
4. Bạn nghĩ **quan hệ của con bạn với bạn bè** như thế nào?
 ① Rất tốt ② Tốt ③ Bình thường ④ Xấu ⑤ Rất xấu
5. Bạn nghĩ **quan hệ của con bạn với giáo viên lớp** như thế nào?
 ① Rất tốt ② Tốt ③ Bình thường ④ Xấu ⑤ Rất xấu
6. So với bạn đồng lứa bạn nghĩ **khả năng tiếng hàn của con bạn?**
 ① Rất tốt ② Tốt ③ Bình thường ④ Không tệ lắm ⑤ Rất tệ
7. Theo bạn con cái **có cần học ngôn ngữ của mẹ** hay không?
 ① Rất cần ② Cần ③ Bình thường ④ Không cần lắm ⑤ Hoàn toàn không cần
8. Con bạn đã từng bị giáo viên và bạn bè phân biệt đối xử hay không, nếu có xin hãy điền vào bảng sau.

S T T	Nội dung	Giáo viên				Bạn bè			
		Rất nhiều	Nhi ều	Ít khí	Khô ng	Rất nhiều	Nhi ều	Ít khí	khôn g
1	Vì Mẹ là người nước ngoài.								
2	Vì hình dáng bề ngoài biệt								
3	Vì tiếng hàn không giỏi								
4	Vì học không giỏi								
5	Không có lý do đặc biệt nào								

9. Vì những lý do sau mà con bạn thành người bị hại trong trường học không? và nếu có thì mức độ của nó như thế nào?

Stt	Nội dung	Hoàn toàn không	Thỉnh thoảng	Thường có	Rất thường
1	La mắng, áp bức, bị chửi thề				
2	Bị giật tiền, đồ đạc				
3	Bị tách biệt với bạn				
4	Bạo lực thân thể				
5	Xâm phạm giới tính và bạo lực				

10. Bạn nghĩ điều gì là cần thiết nhất để con bạn thích ứng hơn với cuộc sống trường lớp?

- ① sự quan tâm và đặc biệt nâng đỡ của giáo viên
 ② sự nỗ lực của ba mẹ với con cái ③ Sự nỗ lực của con cái.
 ④ Sự liên lạc qua lại giữa ba mẹ và giáo viên ⑤ Hỗ trợ của bạn của con

B. Về nuôi dưỡng và giáo dục con cái.

1. Bạn thỏa mãn bao nhiêu về các việc dưới đây với con cái mình?

STT	Nội dung hoạt động	Rất thỏa mãn	Thỏa mãn	Bình thường	Không thỏa mãn	Rất không
1	Thời gian bên cạnh con					
2	Giao tiếp với con					
3	Quan hệ bạn bè của con					
4	Thành tích ở trường					
5	Thái độ của con với bạn					

2. Bạn dùng ngôn ngữ nào nói chuyện với con?

- ① Tiếng hàn ② Tiếng của bạn ③ cả 2 thứ tiếng
 ④ Ngôn ngữ khác ⑤ Tiếng hàn và ngôn ngữ khác.

3. Bạn thường trò chuyện với con bạn?

- ① Mỗi ngày ② Mỗi ngày 1 chút ③ Chỉ khi cần ④ Hầu khi không

4. Bạn có gặp bất tiện khi trò chuyện với con hay không?
 ① Hoàn toàn không ② Không ③ Bình thường
 ④ Bất tiện ⑤ Bất tiện nhiều
5. Lý do nào khiến bạn khó khăn khi giao tiếp với con cái?
 ① Vì tôi không giỏi tiếng hàn ② Vì tôi không có thời gian
 ③ Vì con tôi không có thời gian ④ Vì con tôi không muốn nói chuyện với tôi ⑤ Vì tôi không muốn nói ⑥ Không khó khăn với tôi.
6. Bạn giúp con làm bài tập đến đâu?
 ① Hầu như mỗi ngày ② Tuần 3-4 lần ③ Tuần 1-2 lần ④ Hầu như không giúp gì.
7. Khi giúp con làm bài tập điều khó nhất với bạn là?
 ① Thiếu năng lực tiếng hàn ② Nội dung bài tập khó ③ Không có gì khó
8. Nếu đọc sách cho con, bạn đọc có thường xuyên không?
 ① Hầu như mỗi ngày ② Tuần 3-4 lần ③ Tuần 1-2 lần ④ Hầu như không.
9. Bạn tham gia các hoạt động đa dạng trong trường con bạn ở mức độ nào?
- | Stt | Nội dung hoạt động | Tham gia rất nhiều | Tham gia nhiều | Tham gia bình thường | Thường không | Hoàn toàn không |
|-----|------------------------|--------------------|----------------|----------------------|--------------|-----------------|
| 1 | Gặp gỡ giáo viên | | | | | |
| 2 | Hướng dẫn an toàn | | | | | |
| 3 | Lớp học ngoài trời | | | | | |
| 4 | Hội thao, chương trình | | | | | |
| 5 | Giáo viên mỗi ngày | | | | | |
| 6 | Hội phụ huynh | | | | | |
10. Bạn có liên lạc với giáo viên con bạn để hỏi thăm tình hình về con mình?
 ① Rất thường xuyên ② Thường xuyên ③ Bình thường
 ④ Không thường lắm ⑤ Hoàn toàn không
11. Nếu có khó khăn khi nói chuyện với giáo viên của con thì lý do là?
 ① Vì tôi không giỏi tiếng hàn ② Vì tôi bận ③ Vì giáo viên bận
 ④ Hình như giáo viên tránh né tôi ⑤ Không có gì khó với tôi.

12. Ai là người giúp đỡ bạn về thông tin giáo dục con cái?

- ① Chồng ② Ba mẹ và gia đình chồng ③ Gia đình của bạn
④ Ba mẹ của con bạn ⑤ Khác _____ ⑥ Không có

13. Xin hãy điền vào ô nào mà thích hợp với mức độ khó khăn của bạn.

Stt	Những khó khăn	Rất khó	Khó	Bình thường	Không khó mấy	Hoàn toàn không	Không giải đáp
1	Người chăm sóc cho bạn						
2	Tiền giáo dục và dưỡng dục						
3	Thiếu thông tin về giáo dục và nuôi dưỡng						
4	Giúp làm bài tập/chuẩn bị bài						
5	Hướng dẫn cuộc sống cho con						
6	Quan hệ bạn bè giới tính						
7	Nghiện internet hay hút thuốc						
8	Hành động bạo lực của con						
9	Giao tiếp của con						
10	Khó khăn trong quan hệ của tôi và con						
11	Khó khăn trong quan hệ của chồng và con						
12	Không nhận tôi là mẹ						

* Sau là phần câu hỏi mà bạn thân bạn kinh nghiệm.

A. Kinh nghiệm về bị xâm phạm nhân quyền và phân biệt đối xử.

1. Bạn có từng cảm thấy bị phân biệt đối xử trong xã hội này?

- ① Có(☞ Trả lời tiếp từ 1-1) ② Không

☞ 1-1. Người phân biệt đối xử bạn nếu là người Hàn quốc thì là ai?

- ① Giáo viên trường học ② Người hàng xóm ③ Chủ cửa hàng
④ Người lái xe bus ⑤ Nhân viên nhà nước
⑥ Mục sư, ông cha nhà thơ, những người có chức vụ tôn giáo
⑦ Nhân viên tư vấn hay tổ chức giúp đỡ gia đình đa văn hoá ⑧ Khác

2. Khó khăn trong khu vực hay trường học mà bạn đang sống là gì? (điền tất cả những điều nào mà bạn gặp phải)

- ① Tiếng hàn chưa thạo ② Khó kết bạn
 ③ Bạn bị đánh không lý do, thành trò đùa, bị cô lập bởi người Hàn
 ④ Bị thấy cô lập bởi sự khác biệt trong chi phí sinh hoạt ⑤ Khác

3. Những kinh nghiệm sau bạn - người được gọi là người nữ nước ngoài kết hôn cư trú trong xã hội này đã từng trải qua thì đánh dấu chính xác vào cột thích hợp.

S tt	Tình huống	Rất thường	Một chút	Không như vậy	Hoàn toàn không
1	Bị phân biệt trong khi tìm công việc, nghề nghiệp				
2	Cùng làm 1 việc nhưng người hàn được nhận lương cao hơn.				
4	Công ty, nhà thờ hay các cơ quan công cộng, ý kiến của tôi không trân trọng.				
5	Bị phân biệt ở trường hay tập thể.				

4. khi bị phân biệt đối xử bạn có tìm ai tư vấn không?

- ① Có(☞ làm từ 4-1) ② Không

☞ 4-1. khi bị phân biệt đối xử ai tư vấn cho bạn?

- ① Gia đình, người thân ② bạn cùng dân tộc ③ Bạn hàn quốc
 ④ Bạn người nước ngoài
 ⑤ Nhân viên tư vấn hay tổ chức giúp đỡ gia đình đa văn hoá
 ⑥ Người thuộc tôn giáo ⑦ Điện thoại tố giác (công an, thám sát) ⑧ Khác

B. Hoạt động xã hội

1. Những công việc dưới đây làm tham gia như thế nào cùng với những người hàn sống gần bạn. Xin điền vào ô đúng đối với bạn.

St t	Công việc với hàng xóm	Rất thường	thường	Bình thường	Hầu như không	Hoàn toàn không
1	Nhờ trông chừng con hay nhà cửa khi vắng nhà					
2	Giúp nhau việc nhà					
3	Cho mượn hay mượn những đồ đạc trong gia đình					
4	Cho mượn hay mượn tiền khi cần tiền gấp					
5	Trao đổi khi gặp khó khăn khó giải quyết					
6	Trò chuyện phiếm hay khi buồn lo					
7	Tham dự buổi họp giải quyết vấn đề					

3. Đọc tình huống sau và đánh dấu vào cột thích hợp với bạn.

St t	Nội dung	Thật là vậy	Đúng vậy	Bình thường	Không phải như vậy	Hoàn toàn không như vậy
1	Tôi hầu như không qua lại với hàng xóm					
2	Tôi cảm thấy bị hàng xóm cô lập và miệt thị.					
3	Tôi tham gia tích cực các hoạt động xã hội.					
4	Hàng xóm thông hiểu và chấp nhận văn hóa của tôi.					
5	Chồng và mẹ chồng không thích tôi gặp những người hàng xóm lắm.					

C. Thông tin bản thân

1. Quốc gia của bạn là? _____
2. Hiện tại đã nhập quốc tịch hàn? ① Vâng(☞ 2-1) ② Chưa
☞ 2-1. Bạn nhập quốc tịch khi nào? Năm_____
3. Kết hôn khi nào? Năm _____
4. Lần đầu tiên đến hàn quốc là khi nào? Năm_____
5. Cho đến bây giờ bạn ở hàn mấy năm? _____năm
6. Hiện nay gia đình gồm mấy người? _____người
7. Hãy đánh dấu vào những người mà bạn đang sống chung.
___ (1) Chồng
___ (2) Con chung với chồng
___ (3) Con riêng của tôi
___ (4) Con riêng của chồng
___ (5) Ba mẹ chồng
___ (6) Ông bà của chồng
___ (7) Anh em chồng
___ (8) Ba mẹ, anh em và họ hàng tôi

8. Hãy điền thông tin về chồng.

	Tôi	Chồng
Tuổi	tuổi	tuổi
Học lực	Thất học cấp 1 cấp 2 Cấp 3 Trường dạy Nghề Đại học Trên đại học	Thất học cấp 1 cấp 2 Cấp 3 Trường dạy Nghề Đại học Trên đại học
Tôn giáo	Vô tôn giáo Tin lành Thiên chúa Phật Hín đu giáo Hồi giáo Thống nhất giáo	Vô tôn giáo Tin lành Thiên chúa Phật Hín đu giáo Hồi giáo Thống nhất giáo
Nghề	Nông nghiệp Kỹ thuật, chuyên môn chuyên gia Nhân viên văn phòng Dịch vụ- buôn bán Sản xuất Lao động cơ bản Khác Nội trợ	Nông nghiệp Kỹ thuật, chuyên môn chuyên gia Nhân viên văn phòng Dịch vụ- buôn bán Sản xuất Lao động cơ bản Khác Không nghề

9. Điền vào bảng đúng với năng lực tiếng hàn và tiếng mẹ đẻ của bạn.

			Rất tốt	Tốt	Thường	Không khá lắm	Tệ
Năng lực tiếng Hàn	1	Nói					
	2	Nghe					
	3	Đọc					
	4	Viết					
Năng lực tiếng mẹ đẻ	1	Nói					
	2	Nghe					
	3	Đọc					
	4	Viết					

10. Bạn dùng ngôn ngữ nào nói chuyện với chồng

① Tiếng Hàn ② tiếng mẹ đẻ ③ cả 2 ④ tiếng nước khác ⑤ tiếng hàn và tiếng nước khác

Cám ơn đã giúp chúng tôi làm bản điều tra này.

